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한국 평생교육 현장의 행위자 집단으로서
‘평생학습족’의 형성 및 특징에 관한 연구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이 경 림

한국 평생교육 현장의 행위자 집단으로서
‘평생학습족’의 형성 및 특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강 대 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4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이 경 림

이경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6 월

위 원 장 한 동 희
부 위 원 장 최 일 선
위 원 강 대 중



국문초록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법제정 및 각종 정책 도입으로 평생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평생교육 공급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크게 증가하여 수많은 평생교육 기관이 등장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기관 수가 안정되었다.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7년 29.8%에서 2015년 40.6%까지 성장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평생교육이 겪어온 변화는 보통 평생교육 영역에서 시행된 다양한 정책의 결과로 설명됐다. 하지만 평생교육 현장의 실제 행위자인 학습자에 관련된 관심은 다소 미비했다. 이에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행위자인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평생교육 영역의 확대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평생교육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지난 20여 년 간 거쳐 온 변화와 확대를 ‘평생학습족’이라는 행위자 집단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주요 평생학습자 집단을 ‘평생학습족’이라 명명한다. 개인으로서의 평생학습자가 지속적인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평생교육의 주요 행위자 집단인 ‘평생학습족’이 되는 과정을 탐구하고, 이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평생교육의 중요한 행위자 집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 학습자들의 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평생교육 참여 동기, 평생교육 참여 결정 및 지속 요인, 혹은 참여 결정 및 지속을 방해하는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평생교육 참여 연구에 있어 개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들의 공통 행위 패턴을 탐구하여 이들을 집단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드러난 학습자 집단을 통해 한국 평생교육의 확대 과정을 이해할 것이다.

이 연구는 첫째, ‘평생학습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특성, 둘째, ‘평생학습족’의 형성 계기 및 과정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자료는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 및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으로 수집했다.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시간적 여유라는 조건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학습자들은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에는 직장생활 이후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녀가 성장하여 육아가 마무리되어 여유가 생긴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기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했다. 이들이 평생교육 참여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데에는 평생교육 기관까지의 접근성, 평생교육 기관이 사전에 가지고 있던 욕구를 만족시키는지 여부, 그리고 평생교육 참여 과정에서 생기는 평생교육 결과 인정 욕구가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가 파악한 ‘평생학습족’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학습자들은 하나의 평생교육 기관을 정규 출입기관으로 만든다. 이들은 출근이나 등교를 하는 것처럼 평생교육 기관을 다닌다. 둘째, 한 강사의 팬이 되어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수강한다. 셋째, 일일/단기강좌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있었다. 넷째,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나의 평생교육 기관을 정규 출입기관으로 만들거나 한 강사의 팬이 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평생교육 기관에서 참여를 지속하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나 일일/단기강좌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자주 평생교육 기관을 옮기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일일/단기강좌에 매번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있다는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의 말과 이들이 평생교육 참여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들 또한 하나의 평생교육 참여 집단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습자들은 ‘평생학습족’으로 거듭나게 된다. 학습자 집단에서 사교를 나누면서 학습자들은 학습자 집단에 애정을 가지게 되고 더욱 안정적으로 평생교육 기관에 소속된다. 수업 후에 함께하는 식사나 차 마시기, 쇼핑 등 다양한 수업 외 활동들은 학습자 집단을 만들어 ‘평생학습족’이 되는 계기이다. 특히 식사는 정례화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습자들은 함께 하는 식사까지가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집단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다. 성향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 집단을 만드는 것이 ‘평생학습족’이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성향이나 취향이라는 주관적이고 까다로운 조건으로 함께 모인 학습자들은 규모가 작고 훨씬 견고한 집단을 형성한다. 심지어 성향이나 취향이 다른 경우에는 집단을 이탈하기 위해 평생교육 기관을 옮기기도 했다. 수업을 듣고 수업 외 활동을 하며 만들어진 집단이나, 성향과 취향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에서 학습자들은 집단 구성원 간의 인력으로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하면서 ‘평생학습족’이 됐다.

또한 기관 담당자의 관리를 통해 학습자들이 ‘평생학습족’이 되는 경우가 있다. 기관 담당자들은 학습자들이 집단을 이루고 ‘평생학습족’으로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관 담당자들은 학습자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으며 학습자들이 기관에 익숙함과 애정을 느끼도록 했다. 또한 기관 담당자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학습동아리를 만들도록 유도했다.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회원 간 사교를 나누면서 학습동아리는 친목집단과 유사한 집단이 된다. 더불어 이들은 프로그램 수강이 끝난 이후에도 학습동아리 활동을 위해 기관에 지속적으로 출석했다. 학습자들이 기관의 활동가가 되어 평생교육 기관에 일손을 보태면서 평생교육 기관에 더 큰 소속감을 느끼고 기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기도 한다. 기관 담당자와의 친밀한 관계, 학습동아리 활동, 기관의 활동가 되기를 통해 학습자들은 ‘특정 기관의 고정학습자’라는 더 큰 범위의, 보다 경계가 불분명한 집단에 속하면서 ‘평생학습족’이 된다. 이 계기를 통해 학습자들은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평생교육 기관에 본인의 영역을 만든다.

학습자 집단은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족’들은 자신이 이루고 있는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 문화를 구성하고 유지하고자 한다. 하위 족 문화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집단은 신규 학습자와 마찰을 빚어 새로운 ‘평생학습족’이 탄생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신규 학습자를 받아들여 새로운 ‘평생학습족’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평생학습족’ 하위 족들은 하위 족 단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수강했던 프로그램을 반복 수강하거나, 참여할 프로그램을 고르거나, 새로운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의사 결정이 집단 단위로 내려진다. 뿐만 아

나라 이들은 불만을 공유하면서 프로그램 수강 중단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하위 즉 단위의 집단적인 의사 결정은 프로그램 개·폐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평생교육 기관 운영에 영향을 준다.

또한 ‘평생학습족’과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 사이에는 다양한 역학이 작동한다. ‘평생학습족’은 단순히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요구하고 권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평생학습 기관에 다녔던 기간이 권력의 근거가 된다. 또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는 학습자가 상위 기관인 사업장의 주요 고객일 경우 제3 요소에 의해 관계의 역학이 달라지기도 한다.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이 집단으로 평생교육 기관에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집단의 힘이 권력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평생학습족’이라는 평생교육 영역의 행위자 집단을 규명함으로써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질적인 변화를 겪음을 드러낸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평생학습족’이라는 명명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단순한 동질집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구획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 연구는 학습자 스스로의 관점에서는 친목 집단에 불과한 학습자 집단이 기관 담당자의 입장에서 기관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에 핵심적인 ‘고정학습자’이고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임을 드러낸다. 학습자와 기관 담당자 시각에서 학습자 집단이 각각 다르게 이해된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이 연구는 학습자들과 학습자 집단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평생학습족’이라는 평생교육의 중추 참여 집단을 드러내고, 평생교육 영역의 행위자 집단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을 유지하고 지탱해온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양상을 드러냈다는 의미가 있다.

주요어: 평생학습족, 평생학습자, 평생학습자 집단, 평생교육 기관, 평생교육 참여, 행위자 연구

학번: 2015-21570

목 차

I. 문제제기	1
II. 이론적 배경	6
1. 평생교육 참여 양상 연구	6
1) 평생교육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	6
2) 평생교육 참여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10
3) 평생교육 참여 지속 요인에 관한 연구	13
2. 행위자 연구	15
1) 집단 구성 배경 파악에 관한 연구	15
2) 새로운 집단 구성에 관한 연구	17
3) 행위자 담론에 관한 연구	18
III. 연구방법	20
1. 자료 수집	20
1) 면담	20
2) 주 연구 참여자 소개	23
2. 자료 분석	29
3. 윤리적 고려	31
IV. ‘평생학습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32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조건: 시간적 여유	32
1) 은퇴 이후: 적응해야 할 변화한 환경	33

2) 육아 마무리 후: 자신을 위한 투자	36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방식	37
1) 정규 출입기관 만들기: “출근부에 도장 찍었죠.”	38
2) 강사의 팬: “그 분들한테 마니아가 되는 거죠.”	44
3) 일일/단기강좌 애호가: “있으면 거의 다 참여합니다.”	50
4) 자격증 취득	54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속 조건	56
1) 기관까지의 접근성	56
2) 학습자의 요구 만족 여부	59
3) 학습 결과 인정 욕구	62
 V. ‘평생학습족’의 형성 및 특성	 68
1. ‘평생학습족’의 형성 계기	68
1) 수업 외 활동: 식사와 차, 그리고 쇼핑	70
2) 성향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 찾기	73
3) 기관 담당자와 친밀한 관계 형성	77
4) 학습동아리 활동	82
5) 기관 활동가 되기	84
2. ‘평생학습족’의 평생교육 참여 특성	86
1) ‘하위 족’의 집단 정체성 형성	87
2) ‘하위 족’ 단위의 평생교육 참여	90
3) 기관에 대한 권력 행사	95
 VI. 논의	 100
1. ‘평생학습족’의 등장	100

2. 평생교육 학습자 집단에 대한 시각	105
VII. 결론	112
1. 요약	112
2. 제언	117
참고문헌	121
Abstract	125

표 목차

〈표 III-1〉 주 연구 참여자 정보	22
〈표 III-2〉 보조 연구 참여자 정보	23

그림 목차

[그림 VI-1] ‘평생학습족’ 형성 과정	101
[그림 VI-2]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기관 및 프로그램 수	103

I. 문제제기

한국 평생교육은 정책 환경 변화 과정에 따라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980년대는 전반적인 사회교육 정책 추진기로 1980년 국민 평생교육 진흥 의무가 헌법에 명문화 되었으며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0년 독학학위제도가 신설된 이후 몇 년 간 평생교육에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이 시행되지 않다가 1997년 평생교육백서가 처음 발간되고 1999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는 등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평생교육 개념이 도입되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평생교육사 양성,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이 시도되었으며,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고 2008년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이 시작되면서 2008년부터는 평생교육 정책 전환기를 맞았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a). 정리하자면 한국 평생교육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법제정과 각종 정책 도입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1997년이 되어서야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고 평생교육 영역에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20여 년 동안 한국 평생교육은 상당히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년간 한국 평생교육이 겪은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키워드는 단연 ‘확장’이다. 한국 평생교육은 그간 성인 학습자들의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를 한국 평생교육 성장을 설명하는 주된 지표로 삼아왔다. 많은 연구들이 더 많은 영역을 평생교육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확장된 영역에서 평생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구했는데, 보통 평생학습 참여율 진작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평생교육 영역의 정책 보완을 통해 평생교육 확대를 설명하거나 추구했다(e.g. 이병호 · 최은수, 2009; 한국교육개발원, 2015; 권인탁, 2014; 홍숙희, 2010). 즉, 한국 평생교육은 정책을 통한 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7년 평생교육 통계 조사가 실시된 이후 2013년에 2012년보다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이다. 2007년 29.8%였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5년 40.6%까지 증가하였다.

평생교육 공급 또한 명백하게 증가하였다. 평생교육을 관리하는 제도 및 정책이 변화하여 1990년대와 현재의 통계 기준이 달라 전체 규모에서 평생교육 기관 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평생교육 공급 규모 확대는 각 평생교육 공급 영역이 팽창한 정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에 기관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04년 이후에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1996년 917개에서 2002년 6,556개로, 기관 수 증가에 따라 함께 크게 증가하였고, 2004년 이후 기관 수가 안정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프로그램은 2008년 18,992개에서 2015년에는 28,625개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취미 및 여가 생활과 관련된 백화점 문화센터 등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첫 시설이 개설된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1990년대 중반 복지관 등 여타 평생교육시설이 급증하며 잠시 주춤하였다. 하지만 1995년 이후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규모와 수가 크게 확장되었다(교육부, 2000; 평생교육진흥원, 2008).

대표적인 지자체 담당 평생교육시설인 평생학습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 등장한 평생교육 공급 유형이다. 평생학습관은 1997년 15개, 1998년 19개 기관으로 처음 시범 운영되었으며,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었다. 평생교육관 수는 특히 2006년과 2008년 사이 급증하였으나 2009년을 정점으로 그 수가 점차 안정되었다. 하지만 기관 수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2008년 11,021개에서 2015년 22,89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 평생교육 기관 수와 프로그램 수 증가는 모두 1997년 이후 평생교육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방증한다.

하지만 평생교육 변화를 확대 정도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예컨대,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30% 내지 40%에 머무르는 데에 비해, 평생교육 기관 수는 더 큰 폭으로 급증했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기관 수가 안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평생학습 참여율에 비

해 훨씬 급격하게 증가했다. 평생교육의 변화를 확대로만 설명하는 것은 불균형한 통계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게 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한국 평생교육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확대 그 자체보다는 규모와 영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실제로 이를 가능하게 한 평생교육 참여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생교육 참여 양상을 다루는 연구들은 대부분 평생교육 참여 동기, 평생교육 참여 결정 및 지속 요인, 그리고 결정 및 지속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e.g. 권두승 · 이경아, 1999; 정지선 · 차갑부 · 전현중, 1999; 최돈민 외, 2006; 손준중, 2004; 전해숙, 2009; 최돈민 외, 2004; 최운실, 2006; 한승희 · 신태수 · 양은아, 2007).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참여 동기와 참여 결정 및 지속에 관련된 요인들과 성취도와 같은 성과요인 간 관계, 교수 및 학습 방법과의 관계, 만족감, 행복감 등 심리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상당히 많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참여 및 지속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규모를 확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확장된 현상과의 관련 속에서 학습자 참여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 참여 양상에 관한 연구는 동기나 참여 및 지속 관련 요인을 다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팽창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방식 파악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생교육 참여 현상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힌트는 평생교육에 주로 참여하고 참여를 지속하는 학습자들의 비슷한 행위 패턴을 파악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 자료를 보면 비형식교육 참여자들의 1인당 프로그램 참여 수는 2011년 이후 증가하여 2015년 1.68개가 되었으며, 비형식프로그램 참여자 중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수강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동시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 수강하는 평생교육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은 평생교육 참여 현상이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사례에서도 동시에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강대중(2010. 6.)의 글에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프로그램을 네 개 이상 수강하는 학습자와 지역 자치구와 인근 대학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평생교육 강좌를 지속적으로 수강하는 학습자가 등장한다. 다수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강하거나 지속적으로 지역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현상은 이들이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은진(2016. 6. 27.)은 구미시의 평생교육 발전을 주제로 기고한 글에서 평생교육 참여자들의 쏠림현상과 학습소비 현상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평생교육이 활성화 될수록 ‘배운 사람이 또 배우는’ 이른바 ‘학습쇼핑족’이 증가하여 교육 기회가 여전히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쏠림현상과 학습소비에 대한 우려는 평생교육 공급을 일정 부분 이상 차지하는 특정한 학습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시하고 있는 개별 사례는 별개의 평생교육 현장에서 공통 맥락 없이 발견된 사례들이지만,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라는 특정한 학습 현상이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이상, 이 현상이 한국 평생교육 참여자들의 특징적인 학습 참여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습자들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반복 참여하거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강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늘 일정 부분 이상 충족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을 유지하는 데에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 및 기관 직원과의 사전 대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장기간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학습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반복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규모는 다르지만, 다수의 학습자들이 여러 번 반복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프로그램 종강 후 다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식으로 지속적인 참여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통계 자료가 미비하여 평생교육에 반복적으로 장기 참여하는 학습자 비율을 구체적인 숫자나 비율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학습자들이 확인된다면, 그리고 그들이 각 평생교육 기관에서 두드러지는 학습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들 학습자가 한국 평생교육 참여 현상을 설명할 수 있

는 중요한 행위자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평생교육 현장에 참여하는 주요한 평생학습자 집단을 ‘평생학습족’¹⁾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집단을 이루리라는 가정을 전제로, 해당 집단을 ‘평생학습족’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개인으로서 ‘평생학습자’가 지속적인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하나의 집단인 ‘족(族)’으로 변화한다고 했을 때, 이들 집단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평생교육의 중요한 행위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있다고 할 때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한다면, 한국 평생교육의 고정적인 수요층을 설명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평생학습족’을 통해 한국 평생교육이 지난 20여 년 간 겪어온 확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한국 평생교육이 겪은 성장과 발전을 탐구하였던 기존 연구들은 평생교육을 현재 수준으로까지 향상시킨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평생학습족’의 평생교육 참여 양상을 통해 주요 평생교육 참여자들이 한국 평생교육 내에서 만들어 내는 지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 평생교육 변화와 확장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평생학습족’이 형성되는 계기와 과정은 무엇인가?

1) 강대중, 개인 이메일, 2017년 5월 11일.

II.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평생교육 현장에 등장한 ‘평생학습족’의 학습 참여 패턴을 이해하여 지난 20년간 평생교육이 거쳐 온 변화에 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평생교육 참여 양상에 관한 선행 연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특정 행위자 집단을 연구한 연구물들을 유형과 연구 틀을 살펴보는 것이 행위자 집단으로서 ‘평생학습족’을 연구하는 데에 이론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1. 평생교육 참여 양상 연구

1) 평생교육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

학습 참여 동기에 관련한 최초의 이론적 틀은 Houle(1961)의 연구를 통해 구축되었다. Houle은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평생교육 참여자 22명과 심층면담을 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 동기를 목표지향형(goal-oriented), 활동지향형(activity-oriented), 학습지향형(learning-oriented)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목표지향형 학습자는 평생교육을 뚜렷한 목표 성취 수단으로 생각한다. 목표지향형 학습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의 참여 동기와 목표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일치한다. 목표지향형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기능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면 쉽게 학습을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 활동지향형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학습 내용보다는 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자체가 중요한 학습 동기로 작용한다. 이들에게 교육기관은 학습을 하는 장소보다는 사교 활동이 발생하는 장소에 더욱 가까우며, 이들은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교육에 참여한다. 반복적인 일상생활에서 탈출하여 일상에 변화를 주기 위한 동기 또한 활동지향형 동기에 포함한다. 학습지향형 학습

자는 스스로를 학습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그들은 학습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배우는 행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향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은 학습 현장에서 배움에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향적 학습자들은 교육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Houle은 교육 참여 동기를 어느 정도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하지만 세 유형의 동기가 서로 배타적이지는 않다. 학습자들의 교육 참여 동기는 중복될 수 있다. Houle은 어떤 성인학습자도 완전하게 하나의 동기 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집단들은 서로 중복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Houle이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 동기를 분석한 후, 많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중 Sheffield(1962, 1964), Burgess(1971), Boshier(1971, 1976), 그리고 Morstain과 Smart(1974)의 연구가 성인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관한 대표적인 후속연구로 손꼽힌다(Boshier & Collins, 1985). 이들은 Houle(1961)이 밝혀낸 세 가지 동기 유형을 입증하거나 반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들이 수행한 연구들을 통해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인이 드러났다.

Sheffield(1964)는 질적 연구로 수행된 Houle(1961)의 연구 결과를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성인계속학습동지표 CLOI(Continuing Learning Orientation Index)를 개발하여 설문 결과를 요인분석하였다(Boshier & Collins, 1985). Sheffield는 학습지향형, 개인적 목적지향형, 사회적 목적지향형, 대외활동지향형, 대내육구충족활동지향형 등 총 다섯 개의 동기유형이 있음을 밝혔다(최운실, 1986). Sheffield는 Houle이 밝혀낸 세 개의 요인을 넘어 다섯 개의 요인을 드러냈지만, Sheffield가 밝혀낸 학습지향형 동기는 Houle이 말하는 학습지향형 동기와 유사하였고, 개인적 목적지향과 사회적 목적지향형 동기는 Houle의 목표지향형 동기를 세분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대외활동지향형과 대내육구충족활동지향형 또한 Houle의 활동지향형 동기에 포함될 수 있다. 결국 Sheffield가 밝힌 다섯 개의 동기는 Houle의 동기유형 기초로 개발된 지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Houle의 동기 유형을 더욱 세분화 및 명료화하고 있지만, Houle의 동기유형을 양

적 지표로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Burgess(1971)는 교육참여이유를 묻는 문항 REP(Reasons for Educational Participation)을 개발하였고, 1,09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두 차례의 요인분석이 수행되었는데, 1차 요인분석에서는 여덟 개의 동기 유형이, 2차 요인분석에서는 일곱 개의 동기 유형이 드러났다. Burgess가 추출한 동기들은 얇에 대한 열망, 개인적 성취에 대한 열망, 사회적 성취에 대한 열망, 종교적 성취에 대한 열망, 일상생활 탈출에 대한 열망, 활동 참여에 대한 열망, 그리고 공적 요구 만족에 대한 열망 등이다. Burgess의 연구는 종교적 성취를 주요한 교육 참여 동기로 밝혀내고, 성취에 대한 욕구 또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는 등 Houle에 비해 교육 참여 동기에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목적이 Houle의 연구 결과를 더욱 명료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만큼, Burgess의 연구 결과 역시 여전히 Houle의 도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최운실, 1986).

Boshier(1971)는 성인들의 학습참여 동기를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 교육 참여 척도 EPS(Education Participants Scale)을 개발하였다. EPS를 활용한 동기 유형 파악 연구들 통해, 1971년에는 열네 개 요인이, 1974년에는 여섯 개 요인이 분석되었고, 1985년에는 다섯 개 요인이 드러났다. 1985년에 Boshier가 분석한 다섯 개 요인은 각각 전문성 함양, 지역사회 봉사, 외부 기대, 사회적 접촉, 사회적 자극, 지적 흥미이다. Boshier의 연구는 성인학습자가 동기부여 되어있는 방식에 단순한 설명을 제공하고,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참여 동기가 Houle의 세 가지 유형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Morstain과 Smart(1974)는 성인학습자를 648명을 대상으로 Boshier가 개발한 EPS 설문을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사회적 관계, 외부 기대, 사회적 복지, 직업적/전문적 진보, 현상 탈피와 자극, 지적 관심 등 여섯 개의 동기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뉴질랜드 성인학습자와 미국 성인학습자의 동기유형이 거의 흡사하다는 점을 밝혀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 동기가 범문화적으로 유사함을 드러냈으며, Boshier(1971, 1974, 198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Houle(1961)의 단순한 세 가지 동기 분류를 넘어 더욱 자세한 동기

유형을 드러냈다.

국내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를 다룬 연구도 상당수 존재한다. 최운실(1986)은 직접 “성인의 교육 참여 특성분석 조사지”를 개발하여 성인교육유형별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 9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성인학습자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 사회적 인정 및 참여, 외적 기대 충족, 직업적 성취 및 전문성 함양, 현상으로부터의 도피와 변화 추구하고 같은 동기로 교육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성인교육유형을 대학주도형, 기업주도형, 민간주도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들의 참여 동기가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는 의미가 있다. 기업 주도형의 경우 직업적 성취동기, 외적 기대 충족, 사회적 인정과 같은 참여 동기를 지닌 학습자들이 많고, 민간주도형에 참여하는 현상으로부터 도피와 변화 추구,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두승 · 이경아(1999)는 학습지향형, 활동지향형, 타인기대충족, 일상으로부터의 탈출과 같은 요인을 성인학습자의 참여 동기로 구분하였다(권두승 · 조아미, 2006에서 재인용). 이 중 학습지향형 동기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활동지향형 동기, 목적지향형 동기, 타인 기대 충족 동기, 일상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참여 순으로 높이 나타났다.

이숙원(2003)은 Houle(1961)의 모형에 따라 대학부설 평생교육 기관에 등록한 성인학습자 891명을 설문조사 하여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 동기를 세분화 하여 조사하였다. 목표지향형 동기를 취업이나 승진에 도움, 학위, 학점 취득을 위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세부 동기로 분류하였고, 활동지향형 동기를 인간관계 확대, 새로운 일이나 활동 욕구, 여가시간 활용으로, 학습지향형 동기를 새로운 기술 및 지식습득,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로 세분화 하였다. 설문결과 참여 동기 유형별로는 대학부설 평생교육 기관 학습자들은 높은 학습지향형 동기와 활동지향형 동기가 있지만, 목적지향형 동기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 연구를 위해 활용하는 설문이나 모델은 대부분 Houle(1961)의 모형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생교육 참여 동기 연구는 대부분

Houle의 모델을 확인하거나 정교화 하는 작업인 경향이 강하다. 또한 연구 결과는 단순 설문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 절차로 분석하여 추출된다. 단순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들은 연구 결과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활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연구 결과가 단순 묘사에 머무른다는 한계가 있다.

2) 평생교육 참여 결정에 관한 연구

학습 참여 결정 요인에 관한 이론 및 연구는 교육 참여 동기가 아닌 여타 개인적 변인이나 사회적 변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행해졌다. 많은 연구자들은 학습자가 평생교육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였다(e.g. Miller, 1967; Boshier, 1973; Rubenson, 1977; Cross, 1981; Darkenwald & Merriam, 1982).

Miller(1967)는 학습자가 개인 욕구와 사회적 힘의 관계에 따라 교육 참여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Miller는 Maslow의 욕구위계와 Lewin의 장이론의 개념을 적용하여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 결정을 설명했는데, 단순히 성인학습자가 교육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 뿐 아니라 학습자 각각이 속해있는 사회적 계급에 따라 교육 참여 목적과 양상의 차이와 그 이유 또한 제시하였다. Miller는 성인학습에 욕구 위계를 적용하여 사회계층이 낮거나, 나이가 적은 집단은 생존이나 안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직업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려고 하며, 사회계층이 높거나 연령대가 높은 집단은 성취나 자아실현 욕구에 관련된 교육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Miller는 Lewin의 장이론을 적용하여 교육 참여는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힘과 부정적 힘의 강도와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 때 긍정적 힘과 부정적 힘은 사회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난다. Miller의 모델은 학습자는 개인의 욕망에 의해 학습에 참여하며,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보다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욱 클 때 학습에 참여한다고 전제한다. 다만 개인의 욕망은 사회 구조와 사회의 힘에 의해 형성되고 조건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Rubenson(1977)의 기대-유인가 모델(Expectancy-Valence Model)은 기대(expectancy)와 유인가(valence)의 상호작용에 따라 교육 참여가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기대는 교육이 학습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학습자가 교육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의 결합으로, 학습자가 처한 환경과 환경을 지각하는 방식이 상호작용하여 결정된다. 유인가는 학습자가 교육 가치에 내린 판단이다. 기대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환경 지각 방식은 학습자가 겪은 과거 상황보다는 현재 처해 있는 생활공간에 의해 결정되므로 Rubenson은 자신의 접근 방식이 학습 참여 결정에 대한 탈역사적 접근이라고 보았다(Cross, 1981). 교육 참여가 기대와 유인가를 비교하여 결정된다는 것은 Rubenson이 성인학습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교육에 참여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설명한 모형들은 교육 참여를 단일한 사건으로 설명하지만, Cross(1981)는 학습 활동 참여를 단일 행위가 아니라 연속 행위 또는 연속 행위의 결과라고 보았다. 학습자가 상황과 자신의 위치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학습자가 외부 조건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 참여는 이러한 반응들의 연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Cross는 학습자들이 학습 참여를 결정하기 전 마주하게 되는 여러 평가와 반응을 고려하여 반응연쇄모형(Chain-of-Response Model)을 개발하였다. Cross에 따르면 학습자는 자기평가를 시작으로 교육에 대한 태도, 목적의 중요도나 기대, 삶의 전환, 기회와 방해, 정보 등에 대한 반응에 따라 학습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반응들은 서로 영향을 미쳐 연쇄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학습 참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긍정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만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Cross의 모델에서 성인학습에 참여하는 힘은 개인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외부로 확장된다(권두승 · 조아미, 1999). 이 모델은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통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여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동인과 반대항의 힘의 누적에 학습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Darkenwald와 Merriam(1982)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강조하는 사회심리적 상호작용모델(Psychosocial Interaction Model)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교육 참여 결정이 사회적 환경

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는데,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 참여와 관련된 요인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성인기 이전의 IQ와 같은 개인 특성 및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가정적인 특성은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교육과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 준비교육과 사회화는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 성인기 이전 경험은 성인기 이후 사회경제적 지위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개인은 직장에서 받는 요구나 개인 전문성에 대한 욕구, 조직 참여 욕구 등 큰 학습 압력을 받게 된다. 반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처하는 경우에는 학습 압력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강도가 다른 학습 압력을 받는 개인은 교육 가치와 유용함을 다르게 판단한다. 교육 가치와 유용함에 대한 판단은 학습참여 성향이나 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Darkenwald와 Merriam의 모델은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교육에 대한 판단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학습 압력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교육 참여에 장애를 적게 느끼고 높은 수준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성인 교육 참여 결정 모형들은 교육 참여 결정이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만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인의 선택은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조건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심리적 상태와 개인이 처한 환경적 조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육 참여 결정은 개인이 어떻게 자신이 주어진 환경을 해석하는지에 의해 발생한다(Cross, 1981).

한국에서 수행된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결정에 관련한 연구들은 참여 결정 과정 모델을 제시하기보다는 대부분 평생교육 참여 실태 조사와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인이 교육에 참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 문제로 하고 있다(e.g. 정지선 · 차갑부 · 전현중, 1999; 최운실 · 김현철 · 변종임, 2005; 전혜숙, 2009; 최돈민 · 신건호 · 유제민, 2006; 최돈민 · 이세정 · 김세화, 2008; 한승희 · 신태수 · 양은아, 2007). 다만 평생교육 참여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는 많으나 각 연구들이 포괄하는 학습자들의 특성이나 평생교육 참여 형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비교하여 한국 평생교육의 실태를 요약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성별과 연령, 학력은 대다수의 연구에서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평생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정지선 외, 1999; 최돈민 외, 2008; 한승희 외, 2007).

다만 경제활동 성인학습자로 대상을 제한한 전해숙(2009)의 연구는 경제활동 성인학습자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교육 참여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고졸 이하 노동자들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형식교육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 임연 · 최동선 · 오은진(2005)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직무 관련 학습 요구가 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취미와 여가 관련 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3) 평생교육 참여 지속 요인에 관한 연구

Thompson(1992)은 교육 참여와 교육 지속을 동시에 포함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학습 참여 첫 번째 단계인 초기 참여 결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적절한 참여 시기 발견(Finding the right time)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의 참여 동기나 학습에 대한 태도는 학습자가 교육에 헌신하는 정도(commitment)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에 헌신하는 정도는 학습자가 교육 참여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는지와 관련된 시간 배분(Reslicing the pie)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 배분은 헌신 정도 뿐 아니라, 발달단계별 사건이나 직업적 변화, 지원/비지원, 기관의 장애 요인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초기 참여 결정 단계를 지나면 학습자는 학습을 지속 또는 중도 탈락을 결정하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는데 이 단계에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Maintaining a balance)이 주요 과제이다. Thompson은 교육기관 상황과 교육기관 이외의 환경이 균형을 이룰 때 학습자들이 교육을 지속한다고 보았다. 교육은 학습자들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학습자들의 다른 삶의 면모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Thompson의 모델에서는 다양한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를 지속하게 돕는다.

MacKinnon-Slaney(1994)는 성인학습 지속(APIL: the Adult Persistence in Learning) 모델을 제안하는데, 이 모델은 고등 형식교육, 즉 대학에 등록한 성인학습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 모델에서 학습자는 개인, 학습, 환경 등 세 가지 구성 요인에 속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반응하여 교육 참여 지속을 결정한다. 관련된 첫 번째 요인은 학습자 개인으로, 자기이해, 만족감을 지연시키려는 의지, 직업 및 삶의 목적 명료화, 삶의 전환 통제, 인간관계 능력 등을 요소로 포함한다. 두 번째 요인은 학습과 관련이 있는데, 학습 능력, 지적 능력, 정치적 능력이에 포함된다. 환경에 관련된 세 번째 요인은 정보 활용, 기회와 장애 이해, 환경 적합성이 요소로 포함된다. 세 요인에 속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학습자가 학습을 지속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처음 교육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자 개인 특성이나 학습자가 해석한 환경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루지만, 교육을 지속하게 하는 데에는 실제 환경과의 일치나 균형, 그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기관이나 주변인의 지원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분석들은 초기 참여 결정에는 개인이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데 비해, 교육 지속에는 외부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이숙원, 2002), 이는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힘이 교육 참여 과정에서 점차 개인에서 외부로 확장된다는 점을 시사한다(Thompson, 1992).

이숙원(2003)은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참여 지속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과 교육기관 요인을 탐색했는데, 성인학습자의 연령, 학력수준, 결혼여부, 직업유무가 참여지속 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기관의 설립주체, 소재지, 역사, 규모, 사회적 평판이 참여지속 수준에 영향을 미침을 드러냈다. 이는 학습자의 개인적 교육 환경이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관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지속을 방해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숙원(2003)은 이를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미 참여를 지속해온 학습자들을 대상이었다는 점, 그리고 참여를 지속해온 학습자들은 이미 역할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학습 환경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으로 설명했다.

2. 행위자 연구

새로운 이름을 가진 특정 유형의 사람들은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다. 집단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은 특정한 행위들이 사회 맥락에 따라 부각되면서, 그리고 사회가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만들어진다. 행위 방식과 맥락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롭게 이름 지어진 사람들을 특정 행위자라고 한다면 이들을 다른 연구들을 ‘행위자 연구’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자는 호명에 의해 드러난다. 이전까지는 특별할 것 없었던 사람들이 호명되는 순간 가시적 존재로 드러나고 그들의 행위 의미는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한 사람들에게 의해 해석된다. 이때 호명은 집단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단순히 집단을 분류하기 위한 코드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일종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이 때 언어는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사실로 간주된다(류연미, 2014). 즉, 행위자 연구는 행위자들의 특성을 언어로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행위를 촉발하고 존재할 수 있게끔 한 사회와 구조, 그들이 서있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다.

행위자 연구는 연구 대상과 연구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위자 연구에는, 특정 행위자 집단이 현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 배경을 파악하는 연구(e.g. Ariès, 2003; 송호근, 2013), 행위적 특징을 통해 새로운 행위자를 규명해내고 그 배경을 탐구하는 연구(e.g. 永嶺重敏, 2010; 육영수, 2010; Kindlon, 2007), 그리고 동일한 행위자에 관련된 담론의 변화와 맥락을 파악하는 연구(e.g. Foucault, 2003; Foucault, 2006; 류연미, 2014)가 있다.

1) 집단 구성 배경 파악에 관한 연구

첫 번째 유형의 연구는 행위자의 이름과 의미가 부여되고 조망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연구이다(e.g. Ariès, 2003; 송호근, 2013).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는 각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 집단이 탄생한 맥락과 배경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이 초점을 둔 행위자는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집단화 되어 받아들여지고 그 이름이 유통되고 있는 존재이며, 연구는 이들이 집단화되었던 과정을 탐구한다. 대표적으로 Ariès(2003)는 중세사회에서 익명의 상태였던 아동이 근대의 가족과 교육체제가 성립함에 따라 근대적인 의미로 탄생하였음을 밝혔다.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체제가 형성되어 아동과 어른이 격리되었고, 가정과 학교가 분리되자 가정은 애정의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이후 인위적인 출산 저하와 사회생활이 가정과 직업 주변으로 집중되면서 아동은 보호와 훈육 대상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송호근(2013)은 후기 조선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공론장이 변화하면서 ‘시민’이 탄생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송호근(2013)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근대적 주체, 즉 시민은 신분제 극복과 공론장이 연계되면서 탄생했는데, 조선 후기에 공고했던 양반 공론장이 붕괴하고 동학에 힘입은 종교적 평민 공론장이 흥하면서 조선의 공론장은 분화하고 충돌하였다. 그 이후 양반 공론장이 지식인 공론장으로 계승되고, 종교적 평민 공론장이 세속적 평민 공론장으로 부활하였는데, 이 두 공론장이 공명하고 연계되는 과정에서 시민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 탄생 과정을 되짚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연구는 연구 대상이 되는 행위자 집단들이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름에 부여되는 의미에 질적인 변환이 일어난 계기, 그리고 그 의미가 확립된 시기를 규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연구는 역사적인 연구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Ariès(2003)의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데, 그는 아동의 의미가 질적으로 전환된 계기와 사회배경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방법으로 도상학과 심성사(history of mentality)를 채택하였다. 특히 심성사는 Ariès의 주요한 연구법으로 각광받는데, 심성사는 인류학적인 역사 접근으로, ‘정신’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일상에 관심을 가진다. 심성사의 주제인 심성은 사랑, 죽음, 공포 등에 대해 사회 전체가 대하는 마음가짐이다. 심성은 보통 생물학적 요소로 이해되지만,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시대 및 상황에 따라 사랑, 죽음, 공포 등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사회적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Ariès는 사생활 문화,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근대적 심성의 형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Ariès는 가족 안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 근대적 아동 개념이 탄생하는 과정으로 근대의 사회적인 인식존재양식, 즉 심성의 변화를 해석하였다(이윤미, 2009).

2) 새로운 집단 구성에 관한

두 번째 유형의 연구는 새로이 등장한 행위자 유형을 직접 명명하는 연구이다(e.g. 永嶺重敏, 2010; 육영수, 2010; Kindlon, 2007).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는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여 발생한 행위 양식으로 생겨난 새로운 행위자들을 분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연구의 대상 집단은 긴 시간 동안 의미 변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다소 짧고 급격한 변화 과정을 겪고 존재의 탄생 자체가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永嶺重敏(2010)는 일본 독서문화가 근대적 독서 세계로 이행함에 따라 탄생한 ‘독서국민’을 연구하였다. 철도 발달과 지방 독서 지원으로 활자미디어가 유통되고, 여행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독서하는 여행자가 증가하며, 중앙이 독서 장치를 보급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독서문화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서 습관을 보급했고,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은 ‘독서국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근대적 인쇄체계 발전으로 등장한 ‘활자인간’(육영수, 2010), 새로운 엘리트 집단으로 등장한 ‘알파걸’(Kindlon, 2007) 등이 이러한 유형의 집단에 의해 드러난 행위자들이다. 이들 연구를 통해 드러난 행위자들은 특징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그 행위 양식을 해석하는 새로운 프레임이 등장함에 따라 이름 지어지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도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유형의 연구와 연구 방식 틀은 크게 다르지 않다. 행위자를 향한 새로운 호명은 행위자가 몸담은 세계의 변화로 발생한다.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 연구의 차이점은 연구 대상 집단의 이름이 기존에 존재한 것인가, 아니면 연구자가 붙인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두 유형의 연구는 모두 사회적 배경의

변화와 그 영향에서 행위자를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끔 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만 두 번째 유형 연구 가운데 사회적 배경 변화에 더 초점을 두는 연구가 있고, 행위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있다.

3) 행위자 담론에 관한 연구

세 번째 유형의 연구는 특정 행위자에 관련된 담론을 탐구한 연구이다. 앞선 유형의 연구들과는 달리 이 유형의 연구는 행위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아닌 행위자에게 주어진 의미와 기대를 해석하는 방식에 집중한다. 특히 세대 담론 연구가 이 유형에 속하는 주요한 연구인데, 세대 담론 연구는 특정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단순한 생물학적 연령 코호트를 넘어 사회적으로 의미를 부여받아 특정한 세대를 형성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구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급물살을 탔던 한국사회의 다양한 청년 담론이 그 일환이다. 2007년 출간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88만원 세대》(우석훈 · 박권일, 2007)를 비롯한 ‘삼포세대’, ‘수저계급’ 등 부정적인 상황이 부각된 청춘뿐 아니라, 소셜 이노베이터, 마을활동가 등 새로운 활동을 창조해 내는 청춘까지, 20대부터 30대 초반 청년층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호명되고, ‘청년’에 관련된 담론이 변화함에 따라 청년은 늘 새로운 의미와 사회적 기대를 부여받는다. 류연미(2014)는 청년활동 실천과 청년 활동을 관리하는 서울시의 제도, 청년 담론들의 교차를 연구하여, 현재 청년은 전통적으로 청년층에게 투사되었던 사회 운동 주체와 온전한 경제 활동 주체로서의 이미지를 만족시키는 데에 실패하지만, 개인의 ‘주체-되기’라는 성찰적 기획과 제도의 ‘주체화-시키기’라는 통치성 기획으로 인해 새롭게 ‘성찰적 자기통치 주체’로 탄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류연미(2014)는 앞선 연구들이 역사적인 접근을 택하여 문헌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데에 비해, 현재 청년층의 실천적 맥락을 파악하여 청년을 호명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연구 방법으로 택하고 있다.

행위자 등장과 호명을 담론 변화로 파악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학자는

Foucault이다(Fairclough, 2003: 123). Foucault는 광인, 환자, 수감자 등 사회에서 배척되는 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사회가 행하는 권력적 배치가 이들을 어떻게 타자로 호명하고 배제하는지 탐구했다. 그를 통해 권력효과가 발생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지식이 예측되는 현상을 드러낸 것이 Foucault의 큰 성과이다. 이렇게 담론이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Foucault의 연구 방법을 ‘지식의 고고학’이라 하는데, 이는 과거에 말해지고 쓰인 것들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방식의 연구로, 어떤 기초지식과 이론이 가능하게 된 바탕을 재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Foucault, 1966/1973; Parker, 2011에서 재인용). Foucault는 정신병, 의학, 범죄 등 인간을 지식 대상으로 특정 집단화 하는 요소들은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라 기관 체계에 내재된 실용적이고 복잡한, 각기 다른 얇의 담론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Foucault는 미친 것은 무엇이고 누가 미쳤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이 무엇인지를 형성하는 담론이 구성된 방식을 탐구한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평생교육의 학습자 집단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정한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행위자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는 인간 삶의 의미를 현실 세계의 조건하에서 연구하고, 연구 참여자의 견해와 관점을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연구 방법이다(Yin, 2013). 김인숙(2016)은 질적 연구방법의 특징 네 가지로 경험 이면의 의미 탐구, 맥락의존적 지식 산출, 방법으로서의 해석, 귀납적 지식 축적을 들었다. 대화를 통해 구성되는 경험은 구조 및 담론과의 상호교환으로 만들어지는데(Smith, 2014; 김인숙, 2016에서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경험은 연구 참여자의 주관성과 동시에 구조 및 담론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주요 자료로 경험의 의미를 맥락의존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며 귀납 과정을 통해 명제를 확증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학습자들이 한국 평생교육이라는 맥락 안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과정과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

1. 자료 수집

1) 면담

이 연구의 주요 자료는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면담은 “인간 행동의 맥락에 들어가게 해주며, 이를 통해 연구자가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길”(Seidman, 2009)을 제공한다. 면담은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본격적인 면담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연구심의를 받고 연구 진행 승인(IRB No. 1608/003-005)을 받았다.

한국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의 주 참여자로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를, 보조 참여자로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를 선정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준비한 질문을 중심으로 면담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점은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질문하였다. 앞선 면담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면담에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였다.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에게는 평생교육 참여 과정이나 방식에 대해 주로 질문하였고,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에게는 기관에 등록한 학습자들의 특징에 관하여 주로 질문하면서 동시에 평생교육 기관을 운영할 때에 기관 담당자들과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주 연구 참여자인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들은 평생교육에 참여한 기간과 평생교육 참여 후 중단 기간을 기준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한 지 2년 이상이며 평생교육을 중단한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는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주된 평생교육 참여 방식은 평생교육 기관에서 정규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인데, 정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즉, 참여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중단 기간이 6개월 이하라는 기준은 대략 학습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8번 이상 참여했고, 연이어 3번 이상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연구 참여자는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 방법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정규 프로그램 등록 횟수가 아닌 기간을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는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에게 학습자를 소개를 받는 방식으로 모집하였다. 기관 담당자들은 기관 사정에 밝기 때문에 기관에 등록하고 있는 학습자 중 평생교육 참여에 보다 적극적인 학습자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가 다른 연구 참여자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면담을 시행한 결과, 총 학습자 10명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면담은 1회에서 2회 시행되었고, 각 면담 당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와 면담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연구 참여자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표 III-1〉 주 연구 참여자 정보

	이름	성별	연령	면담일시
1	최현우	남	60대	2016.9.16.
2	김준기	남	60대	2016.9.21.
3	신건우	남	60대	2016.9.22.
4	박민서	여	50대	2016.10.20. 2017.3.21.
5	이해민 ²⁾	여	40대	2016.11.5.
6	성예원	여	40대	2016.11.5.
7	이동혁	남	50대	2016.11.15. 2017.3.14.
8	김동원	남	40대	2016.11.17.
9	박혜선	여	60대	2016.11.23.
10	심지민	여	50대	2017.3.21.

보조 연구 참여자인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는 평생교육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선정하였다. 평생교육사로 근무한 경력이 그보다 짧은 경우 평생교육 참여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는 앞서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로부터 다른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는 방법으로 모집하

- 2) 이해민은 평생교육에 8년 이상 참여했으나 면담 당시 잠정적으로 참여를 중단한 상태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인 ‘중단 기준이 6개월이 넘지 않을 것’을 위반하지만, 이해민이 여전히 평생교육 기관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고 평생교육 기관에서 학습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평생교육 기관의 학습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이해민이 이 연구의 참여자로 적합할 것이라 생각하여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였다.
- 3) 면담은 기본적으로 일대일로 진행했지만, 이해민과 성예원, 그리고 박민서(2차)와 심지민은 함께 면담하였다. 처음 섭외한 학습자가 면담 장소에서 동료학습자를 소개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대일 면담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였다. 최종적으로 기관 담당자 7명을 보조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면담은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보조 연구 참여자와 면담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알파벳 코드를 부여했고, 소속기관은 모두 가명이다.

〈표 III-2〉 보조 연구 참여자 정보

	이름	소속 기관 ⁴⁾	경력 ⁵⁾	면담일시
1	A	바다구 평생학습관	12년	2016.9.6.
2	B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	14년	2016.10.13.
3	C	솔마트 a지점	13년	2016.10.18.
4	D	루나마트 b지점	7년	2016.10.25.
5	E	모아백화점 c지점	6년	2016.10.26.
6	F	솔마트 d지점	6년	2016.11.1.
7	G	아론백화점 e지점	9년	2016.11.2.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했다. 녹음 후에는 연구자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녹취록은 면담이 진행된 후 최소 하루, 최대 일주일 안에 작성했다.

2) 주 연구 참여자 소개

(1) 최현우

최현우는 28년 동안 근무한 직장을 은퇴한 후 처음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였다. 직

4) 면담을 진행한 2016년 하반기 기준

5) 면담을 진행한 2016년 하반기 기준

장에서 은퇴하고 속상해하고 있을 때 아내가 권유하여 바다구 평생학습관에서 컴퓨터 기초 프로그램에 등록한 게 첫 시작이었다. 이후 아내와 함께 바다구와 가온대학교가 공동주관하는 가온대학교 시민대학, 가온대학교 시민대학원, 환경대학, 리더십혁신과정을 수료했다. 소극적인 성격이었으나 아내와 함께 하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다보니 자신감 있고 활발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다.

지역신문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부탁하여 자치구 행사에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큰 사진기를 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이 계기로 사진작가의 길을 알게 되어 사진을 본격적으로 배우기로 결심했다. 사진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수소문한 끝에 ○○구 문화원에서 개설한 사진수업에 등록했고, 오 년 이상 고급반 수업을 수강하면서 사진을 배우고 있었다. 사진을 배우면서 찍은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바다구 평생학습관에서 포토샵 프로그램 강좌를 수강하기 시작하여 수강을 지속했다. 함께 사진을 배우는 동료 학습자들에게 바다구 평생학습관 포토샵 강좌를 추천하기도 하고, 직접 포토샵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면담 당시 지역신문에 사진을 올리거나 자치구 행사 사진을 찍는 등 바다구에서 사진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2) 김준기

김준기는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면담 당시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처음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였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남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방송대학교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업무교육과 직무교육을 꾸준히 받았으며, 심지어 필수로 받아야 하는 연수 이상으로 교육에 참여하였다. 직장을 다니면서 방송대학교 행정학 학사를 취득했고, 전산학 학사 과정 또한 이수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하였다. 이후 ○○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분과에 입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은퇴를 앞두고 수평이동을 위해 직업상담사, 전직상담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를 위해 사이버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 등록했다. 은퇴를 앞두고 일 년 간 휴식 시간을 주

는 공로연수 기간에 다양한 일일특강에 참여하고 있었다. 보통 바다구청 자원봉사센터의 일일특강을 듣거나, 바다구 평생학습관을 통해 알게 된 평생교육 관련 특강에 참여했다. 일일특강 외에도 생명사랑캠페인, 연탄배달 봉사 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에도 함께 참여했다.

(3) 신건우

신건우는 은퇴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2010년부터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직장을 은퇴한 후에 새로운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 참여한 교육은 바다구청과 가온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웃음전문가 양성과정〉으로 한 달간 진행되는 단기 프로그램이었다. 이후 바다구 평생학습관 인문학센터가 주관하는 인문학 특강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으며, 바다구에서 주관하는 일일특강이라면 주제와 무관하게 반드시 참여하고자 했다. 체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국민생활체육회, 한국산악연수원 등에서 트레킹이나 등산교육에도 참여하였고, 탁구를 배우다가 대한장애인탁구협회에서 심판위원 자격을 취득하여 장애인 탁구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보통 지역 정보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체육 활동과 관련된 교육 정보는 입소문을 통해 얻었다. 평생교육 기관 정규 프로그램으로는 수채화 수업에 일년 반 동안 여섯 학기를 등록했고, 서울미술대상전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명상지도사, 쌍절곤지도사 등 다양한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향후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다.

(4) 박민서

박민서는 과거부터 꾸준히 평생교육에 참여해왔다. 첫째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둘째 자녀가 고등학교를 지방으로 가게 되자 시간이 많아지면서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하여 리본공예, 일본어, 메이크업, 필라테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백화점 문화센터 브로슈어를 보고 관심이 있거나 시간이 맞으면 수시로 등록했다. 백화점 문화

센터에 등록했던 기간 동안 가장 길게 수강한 과목은 일본어로, 중간에 수강을 중단한 기간까지 합쳐 일 년 반 동안 일본어를 배웠다. 둘째 자녀도 대학에 입학하자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2012년에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했다.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하기 전부터 평생교육 참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 중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믿을만한 기관이라고 생각되는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선택했다.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제일 처음 수강한 과목은 철학이며 이후 서양문학과 철학 수업을 반복해서 수강하고 중간 중간 수사학 등 흥미로운 수업도 같이 들었다.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한 후 인문학 분야에 관심이 생겨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에서 하는 특강도 자주 찾아갔다.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한 초반에는 백화점 문화센터와 병행했지만,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생긴 친목집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을 그만 두고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주력으로 수강했다.

(5) 이해민

주거지 근처의 도서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팔 년 이상 평생교육에 참여한 끝에 더 이상 배울만한 게 없다는 생각에 수강을 그만 두었다. 자녀와 함께 도서관에 출입하다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오전에 여유시간이 생겨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독서지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강하다가 점차 자기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강 범위를 넓혀나갔다.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부터 넵킨아트, POP 등 다양한 범위의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도서관에서 개설한 자격증대비반 수업도 여러 번 수강하여 독서지도와 관련된 자격증을 땀다. 도서관 독서치료지도사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사서와 친분이 깊었다. 면담 당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으로 취득한 독서치료지도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독서지도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6) 성예원

주거지 근처 도서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여유시간이 생기자 평생교육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2010년부터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처음 평생교육에 참여할 때는 자녀 교육을 위해 독서지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강했지만 이후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넓킨아트, POP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도서관에서 자격증 수업을 개설하자 전문성을 획득하고 향후 직업 세계에서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자격증 수업에 상당히 자주 참여하여 여러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하지만 면담 당시 자격증 활용에 회의적이었는데, 자격증이 대부분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 권위가 없으며, 1급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직업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지만 후속 단계에 대한 도서관의 안내가 미비하기 때문에 취득한 자격증이 2급 또는 3급 자격증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자녀가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 주거지 근처가 아닌 평생교육 기관에는 등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지 근처 도서관에서만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7) 이동혁

문학을 향한 관심과 열정이 강하며 프랑스 유학 경험이 있다. 2004년 ○○대학교 평생교육원, 2007년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각 한 번씩 철학과 문학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험이 있으나 만족스럽지 않아 그 당시에는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하지 않았다. 이후 글을 쓰거나 인문학 강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학원 강사를 은퇴하고 2013년부터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서양문학과 철학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박사 과정에 진학하려는 생각도 있었으나 앞으로 박사학위가 크게 필요할 것 같지 않고 막내가 아직 고등학생이어서 자녀 교육에 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형식교육은 선택하지 않았다.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제일 처음 철학수업을 수강했으며, 2014년에 철학수업이 폐강되어 서양문학수업을 선택했다. 서양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학식과 수업 수준에 크게 감탄하고, 이후 같은 강의를 반복 수강했다. 철학수업 강사가 권유하여 강사가 참여하고 있는 인문학모임에

월 1회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2011년에는 주거지 근처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플루트를 1년 반, 미술을 1년 정도 배웠고, 2017년 면담 당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플루트 수업을 다시 듣기 시작했지만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와는 달리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료 학습자들과 친분은 전혀 없었다.

(8) 김동원

김동원은 과거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험이 있지만 2014년에 광고를 보고 하늘구 평생학습관을 알게 된 후에는 하늘구 평생학습관에 꾸준히 등록하고 참여했다. 한 번에 다섯 개가 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에도 다양하게 참여했다. 주말에만 근무하면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중심에 두고 시간을 관리할 수 있었다. 하늘구 평생교육관이 제공하는 정규 프로그램 외에는 다양한 출판사에서 주최하는 작가와의 대화 등 강연회에 종종 참석했다. 프로그램 수강 후에 만들어지는 학습동아리에 자주 참여했으며 젊은 남성이 부족하다는 기관의 특성 때문에 동아리에서 간사나 총무 등 역할과 책임을 도맡기도 했다.

(9) 박혜선

박혜선은 어머니 간병을 위해 직장에서 은퇴한 후 자기만의 삶이 상실되는 듯한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 어머니가 데이케어 센터에 가있는 시간 동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처음 하늘구 평생학습관에서 〈시니어 행복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수강한 후 하늘구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년간 하늘구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한두 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정도로 시작했지만 2016년에는 일곱 개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한 번에 수강하기도 했다. 같은 강사가 진행하는 사진 수업을 2년 간 지속적으로 수강하고 있으며, 자치구 평생학습관에서 수업이 개설되지 않는 여름과 겨울에는 강사의 사진 수업을 듣기 위해 ○○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 등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는 거주지로부터 거리

가 멀고, 어머님 간병을 도맡아야 했기 때문에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만들어지는 학습동아리에 여러 개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중 오랫동안 수업을 들어 온 사진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참여했다.

(10) 심지민

심지민은 직장생활과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병간호를 병행하다가 두 분이 돌아가시자 시간이 남게 되고 공허한 마음이 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했다. 첫 학기에는 서양문학, 성리학, 심리학 등 다양한 수업을 들었으며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서양문학 수업을 수강하고 있었다.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하기 전 여성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 경험이 있는데, 여성 문화센터에서 영어와 테셀 등을 배우긴 했으나 수강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 했다. 2015년에 기존에 등록했던 경험이 있는 여성 문화센터가 아닌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택한 이유는 가벼운 취미교양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더 수준이 높고 깊이가 있는 교육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이 시간을 온전히 자기를 위해 쓴다는 것에 매우 큰 기쁨을 느꼈다. 이후 서양문학에서 만난 동료학습자들과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일특강에 나가기도 했으며, 2017년 면담 당시 주1회 ○○센터에서 주관하는 클래식 음악 수업과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양문학수업을 함께 수강하고 있었다.

2. 자료 분석

분석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졌다.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 참여자의 말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키워드를 메모하였고, 면담이 종료된 후에는 면담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과 새롭게 생겨난 의문점들을 기록했다. 녹음한 자료를 전사하고 전사된 녹취록을 읽을 때에 면담 과정에서, 그리고 면담 종료 후 남긴 기록들이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면담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의문이 생기는

경우 의문점들을 따로 메모했고, 면담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연구 주제와 면담 내용의 관련성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떠오른 생각을 메모했다. 이 과정을 통해 추후 면담이나 다른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에 새롭게 추가할 내용을 파악하고 면담 질문지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분석은 작성한 녹취록을 읽으면서 진행했다. 처음 녹취록을 읽을 때에는 연구 참여자의 대답 중 연구자의 질문과 가장 크게 관련이 있는 중 핵심적인 대답을 찾았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연구자의 질문과는 무관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을 확인했다. 그리고 녹취록을 읽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이나 생각은 메모로 남겼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사전에 예상했던 예비적 코딩과 실제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비교할 수 있었다.

이후 녹취록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코딩을 시도했다. 처음 코딩을 시도할 때에는 서로 다른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에서 등장하는 유사한 주제를 중심으로 코딩했다. 예컨대 ‘평생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 등에 관련한 내용은 모든 주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에서 빠짐없이 등장했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묶어 하나의 범주로 설정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응답은 출처를 달아 범주별로 원문 그대로 정리했다. 정리한 면담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범주를 옮기거나, 범주 안에서 하위 범주를 만들어 코드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코드가 여러 번 수정되었다.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코드는 ① 참여 시작 계기, ② 정보 수집 방법, ③ 정규적 출입처 생성, ④ 강사의 팬, ⑤ 일일/단기 특강, ⑥ 친교 그룹 형성, ⑦ 주인의식, ⑧ 농동/수동적 행동, ⑨ 기관의 포섭, ⑩ 친목 활동, ⑪ 결과 활용 기대, ⑫ 네트워킹과 비교, ⑬ 시간 관리 방법, ⑭ 교육은 좋은 것 등 14개였다. 하지만 도출된 코드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 코드에 해당하는 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하위 범주를 나누거나 상위 범주로 묶으면서 논문 내용을 구조화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개인 학습자로서의 조건 및 특성, 학습자 집단으로서의 조건 및 특성으로 크게 범주를 나누어 하위 범주를 구성하고 논문을 구조화 하였다.

구조화 과정에서 연구 계획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코드가 등장하여 연구에 새로운 축이 생기기도 하고, 연구 주제에 따라 자료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연구문제가 수정되기도 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에 큰 축이었던 학습 참여자들이 어떻게 학습 환경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학습자가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지속하는 조건에 관한 질문과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과정에서의 특징에 관한 질문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학습자 본인이 학습에 부여하는 의미와 관련된 질문은 삭제되었다. 이렇게 구조화된 연구 목차는 연구자가 초기에 만들었던 목차와 큰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연구에 질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며(곽영순, 2009), 자료 분석 및 구조화 과정은 “반추해보고, 새로운 연결점을 찾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최종적인 글 쓰기의 모습을 상상하는, 자료와 함께 사고하는 시간”(Glesne, 2006)이라고 할 수 있다.

3. 윤리적 고려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IRB)에서 심사와 승인(IRB No. 1608/003-005)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를 섭외할 때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면담 내용이 녹음되며 녹음 파일은 전사된다는 점, 연구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 참여 결정을 철회하고 녹음 및 전사본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면담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동의서로 남겼다. 연구 참여자 이름과 거주 지역을 비롯하여 기관 이름, 강사 이름 등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IV. ‘평생학습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보이는 평생교육 참여 양상을 다룬다.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참여를 지속하며, 참여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여러 평생교육 참여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조건: 시간적 여유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시간적 여유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계기로 시간적 여유를 들었는데 시간적 여유는 직장을 은퇴하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한 후 육아 부담이 감소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통 중년기 역할전환기에 생기는 시간적 여유가 학습자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한 조건인 것이다.

직장 다닐 때는 오로지 직장에만 충성했지. 아유, 뭐 거기 있어도, 개념 자체가. 거기[평생교육 프로그램] 갈 시간이 어디 있어. 회사 일 이렇고. 눈만 뜨면 회사 가야 되고. 그 당시에는 회사뿐이었지. 회사 갔다, 집에 갔다, 회사 갔다, 집에 갔다. 운동도 내 하고 싶은 거 다 못 했지. (그럼 은퇴를 하신 이후에 여유가 생기시고.) 그렇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신건우)

시간적 여유라는 조건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평생교육 참여를 선택하고 실천했다. 이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학습자들의 평생교육 참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학습 참여를 시작하는 시점에 어떤 조건에 놓여 있었으며 그 조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은퇴 이후: 적응해야 할 변화한 환경

은퇴 후 생긴 시간적 여유는 일부 연구 참여자들에게 새로 적응해야 할 환경이었다. 직장생활에서 은퇴한 연구 참여자들은 할 일이 없는 상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직장생활에서 은퇴한 이후에 “우울하고 속이 상했”⁶⁾으며, “내 삶 자체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듯한 상실감”⁷⁾을 느꼈다. 직업은 노동으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은퇴를 더 이상 생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 자기 삶이 없는 상태로 생각했다.

박혜선은 직장생활과 동시에 몸이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다가 어머니의 병세가 심해져 직장을 그만 두고 간병에 매진해야 했다. 박혜선은 직장생활을 그만 두면서 “삶 자체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듯한 그런 상실감”을 경험했다. 직장을 그만 두면서 시간은 더 많아졌지만 오로지 간병과 가사라는, 자기 자신이 없는 삶에 매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혜선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머니가 데이케어 센터에 가있는 시간 동안 여유 시간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려고 평생학습관에 나오게 되었다.

그게[직장생활과 어머니 간병이] 양립을 했는데 어머니가 아파지시니까 그걸 더 같이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내 삶 자체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듯한 그런 상실감. 그러면서도 뭔가 어머니가 데이케어를 가시게 됐으니까 그럼 나도 이제 내가 나머지 인생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박혜선)

평생교육은 박혜선이 ‘자신만의 삶’으로 여겼던 직장생활을 그만 두면서 어머니 간병이라는 삶에만 매몰되지 않기 위해,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택한 수단이었다. 자신만의 삶이 직장생활에서 평생교육 참여로 옮겨온 것이다.

여유 시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연구 참여자들은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것 자체

6) 최현우 인터뷰 중

7) 박혜선 인터뷰 중

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무언가 배우고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은퇴 후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퇴 이후에 새롭게 자기의 삶을 만들어 냈다. 이동혁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자신과 배우지 않는 자신을 상상으로 비교하면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불행”과 “무지”로 표현했다.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행복과 불행. 또 하나를 더 얘기하면 무지와 지혜. 안 배웠을 때는 영원히. 그렇다고 그게 좋다, 나쁘다는 결론은 아니고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고 지금은 얌으로써 행복하고. 그런 정도로 배울 때하고 안 배울 때의 차이점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놓고 있죠, 욕심이 더 생기니까. 안 배웠을 때라면 그냥 하루 수다나 떨다가 맛있는 것 먹고 시간의 낭비를 무의미하게 생각도 못한 채로 망각한 채로 지낼 수 있지만. 지금은 시간이 낭비되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동혁)

은퇴 상황을 특별히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더라도 연구 참여자들은 생활의 중심이었던 직장을 나가지 않게 된 이후에 직장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은퇴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은퇴한 연구 참여자들이 직장생활에서 새로운 할 일로 이동하는 수단이었다.

김준기는 면담 당시 은퇴를 앞두고 일 년 간 ‘공로연수’라고 하는 휴식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은퇴 후에 자신이 “수평이동”을 해야 한다면, 은퇴 후 다른 ‘일’을 가지는 수단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김준기에게 평생교육 참여는 단순히 은퇴 후 여가를 잘 보내는 수단을 넘어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현대 사회는 점차 “경쟁사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현재의 직업에서 은퇴하여 새로운 사회에 들어갈 때에 필요한 경쟁력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퇴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 년 전에서부터 제가 수평이동을 해서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기초 자격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취득을 해놔야지. (김준기)

김준기는 새로운 환경으로 “수평이동” 하기 위해 여러 자격증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기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평생교육 기관에서 단순히 무엇을 배우며 시간을 보내는 학습자에서 그 기관의 활동가로 변신이 수반됐다. 평생교육 참여는 은퇴를 기점으로 전후 환경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신건우는 은퇴 후 자신이 어디에서 어울리려면 무엇이랄도 알고 즐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백 세 시대”⁸⁾인 현재 은퇴 후에 남은 시간이 여전히 길고, 그 시간 동안 남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이 아닌 환경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새로 찾아야 했고 신건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그 방법을 배우고자 했다.

직장을 그만 두고. 직장을 정년을 하고. 나오니까 할 일이 없잖아. 사회 나와서 적응을 하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신건우)

신건우: 자기 일 가지고 매일 출근하고 하다가 개인적인 생활도 한두 달 정도 되지만 그게 지나면 외출해서 어디 갈 데가 없어. 요새 가보면 어디 탐골공원이나 이런 데에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도 자기가 실력이 있거나 뭐 하나가 있어야 그런 데 가서 어울릴 수가 있다고.

연구자: 탐골공원 같은 데에서도 어울리려면 자기가 뭘 할 줄 알아야 해요?

신건우: 그렇지. 꼭 탐골공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한두 가지를 뭘 좋은 걸

8) 신건우 인터뷰 중

가지고 있어야 그런 데서 상대방에게 애깃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소통을 해서 어울릴 수가 있어.

직장에서 은퇴한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생활을 대체하기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했다. 평생교육은 연구 참여자들이 은퇴 후 직장 대신 참여하는 주요한 활동이었고, 새 직업이나 할 만한 일을 모색하는 통로였다.

2) 육아 마무리 후: 자신을 위한 투자

시간적 여유를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할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성장과 발전에 기대를 보이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육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주로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육아나 가사에 드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제 가족이 아닌 ‘나’를 위해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들은 지대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육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육아에 들었던 시간과 노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자신이 가정에서 했던 일을 ‘가족/자녀를 위한 일’로 생각하고, 그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투자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엄마로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⁹⁾ 상황을 극복했다. 평생교육은 학습자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자기 자신을 성장할 수 있게 도와, “나를 위한 일, 내가 하고 싶은 일”¹⁰⁾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게[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 굉장히 재밌는데. 재밌기도 하지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게, 보통 주부들은, 내가 알기로는 주부들은 이제 육아가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그 때부터 자기의 시간이

9) 성예원 인터뷰 중

10) 이해민 인터뷰 중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깐. 작은애가 대학을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게.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나를 위한 걸 뭘 해야 되겠다고 대부분의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은애가 대학을 들어가면 그 동안에는 내가 나한테는 투자를 못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리라.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동기는 모르겠고 그 때, 그 전까지는 여러 정보는 계속 입수하고 있었어요. 당장은 못 하지만 계속 관심은 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튼 동기는 모르겠지만 그 때 등록을 했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박민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초등학교 과정을 들어가고. 보통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처럼 더불어 시작을 하거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손이 놓아지면 그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오륙 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예원)

박민서는 자녀의 대입이 마무리 되면서, 이해민과 성예원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박민서가 두 자녀 모두 성인이 되어 육아에 쓰던 시간을 완전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된 데에 비해 성예원은 아직 초등학생인 자녀가 학교에 가있는 시간 동안에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아에 “손이 놓아지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성예원의 응답은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여유에 대한 상대적인 판단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조건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방식

1) 정규 출입기관 만들기: “출근부에 도장 찍었죠.”¹¹⁾

평생교육 기관에서의 정규 프로그램 수강은 가장 일반적인 평생교육 참여 방식이다. 연구 참여자 중 다수는 한 분기가 끝났다고 해서 평생교육 참여를 중단하거나 기관을 옮겨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고 연이어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등교하듯 ‘내가 다니는 평생교육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한 평생교육 기관에 2년 이상 등록하고 있었으며, 중간에 기관을 옮긴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는 한 명에 불과했다.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들은 매 학기 등록 회원 중 대부분이 기존 회원이며 신규 회원보다는 기존 회원을 통해 기관을 유지한다고 응답했다.¹²⁾

연구자: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카탈로그나 이런 거로 해도 폐강이 안 되고 학습자 분들이 오시는 거면 그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건가요?

기관 담당자 E: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영유아 같은 경우는 애들이 크어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 안 오시거든요. 애기 때는 오다가 어린이집 오면서 끊기고, 그렇게 계속 신규가 다니시다가 그렇게 되면 끊고 이런 순환이 반복되는데 반면에 성인은 40대부터 다니시면 꾸준히 오시거든요. 노래교실 같은 것도 보통 한 10년 다니시고 이런 분들도 많고.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성인 분들이 충성고객이 많다면 많은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선생님 체감 상 신규 등록보다는 재등록이 훨씬 많다는 거죠?

기관 담당자 D: 당연하죠.

연구자: 그럼 한 클래스를 듣고 그만 두시는 분들보다는 계속 듣는 분들

11) 박혜선 인터뷰 중

12) 기관 담당자들에 따르면 대략적인 재등록률은 적게는 60%(솔마트 d지점, 모아백화점 c지점)에서 많게는 80%(솔마트 a지점)정도이다.

이.

기관 담당자 D: 네, 계속 듣는 분들이 많아요.

한 기관에 반복 등록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다니는 기관에 조건 없이 신뢰를 보냈다. 예컨대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에는 강사진이 훌륭하다거나 강의 질이 좋기 때문에 한 기관에 반복해서 등록한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많았다. 매 학기 개설 프로그램을 바꾸는 기관에 다니는 연구 참여자들도 다음 학기에 어떤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사진과 강의 질이라는 기준으로 기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 학기에 열리는 강의에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기반으로 다음 학기에도 같은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연구자: 새로운 강좌가 열리면 그 강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잖아요. 직전 학기에 열렸던 강의면 다른 분들의 평가도 들어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구[하늘구 평생학습관]는 강사를 잘 선발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김동원: 그렇죠. 그리고 실제 들어보면 그렇고. 그리고 일단 커리[커리큘럼]가 다 나오잖아요. 그 전에 커리가 쪽 나오니까 읽어보면. 그 믿음이 있어요. 커리 이전에 사람에 대한 믿음. 하늘구[하늘구 평생학습관]에서 선택한 사람들은 최고다.

평생교육 기관이 개설하는 정규 프로그램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한 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분기별, 학기별로 평생교육 기관의 고정된 프로그램 시간표에 따라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었다.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을 평생교육 기관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한 번에 두 개 이상 수강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매우 많았다.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들도 평생교육 기관에서 이러한 학습자들을 기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희 센터에도 일주일 내내 오시고, 열 개 이상 들으시고 한 번 결제하실 때 결제 금액만 백만 원 넘는 분도 있고, 그러세요. (기관 담당자 G)

그렇죠. 서너 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업이 있다 보니까 두 개, 세 개, 많으면 네 개까지 듣는 분들도 있으시고. (기관 담당자 F)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은 학습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프로그램을 많이 수강할수록 프로그램 수강 시간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시간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다. 박혜선은 하늘구 평생학습관에 적(籍)을 두고 활동하는 학습자로, 하늘구 평생학습관을 알게 된 이후로 평생학습관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간표를 짰 후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였다. 처음 평생학습관을 알게 됐을 때는 한두 개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매 분기 한 번에 일고여덟 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수강했고, 일주일 스케줄은 평생학습관 활동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하루에 강의를 두세 개씩 수강하기 때문에 오전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은 후 오후에 열리는 강의를 수강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박혜선은 평일에는 평생학습관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규칙적으로 시간을 보냈다. 박혜선은 이런 생활을 월급은 받지 않지만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 생활이라고 표현했다.

연구자: 이걸 일곱 개 정도 들으시면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박혜선: 그렇죠. 출근부에 도장 찍었죠. 그런데 월급은 안 줘.

연구자: 하늘구 평생학습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세요?

박혜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세 강을 했었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고 강의가 지루해서 안 했거든요. 그럼 아침 열 시에 와서 그거는 여섯 시까지 있었지. 월요일은 그랬고. 화요일은 심리학 수업 해갖고 그거는 오전 수업 끝나고 요새는 점심 먹고 ○○대 프로그램이 두 시부터 시작이니까 어제는 네 시까지 있었고. 오늘은 원래 약초 수업 하면 (더 늦게 끝난다). 오늘은 오전엔 □□대에서 했어요,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그래서 거기서

그거 끝나고 센터장님하고 오는 길이거든, 점심 먹고. 그리고 여기서 약
초 수업은 한 다섯 시까지 했나? 그렇게 해서 아침에 와서. 대개 보면
아침에 와서 저녁때까지 있었나 보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다는 표현은 박혜선이 자치구 평생학습관에 다니는 방식을
정확하게 드러낸다. 직장인들이 직장에 출근을 하듯 박혜선은 평생학습관에 “출근”을
했다. 박혜선에게 평생학습관은 직장과 같이 매일 가는 곳이며, 프로그램 수장이라는
특정한 일을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이다. 직장에서 출근부와 퇴근부에 도장을 찍으
며 근태를 관리하는 것처럼 박혜선은 평생학습관에 다니면서 자신의 시간을 규칙적으
로 사용하고 학습 활동을 성실하게 관리했다. 평생교육 기관 시간표를 중심으로 시간
을 관리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기관이 수업을 개설하지 않는 기간이 생겨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난감해 하며 고민하기도 했다.

그래서 (다른 평생교육 기관에) 가고 싶지 않은데 여기 12월 강의가 없
어서 고민 중이에요. (어딜 가셔야 되는지?) 응.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
나. 12월, 1월, 2월 가장 춥고 암울한 시기에 어떻게, 나는 뭘 배워야 되
나. (박혜선)

강의가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열두 번에 끝나는 것도 있고 열여섯
번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
게 겨울 동안은 왜 안 하지? 11월이나 12월 초는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내년까지는 쉬어요. 그리고 7월 달에 끝나면 8월 달에 한 달 쉬잖아요.
3, 4, 5, 6(월) 하고 7, 8(월)은 쉬어요. 방학이죠. (김동원)

정규 출입기관을 만드는 연구 참여자들은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기관을 정규 출입처
로 만들지 않았다. 한 기관에 지속적으로 등록하면서 소속감을 느끼는 기관이 생긴 이
후에는 다른 기관에서 개설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 같은 방식으로
소속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는 학생이 한 번에 두 학교의 학생일 수 없고, 직장인이 한

번에 두 직장에 다닐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이해민과 성예원은 오랫동안 지역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근처 주민센터 문화교실이나 평생학습관에는 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해민은 팔 년 간 도서관에 다니면서 “이미 다 배웠다”는 생각이 들자 아예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강의를 듣기 위해 다른 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성예원은 아무래도 학습자들은 “익숙한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며 아무리 다른 기관들이 근거리에 있다고 해도 자기가 익숙한 기관에 다니게 된다고 했다. 이해민과 성예원이 도서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가지 않는 것처럼 주민센터 문화교실이나 지역 평생학습관에 오랫동안 등록한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프로그램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도 익숙한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쪽[주민센터 문화교실]에 엄마들은 이 쪽[도서관]에 잘 오지 않아요. (성예원)

한 기관을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학습은 기관이 운영되는 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인 예로 강의를 연속성 없이 매 분기 바뀌는 기관에 다니는 연구 참여자들은 한 분야에 흥미가 있더라도 해당 분야를 지속해서 배우지 못하고 기관 방침에 따라 매 학기 수강하는 과목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심화과정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들은 기관이 심화과정을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하고자 했다. 기관에 심화과정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화과정이 개설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지 않았다. 평생교육 기관의 정규 학습자가 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그’ 기관에 다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내용이 더 이상 학습 참여 여부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다.

상반기에 했던 거는 하반기에 보통 없죠. (계속 새로운 걸 배우시게 되겠네요.) 그런데 심화과정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런 걸 듣고 싶어요. 그런

측면이 이제 그런 게 있겠죠. 하늘구청에서는 보다 더 많은 강좌를 선보이고 싶고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겠죠. 많은 강사들한테. (김동원)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정보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활용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다른 기관으로 학습 장소를 옮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 이미 익숙하고 소속감이 느껴지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다니고 있는 기관을 통해 분기별, 학기별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일일/단기강좌나 다른 기관과 협약 하에 운영되는 단기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받고 여러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연구자: 하늘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정규강좌 말고 하늘구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되게 많은데 거기도 많이 참여하세요?

김동원: 네. 틈틈이 참여하죠. 여기 부모교육 강의라거나 하늘구청에서 하는 이런 강의들 많이 들으러 다니죠. 시간이 비면.

연구자: 그런 정보는 어떻게 아세요?

김동원: 계속 여기서 알려주는 거.

더욱이 한 기관에 장기간 등록한 연구 참여자들은 기관 담당자들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들로부터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직접 권유받기도 했다. 기관 담당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설될 때 수강생이 충분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데 기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들과, 자치구 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통장, 반장 등으로 활동하는 지역 활동가들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고 홍보했다. 이들은 시간만 있다면 평생교육 기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기관 또는 자치구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연구자: 선생님은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뭐 보고 신청하셨어요?

박혜선: 나는 이 센터장님이 정보를 줬고 여기에 팸플릿이 있으니까.

연구자: 팸플릿도 보시고 센터장님이 정보도 주시고. 센터장님이 이런 저런 강의가 있다는 걸 자주 말씀해주세요?

박혜선: 여기 와서 자주 만나니까. 매일 오니까. 여기 와서 매일 사니까 얼굴을 보잖아.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모으려고 애썼어요, 센터장이.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와서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각 동아리 회장단들한테도 홍보했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네. 며칠 만에 사람들이 삼사십 명씩 한 강좌 당 팍팍 들어왔으니까. 너무 센터장님도 놀랐다니까.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의 평생교육 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면서 자신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요한 공간과 활동영역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관 담당자로부터 기관의 주요 인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하나의 평생교육 기관을 자신이 참여하고 개입하는 주요한 생활 영역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2) 강사의 팬: “그 분들한테 마니아가 되는 거죠.”¹³⁾

한 강사의 수업을 반복적으로 수강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한 기관을 정규 출입처로 삼는 학습자들과 비슷하지만 등록할 때마다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고 한 강사의 수업을 반복적으로 수강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기관이 아닌 강사와 특정 수업에 소속감을 느끼며, 강사에게 애정을 느끼고 깊은 신뢰를 보였다. 학습자들이 특정 강사와 수업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강사가 다른 기관으로 옮겨갈 때 함께 기관을 옮긴다는 점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들은 강사와 함께 기관을 옮기는 학습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자신이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강사의 수업을 반복 수강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 강사를

13) 이동혁 인터뷰 중

따라서 기관을 옮기는 학습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연구자: 아까 ○○일보에서 □□마트로 매장[문화센터]을 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강사 층을 활용을 하면서 그런 강사와 함께 붙어있는 학습자들이 좀 이렇게 가셨다고.

기관 담당자 B: 네, 많았죠. 많았고요. ○○일보라는 네임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었다). ○○일보에 계시는 사진작가,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사진작가로 활동하시는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 따라서 다녔었어요.

연구자: 학습자 분들이?

기관 담당자 B: 네. 그리고 스포츠댄스도 어느 선생님이 각종, 그런 뭉클바 있고, 차차차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따라다니고.

워낙 선생님에 대한 충성고객들도 많고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런 수업에 대한 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게 노래교실이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노래교실 오픈했을 때 선생님이 한 이십 분 정도는 선생님 따라서 오셨다고 하는 분들 있었던 것 같아요. (기관 담당자 F)

기관 담당자 B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폐강과 유지는 프로그램 자체의 질보다는 학습자가 강사의 팬이 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평생 교육 기관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인원’을 정해둔다. 미리 정해둔 최소인원이 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개강하지 않는다. 한 기관에서 오랜 기간 개설되는 프로그램은 최소인원에 웃도는 고정적인 수강생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고정된 학습자들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동력이 된다. 이는 아동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성인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아동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성장 및 발달 단계에 따라 수강 연령을 제한하기 때문에 아동 학습자들은 특정 강사나 프로그램의 고정적인 학습자가 될 수 없다. 아동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동일한 학습자의 반복 등록보다 트렌드에 훨씬 큰 영향을 받으며 프로그램의

개·폐강과 유지 여부도 늘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성인 학습자는 성장과 발달 단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 강사의 프로그램에 고정적인 수강생이 생겨나는 경우가 잦으며, 소위 ‘장수’ 프로그램의 일등 공신은 이렇게 강사의 팬이 된 학습자들이다.

연구자: 그럼 그런 분들은 ○○신문사에 있는 문화센터에 등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그 선생님한테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었던 거예요?

기관 담당자 B: 그렇죠.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인과 나머지 미취학 아동과 엄마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을 따라다녀요, 성인들은 기획자들이 착각하는 게 좋은 프로그램과 어디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 가지고 와서 하면 잘 되고 그런 거는 일시적이에요. 같은 프로그램도 잘 하는 강사가 있기 때문에 강사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다녀요. (중략) 그럼 그 선생님이 와서 학습자 관리나 이런 걸 잘 하면 계속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성인만큼 오래 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아이도 커가니까. 그렇지만 성인은 선생님한테 꽂히면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건 확실해요. 선생님이 중요하죠.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들에 따르면 강사의 팬이 되는 학습자들은 특히 노래교실이나 댄스교실, 사진교실, 운동 등 취미교양 프로그램에 많다. 노래, 댄스, 사진, 운동 등 취미교양 분야의 기술들은 몸으로 익혀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기도 하며, 신나게 몸을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쉽다. 또한 취미교양 프로그램들은 한 학기 동안 다루는 곡이나 댄스 종류 등 강좌 콘텐츠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취미교양 프로그램을 반복수강하는 학습자들은 수업에서 다루는 콘텐츠가 변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좋게 평가했던 기본적인 수업의 틀과 강사의 수업 스타일로 강좌가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중 박혜선과 최현우는 각자가 다니는 평생교육 기관에서

같은 강사의 사진 강좌를 여러 학기 반복해서 수강했는데, 사진 강좌의 매 학기 주제는 인물, 마을 등으로 바뀌지만 큰 틀에서는 강사가 비슷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한 강사의 수업을 반복해서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반복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해민은 같은 강사의 수업을 세 번 반복 수강했지만 같은 수업을 다시 한 번 신청할 때는 “맨날 들었던 사람이 오면 책도 바꾸어야 되고, 프로그램 스타일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강사님한테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박민서, 이동혁, 심지민은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서양문학 수업과 철학 수업을 각각 네 학기 째 수강 중이었는데, 이들은 수업에서 다루는 텍스트와 주제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한 강사의 수업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서양문학 수업 강사인 S 교수는 강좌가 직전 학기와 연결되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첫 학기에 전반적인 문학사를 다루었다면, 그 다음 학기에는 모더니즘 문학을, 그 다음에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을 다루는 방식이었다. 철학 수업을 하는 Y 강사는 매 학기 사랑, 운명 등 주제를 바꾸면서 주제에 맞는 철학서를 다루는 방식으로 매 학기 강의안을 바꾸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생님[함께 수업을 듣는 동료 학습자]이랑 서양문학 같이 듣는데 계속 쪽 듣는 거는 일단 커리큘럼 자체가 쪽 연결이 돼요. 교수님이 끊지를 않아. 예를 들면 한 번 짝 돌리면 똑같은 걸 또 돌리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거지. (앞에 있는 거랑 계속 연결이 되면서?)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나는 1학기부터 들었으니까 나는 전혀 지장 없이 들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번 학기 처음 등록한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앞에 거를 못 배우고 중간에 들어와서 듣는 그런 식인 거지. 그런데 서양문학은 그런 이유도 (참여를 지속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 워낙 강의가 좋기도 하지만. 강의가 좋아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박민서)

한 프로그램을 반복 수강하는 학습자들이 많은 경우 강사는 수업 스타일은 유지하면서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변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기존 학습자들을 위해 강의 수준

을 높이면 신규 학습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수업 수준을 높이는 길은 택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장기간 수강하고 있는 수업의 교수자는 기존 학습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다루는 주제나 작품, 시대를 달리하는 등 수업 콘텐츠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일부 교수자는 다음 강좌에서 다룰 주제를 기존 회원들과 함께 정하기도 했다. 기관 담당자가 학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연구자: 그럼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그 꾸준히 계속 오시는 분들은 이미 배우셨는데도 계속 배우시는 건가요?

기관 담당자 B: 그래서 교수님이 학습자한테 물어봐요. 다음 학기에는 어떤 거 배울까요, 우리? 어떤 거 궁금하세요?

연구자: 그런 식으로 강의안을 학생들이랑 같이 업데이트를 하시는구나.

기관 담당자 B: 네. 저도 묻고요. 학습자들한테. 궁금하거나 혹시 뭐 원하는 학문이 있느냐. 그럼 요구하시는 대로 교수님 혹시 가능하시냐, 여쭙보고, 그런 식으로 바꾸고.

이런 식의 강좌 개발은 콘텐츠를 변화시키면서 강좌 수준을 “레벨 업이 아니고 같은 수준에서 계속 순환”¹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기존 수강생과 신규 수강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수강생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좌에서는 종종 이전 강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레퍼런스로 가져오기 때문에 신규 수강생들이 강좌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박민서는 자신이 듣고 있는 서양문학 수업에 대해 “앞에 거가 잘 안 되면 힘들어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내용이 깊어지면서 레벨 업”이 되기 때문에 신규 수강생들이 수업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꼭 앞에 있는 걸 모르면 뒤에 있는 게 이해가 안 가게끔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했던 사람이 들으면 내용이 쌓이고 힘이 돼”¹⁵⁾는 수업들은 신규 수강생들이 강의에 진입하기 어렵도록 방해한다.

14) 기관 담당자 B 인터뷰 중

15) 이동혁 인터뷰 중

강사의 팬이 있어서 장기간 지속된 강의는 강사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강하기 어렵다. 수강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바꾸는 아동 학습자들은 폐강이나 강사 교체에 영향을 덜 받는다. 강사가 기관을 떠난다고 해도 어차피 프로그램을 바꿀 예정이었기 때문에 폐강이나 강사 교체가 학습자를 기관을 떠나가게 할 만한 유인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성인 학습자는 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강좌가 폐강되거나 강사가 교체되는 경우 평생교육 기관 자체를 떠나거나 기관에 항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측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쉽사리 폐강을 결정하거나 강사를 교체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성인강좌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저희가 손을 못 대요. 손대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냥 거기에서 좀 더 가고. 예를 들면 중국어를 저희가 되게 오래 돼서 두 반이, 중급이랑 초급이 있었다, 이러면 그거를 보통은 한 반을 더 늘릴까요? 입문 반을 만들까요? 이런 관리를 한다면, 영·유아 프로그램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업체에다가 죄송하지만 이거 저희 이번까지만 할게요, 그러고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하는 거죠. (중략) 성인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여덟 명에서 네 명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도 제가 그거를 폐강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적어도 폐강을 안 하나 보네요, 성인강좌는.) 네.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성인강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한 경우에는 회원 수가 한 명인 채로 계속 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뭐가 그래요?) 베이비 돌? 그런 인형 만드는 수업인데, 그거는 이제 한 명인 채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게마트 입장에서도 이득은 아니지만 그냥 저희는 계속 가는 거예요. (기관 담당자 D)

반복해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 수업을 듣는 동료 수강생들과 강사와 함께 하나의 학습자 집단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집단이 형성된 경우,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해당 프로그램의 개·폐강이나 강사 교체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강사의 팬이 된 학습자들이 단체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관 측에서는 훨씬 더 큰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3) 일일/단기강좌 애호가: “있으면 거의 다 참석합니다.”¹⁶⁾

특강 형식의 일일/단기강좌 또한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택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일/단기강좌에 반복적으로 참여했다. 일일/단기강좌는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짧게는 한 회, 길게는 두 달 간 특별 강좌나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특정 집단을 이루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일일/단기강좌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일일/단기강좌에 매번 새로운 학습자들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고정적인 학습자 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특정 기관의 정규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동시에 일일/단기강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일일/단기강좌에 자주 참여하지만 정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기관에 더 큰 소속감을 느끼고 그것을 더 중요한 평생교육 참여 활동으로 생각했다. 박민서는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매학기 철학, 문학 등 인문학 강의를 수강하면서 인문학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정규 프로그램 수업이 없는 날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제공하는 일일 특강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여하였다. 박민서는 일일/단기강좌 정보를 수집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지속적으로 참여하지만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하는 인문학 강의를 가장 중심이 되는 학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그를 중심으로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일/단기강좌에) 시간이 맞으면 가고. 일단은 내가 듣고 싶은 주제, 그리고 시간이 맞으면 가는데. 우선 이 평생교육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안 되면 가려고 하고. (박민서)

16) 김준기 인터뷰 중

반면 정규 프로그램의 보조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일일/단기강좌 참여를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두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문화센터는 정규 프로그램을 정식 개설하기 전 홍보 차원에서 일일특강을 제공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해 명사특강을 열곤 하는데, 일일특강이나 명사특강만을 찾아다니는, 접수 시기가 되면 “모든 점 전단을 모아다가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¹⁷⁾ 학습자들이 있다고 한다. 특강은 강좌 수강비가 한 회당 천 원에서 오천 원 사이로 책정되어 정규 프로그램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적게 들 뿐 아니라 몇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는 점에서도 매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정규 프로그램에 비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공공 영역에서 제공하는 일일/단기강좌에도 비슷한 학습자들이 있었다. 바다구 평생학습관은 인문학 특강을 열 때마다 참여자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매번 빠짐없이 특강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열 명 가량 존재한다.¹⁸⁾ 신건우는 바다구 인문학 특강의 단골손님인데 바다구 평생학습관에서 서양화를 그리는 정규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험도 있었지만 그를 제외하면 여러 기관에서 열리는 일일/단기강좌에 주로 참여했다. 바다구 평생학습관 인문학 센터에서 주관하는 인문학 특강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다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리는 일일특강에도 자주 참여했다. 바다구와 바다구 내 대학교가 공동주관하여 한두 달 동안 진행하는 단기 특강에도 여러 번 참여한 이력이 있다. 신건우는 주거지인 바다구를 근거지로, 인근에서 열리는 일일/단기강좌 참여를 주요 참여 방식으로 삼았다.

일일/단기강좌에 주로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참여를 결정할 때 강의 주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 주제에 흥미를 보이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호기심이라든지 관심이 많”¹⁹⁾아서 “우선적으로 여기에 시간을 맞”²⁰⁾추는 방식으로 일일/단기강좌에 참여했다. 다른 주제보다 더 관심이 있는 영역이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상 새롭기만 하면 모든 주제는 이들의 관심사가 될 수 있었다. 이들은 참여를 결정할 때 다른 일정과 중복이 되는지 여부를 가장 주요하

17) 기관 담당자 G 인터뷰 중

18) 기관 담당자 A 인터뷰 중

19) 김준기 인터뷰 중

20) 신건우 인터뷰 중

게, 그리고 유일하게 고려했다.

연구자: 선생님 그럼 이런 거에 참여하실 때 선택의 기준이 있으세요?

신건우: 기준은 뭐 없고 하여간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기준이 뭐 있어.

연구자: 그런 일회차 수업 같은 거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얼마나 자주 참여하시는 것 같으세요?

김준기: 있으면 거의 다 참석합니다. 중복만 되지 않으면. 일정이 짜여 있는 상태에서 중복이 될 경우에는 뭘 어떻게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데 중복이 안 되고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거 아니면.

주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많은 교육에 참여하는 이상,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교육 내용보다는 강좌 개설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주제와는 크게 상관없이 알게 되는 거의 모든 일일/단기강좌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일/단기강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세세한 교육 내용 정보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들이 주로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은 일일/단기강좌를 제공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서 발송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나 정보지와 같이 익명의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입소문, 기관 담당자의 권유 등 비공식적인 채널이다.

강좌에 많이 참여할수록 강좌 홍보에 더 많이 노출된다. 한 번 기관이나 단체에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기관이 지속적으로 특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체 간 네트워킹으로 타 기관의 교육특강을 홍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박민서는 일일/단기강좌에 관련된 정보를 찾는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에 쓰이는 정보는 정보들끼리 “선순환”한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계속 선순환이라고 해야 하나? 예를 들면 이런 데[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 오니까 강좌에 더 많이 노출되는 거죠. 여기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지난 학기에 러시아문

학회에서 하는 강좌를 들었는데 그거는 여기 리플렛이 있었어요. 여기 갖다놔더라고요. 그걸 보고 신청을 한 거죠. 그렇게 선순환 되는 거 같아요. (하나를 배우면 다른 데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가고.) 관심도 갈뿐더러 더 접할 기회가 많아요. 이런 강좌가 있다는 걸 접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내 스스로도 찾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다른 걸 소개해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아는 것도 있고. (박민서)

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 연결되어 있고, 일단 정보에 노출되면 다른 정보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정보를 그다지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강좌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개설 정보에 노출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정보에 노출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여러 강좌와 주관 기관을 접하면서 정보에 노출될 기회를 늘려가고 나아가 간단한 방법이나 정보를 스스로 찾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김준기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프로그램을 주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온라인 소모임이나 메신저 소그룹에 가입하여 그곳의 교육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했다.

사람이랑 인적 네트워크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이렇게 보면 그 분들이 많이 초청도 해주시고 연락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중략) 검색보다는 제일 먼저 카톡이나 네이버 그룹 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사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그룹. ○○살롱[민간 평생교육 관련 단체]은 또 ○○살롱대로 어떤 그룹이 있잖아요. 직업상담사는 직업상담사의 그룹이나 학원이나 그렇게 연결된 그룹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는 학교[김준기가 사회복지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를 통해서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서울시 사회복지 이사, 추천이사로 있다 보니까 구청 별로, 네 개 구청의 이사로 있어요. 사회복지 법인에. 그럼 그런 기관들. □□구, △△구청 이런 데. 그런 데에 다양하게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 같은 데를 보면 산악회도 있고 뭐 그런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데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동창회들. 그럼 다양한 분야에 전문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보고. 정말 필요한 것. 앞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모임이라든가. 자치단체나 그런 행사들도 하늘구청에서도 자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자원봉사 센터나 그런 데에서. (김준기)

일일/단기강좌에 주로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의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등록하여 거점을 만드는 연구 참여자들과는 달리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들이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또한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연구 참여자들은 정규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고 단기/일일 강좌만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담당자가 주요 학습자로 인식할 만큼 해당 기관을 거점으로 삼게 됐다.

4) 자격증 취득

자격증을 따고자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자격증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수단이다. 어떤 자격증은 특정 직업을 가지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전직하거나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평생교육에 참여했다.

김준기는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직업상담사, 전직지원상담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소방관리자, 육상공인심판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준기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사이버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도 열심히 했다.

신건우도 은퇴 후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했다.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적성을 살려서 운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신건우는 대한장애인탁구협

회에서 심판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협회에서 쌍절곤지도사자격증도 취득하였다. 장애인 탁구심판을 보기 위해 수화를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계기는 나는 해병대 장교 출신이에요. 장교출신이라서 월남도 갔다와보고. 모든 운동을 다 해봤지. 그걸 기본적으로 하고. 저는 또 테니스도 오래 했어. 운동을 다 좋아하지. 테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테니스는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 무리가 많이 가니까 거기에 반해서 운동을 찾다 보니까 탁구를 찾았는데, 탁구도 어디 코치한테 배운 게 아니고 동네에서 하는 체육회가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자치회에서 하는 게 있어. (그건 가르쳐주기도 하나요?) 그건 코치가 와서 가르쳐주는데 회비를 좀 내긴 하는데 많이 내지는 않아.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탁구를 치는 것만 해도 별 이권 없겠다 [탁구를 치기만 하면 좋을 것은 없겠다]. 이왕 친 거니까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해서 시험을 본 거지. (신건우)

이해민과 성예원도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다. 다니던 도서관에서 다양한 자격증대비반을 개설했기 때문이다. 자격증대비반 수업은 다른 수업에 비해서 훨씬 전문적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기도 했지만, 전문성을 길러 훗날 직업으로 연계하길 희망하는 마음도 있었다. 이해민은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근 센터 등에서 직업교사로 일하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예원은 자격증이 일 자리까지 연계되는 경우는 드물며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평생교육에 참여하여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김준기, 신건우와 이해민, 성예원의 교육 참여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가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교육에 참여하는 데에 비해 후자는 다니고 있던 기관에서 자격증대비반을 개설하여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민, 성예원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같은 기관에 반복해서 등록했지만 김준기와 신건우는 한 기관에서 반복해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정 자격증에 관련된 교육을 받기 위해 기관에 등록하였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다른 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정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설정하고 평생교육 기관에 등록하는 학습자들은 한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는 Houle(1961)이 말한 목표지향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아주 유사하다.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 자격증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평생교육 참여 자체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들은 다시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다른 교육에 참여했다. 미래에 자격증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 자체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속 조건

일일/단기강좌에 주로 참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기관에 등록한 연구 참여자들은 한 기관 또는 한 프로그램에서 학습을 지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평생교육 기관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처음부터 한 기관에서 학습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 열 명 중 김준기와 신건우를 제외한 여덟 명은 면담 당시 특정 평생교육 기관에 2년 이상 등록하면서 교육 참여를 지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여덟 명이 모두 처음 등록한 기관에서 교육 참여를 지속하고 있지는 않았다. 최현우, 이해민, 성예원, 박혜선 네 명은 처음 등록한 평생교육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박민서, 이동혁, 김동원, 심지민 네 명은 당시 지속적으로 등록하고 있던 기관에 다니기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다. 이에 평생교육 참여자들이 한 평생교육 기관에서 등록을 지속하는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과 요인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1) 기관까지의 접근성

평생교육 기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거주지로부터 평생교육 기관까지의 접근성이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거주지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평생교육 기관을 선택했다. 기관이 주거지와 가까울수록 출석에 마음의 부담이 적다. 기관이 거주지와 가까우면 기관까지 가는 데에 별다른 수고가 들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자주 출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기관이 거주지 근처에 있는 경우 더 꾸준히 기관에 등록했다.

연구자: 도서관이 (다른 기관보다) 더 매력이 있나 봐요.

이해민: 아니에요. (다른 기관은) 멀어서 안 가는 거예요.

성예원: 여기가 ○○시 끝이잖아요. 평생교육원이 또 끝이잖아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리가. (도서관에 가는 이유로) 접근성이 크죠.

연구자: 여기에서 그럼 좀 괜찮다고 하는 기관은 도서관 정도?

이해민: 네. 그렇죠. 문화원에서도 해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데 거기는 거의 안 가게 돼요. 멀어서. 엄마들은 원래 좀 그래요. 멀면 귀찮아서 안 가는 게 있어요.

김동원은 하늘구 평생학습관에 다니기 전에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거리가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등록하기보다는 자신이 흥미가 있는 강의를 골라서 수강하는 정도로 교육에 참여했다. 거주지 근처에 하늘구 평생학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하늘구 평생학습관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거주지와 평생교육 기관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더라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에는 매번 등록할 정도로 출석하기에는 부담이 크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관은 접근하는 데에 부담이 적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 더 자주 등록할 수 있다. 박혜선 또한 하늘구 평생학습관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는 여름과 겨울에 거주지와 먼 곳에 있는 평생교육 기관에 등록하여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데, 오가는 거리가 너무 멀고 시간이 많이 들어 재등록을 망

설였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기관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같은 거리라고 해도 사람마다 느끼는 접근성이 다르다. 박민서, 심지민, 이동혁은 거주지와 상당히 먼 평생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었지만 절대적인 거리가 기관에 참여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거주 지역이) 두 명은 이 근처고, 한 사람은 ○○시고 나는 □□동이고.
(□□동 꽤 멀지 않아요?) 멀죠. 엄청까지는 아닌데 꽤 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같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은 △△동이고. (다들 멀리 사시는 구나.) 그런데 수사학[수사학 수업을 함께 듣는 동료학습자들]은 더 끝내주는 게, 나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게, 강화도, 부천, 또 뭐 어디더라? (사는 곳이) 전부 지방인 거예요. (박민서)

실제로 거주지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기관에 다니면서도 거리에 따른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 비해서 시간적 여유가 더 많다는 점과 이들이 자가용으로 기관에 출석한다는 점에 있다. 박혜선, 이해민, 성예원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지속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어머니 간병이나 육아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 외에는 시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반면 박민서, 심지민, 이동혁은 특정 요일을 아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로 생각하고 있었고, 하루를 온전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에만 썼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비해 시간 제약이 훨씬 적었다. 시간이 많은 학습자들은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에 비해 절대적 거리가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작다.

또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연구 참여자들과 그렇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은 거리에 대해 다르게 느꼈다. 같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하면 훨씬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편하게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기관에도 부담을 덜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었다.

아닌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일단 경제적으로 (사정이) 되는 사람들이예요, 첫째. 우리 같은 모임은. 다른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도 내가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게 좀 되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다 차를 좋은 거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나는 부러 차를 안 갖고 다니고. 나는 차에 관심이 없어요. 그 시간에 전철 타고 책 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책 보고 다니지. (이동혁)

이처럼 접근성은 연구 참여자들이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평생교육 기관에 나가고 참여하는 데에 부담을 적게 느끼기 때문에 참여를 지속하기가 쉽고, 절대적인 거리가 먼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 경우에도 학습 참여가 지속되었다.

2) 학습자의 요구 만족 여부

거리가 가깝지 않은 경우에도 요구를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찾게 되면 참여를 지속하는 데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동혁은 2004년과 2007년에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과 비슷한 유형의 기관에서 비슷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수강했지만 그 당시에는 교육 참여를 지속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에게 맞지 않고 수업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낭비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다니고 Y 강사와 S 강사의 수업을 수강한 후에 수업이 자기 수준에 맞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그래서 내가 △△대 거도 한 번 봤고, □□대 것도 한 번 봤고. 그래서 가서 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도 사실 사는 곳에서 거기까지 고속버스[광역버스]가 있어서 거기가 갔다 오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몇 개 해봤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요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한 이 년 쉬었어요. (이동혁)

연구자: 내가 어디서 뭘 배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관을 선택할 때는 좀 열심히 찾아보세요? 어떤 걸 고려하세요?

이동혁: 교수랑 그 교수가 연구한 거를 봐요. S 교수도 그 때 은퇴할 때 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온대학교[가온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 그러니까 가온대학교 홈페이지에 <황무지>[<황무지>를 주제로 한 글]를 써놨더라고. 그걸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조금 써놨는데 읽어보면서 좀 들어볼 만하겠다, 해서 들어왔는데 수업을 들었더니 완전히 날 바꾸어놓은 계기가 된 강의였어요. 지금도 너무 좋으니까, 그 강의 하나하나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고 갔다가도 만약에, 좀 거만할 수도 있지만, 나한테 안 맞고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시간낭비가 많이 된다고 하면 (수강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그런 적이 있고, △△대에서도. 그 친구[프로그램 강사]도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네. 그 문학과 철학의 조화인데 수업스타일은 독특했는데 그 사람의 수업도 독특하고 했지만 내가 모르는 것도 다루지만 전반적으로는 내가 많이 아는 쪽을 다루니까 오래는 못 갔어요.

심지민도 이와 비슷했다. 심지민은 현재 다니고 있는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지속적으로 나오기 전에 여성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험이 있지만 평생교육에 다시 참여하고자 했을 때 그곳에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심지민은 ‘수준과 깊이’라는 새로운 요구가 생겼다.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대학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수준과 깊이를 향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만한 기관이라고 생각했고, 심지민은 과거에 다녔던 여성 문화센터 대신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하는 것을 선택했다.

(여성 문화센터에서 배웠던 것은) 간단하게 배우는 거, 드로잉 같은 거. 저도 데생도 배우고 그랬었어요. 그런 걸 틈틈이는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나한테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었죠.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나를 위해서. 그래서 짧게는 했어요. 그래서 책도 읽어보고 간단하게 가

서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조각조각 시간을 다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는 뭔가 좀 평생교육원[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선택했을 때는 문화센터보다 조금 더, 문화센터의 가벼움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중략) 그래서 평생교육원[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들어오게 된 거죠. (심지민)

연구 참여자들이 한 기관에서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자신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지가 중요했다. 평생교육 기관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수준이나 강사의 수업 방식에 따라 학습자의 만족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관이 가진 이름값 또한 요구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박민서가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다루는지 여부와 동시에 “어느 정도 검증된 기관”을 기준으로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선택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²¹⁾ 연구 참여자들이 사전에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지 이들의 교육 참여 지속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주변에 주거지가 없는 광역상권에 위치한 평생교육 기관에서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하는 학습자들 또한 이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도심에 위치한 백화점 문화센터는 주변에 뚜렷하게 주거 지역이 없고 광범위한 영역을 상권으로 잡는다고 하여 광역상권에 속한다. 광역상권에 있는 백화점 문화센터에도 지속적으로 등록하는 학습자가 많은데, 이 학습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다른 곳이 아닌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와 멀더라도 광역상권의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한다. 주거지 근처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대형마트 문화센터는 성인보다는 아동 중심 프로그램이 많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는 문화센터 수강과 더불어 쇼핑 등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 문화센터를 찾는 것이다.

연구자: 오전 오후에 오시는 분들도 꽤 멀리 사시는 분들이겠어요.

기관 담당자 G: 네. 다행히 여기가 지하철 연결이 쉽고 하니까. 아무래도

21) 박민서 인터뷰 중

멀리서 많이 오세요. 주소지로 해서 많이 온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고. 그래도 뭐 ○○동, 중부 쪽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비율이 높기는 하죠. 공통분모를 찾자면.

연구자: 주거지 근처에 분명히 문화센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곳으로 오시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관 담당자 G: 없는 강좌들이 분명 있기는 하니까요. 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문화센터라고 해도 백화점 문화센터랑 할인점 문화센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집 주변에서 제일 찾기 쉬운 건 할인점 문화센터가 그 수로는 압도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쪽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 비해서 영아나 유아,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고. 성인 강좌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인문학 강좌를 듣고 싶다, 이럴 때는 저희한테 오실 이유가 분명히 생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문학 선생님들을 섭외를 하거나 할 때 좀 더 차별화를 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거나 하는 거고요.

이처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욕구를 기관이 만족시켜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연구 참여자들이 평생교육 기관에 지속적으로 등록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한 기관의 학습자들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이동혁과 심지민이 말한 것처럼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는 소위 ‘수준 높은’ 인문학 강좌를 기대하는 학습자들이 많으며, 기관 담당자 G가 말했듯 광역상권에 위치한 백화점 문화센터에는 주거지 근처의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성인 중심의 “좀 더 차별화”된 강의를 요구하는 학습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3) 학습 결과 인정 욕구

김준기와 신건우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했고, 이해민과 성예원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던 과정에 자격증대비반을 수강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들

이 취득한 자격증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특정 지식 및 기술을 성취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학습 결과가 그저 개인적인 만족에만 머물고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 결과가 “학점은행식으로 인정이 된다면 좋을 것” 같거나, “자격증이 나오면 되게 좋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교육에 참여한 바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 생기기 기대했다. 학점은행이나 자격증처럼 교육 참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수단을 희망하는 모습은 지닌 학습결과를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낸다.

연구자: 여기서 하는 강의 중에서는 그런 식으로 민간 자격증으로 연계가 된다든지 하는 강의가 있었어요?

박혜선: 현재 없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현재 없어.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뿐이지. 이게 연결되면 참 좋을 거 같아. 그런 게 학점은행제처럼 있잖아요. 자격증이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연구자: 그런 식으로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박혜선: 더 좋죠. 다 내가 알기로는 다 없어요. 개인의 지적 욕구 충족.

여기가 아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학점을 따게 해준다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학점은행식으로 인정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동원)

공식적인 자격증이나 학점이 아니라, 교육 참여 결과물을 내고 싶다는 욕망에서도 학습 결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얻은 것을 활용하기를 기대했다. 자신의 학습을 가시적인 형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자격증이나 학점처럼 실질적, 공식적, 구체적이기 보다는 “아웃풋”이나 “결과”라는 말로 훨씬 모호하게 표현됐다. 평생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전문성을 얻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얻게 된 지식과 전문성을 토대로 책을 쓴다거나 남을

가르치고자 했다.

만일 은퇴를 안 했으면 돈을 더 벌었겠죠, 그렇게 결정하려면. 그럼 지금도 돈을 벌고 있겠지. 그럼 금전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에 만족은 어딘지 모르고. 그래서 나는 나 나름대로. 만약에 60살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때 나와서 다시 시작하기는 더 힘들어. 그럼 제2의 직업을 못 갖고 잘 하면 건강을 위해서 등산이나 다니고 이거 밖에 없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배우고 성찰하고 그러지만 다시 말해서 지금은 내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우선 쌓아놓는 거죠. 그 전에는 갖고 있는 거는 가정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정신적인 거라고 해야 할까? 지적인 거라고 해야 할까. 다 잊어버린 거를 환기시킨다고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다시 쌓아놔야지 뭐가 있어야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될 거 아니야. (이동혁)

박혜선은 처음에는 “강의 듣고 즐거워, 랄라”하면서 평생학습관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웃풋’을 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다. “강의 중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강의를 들었으면 이제 자기 안에 쌓인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이다. “강의중독”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많은 강의에 오랫동안 참여해 온 박혜선은 이제 자신이 배운 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

지금은 그렇죠. 뭔가 내가 인풋만 계속 했다면 아웃풋 하는 거. 내 안에 많이 쌓고 가꾼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내가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많이 배웠던 걸.)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아들이 그러거든. 엄마는 강의 중독이야. 이제 는 인풋 그만하고 엄마는 아웃풋을 해도 충분한데 이제 엄마는 강의를 들을 때가 아니라 강의를 해야 돼, 이래. 그래서 나는 이런 데에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눔활동가. 재능기부.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학습에 목말라서 그런 걸 충

족시키러 오는 사람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기만의 가진 자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나눔하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혜선)

신건우는 자신이 배운 것을 토대로 남을 가르치고 싶다는 기대가 컸다.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남들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받은 수료증이며 자격증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분야에서는 충분히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나가서 제대로” 하려면 여전히 더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수료증과 자격증이 있으니 그럴만한 권위도 있을 것이며,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을 토대로 남을 지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이제 배워서 나도 이제 선생님 같이 지도를 할 수 있고, 강당에 좀 서고 싶지. 여기서 내가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한다고 하면 똑 소리나게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특별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 경험 이런 걸 얘기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얘기 할 수 있는 몇 품목이 있어요. 운동하고 하는 거, 농아[농아 탁구시합 심판] 이런 것들. 나가서 제대로 하려면은 그런 건 아직은 없고. 아직까지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신건우)

책이나 강의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 결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다시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아웃풋’을 내놓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풋’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혜선은 자신이 배운 바를 책으로 내고 싶다는 생각에 꾸준히 사진 수업과 글쓰기 수업을 수강했다.

그래서 나는 치유 쪽으로 공부를 하려니까. 그리고 여행하고 글 쓰고 하는 것이. 나는 책을 내고 싶거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거죠. (박혜선)

이동혁의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될 거 아니야.” 라는 말이나 신건우의 “아직까지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라는 말도 교육 참여 결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을 인정받고 싶다고 생각했고 스스로도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배운 것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평생교육 참여 결과를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다시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참여 결과를 활용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기대는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이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충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에 참여한 바를 관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이력을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전 학기에 자신이 수강했던 과목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자신이 배운 바를 기록으로 남기거나 복습하는 연구 참여자도 드물었다. 이를 통해, 배운 바를 결과물로 내놓고 싶다는 생각과 기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대를 성취하기 위한 준비는 거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요즘엔 이거 해놓은 거를 저녁에 어디 블로그나 뭘 해놓고 싶은데 피곤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배우신 걸 정리하고 싶은데?) 너무 좋은 걸 많이 배우는데, 듣긴 다 들었는데. 이제 하드웨어가 과포화 상태라서 안 들어간단 말이야. 지나면 잊어 먹잖아. 물론 내 안에 쌓여서 뭘 하긴 하겠지만 그 소중한 말 한 마디, 글 한 마디, 지혜 한 마디 들이 정말 반짝 반짝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적어놓거나 전하거나 하고 싶은데 그게 아까워. 그거 강의한 거 사진도 찍어놓고 이러거든? 그런데 그걸 정리를 못 하니까. (박혜선)

연구 참여자들이 특별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평생교육 참여를 결정하고 시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인풋’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격증이나 학점과 같이 공식적인 수단으로 자신이 이룬 성취를 확인받거나, 배운 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 참여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대는 남을 가르치거나 책을 쓰거나 언젠가는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수준에 그치며, 결과를 쓰임새 있게 하고자 하는 욕망은 욕망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체계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만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극했다.

V. ‘평생학습족’의 형성 및 특성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개별적 학습 과정을 탐구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평생교육 기관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개별 학습자들은 다양한 사건에 영향을 받고 그에 반응하면서 ‘학습자 집단’을 구성한다. 한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관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습자들이 학습자 집단에 속하는 과정과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학습자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평생학습족’의 하위 집단들을 구성하는 계기와 과정, 그리고 이들이 ‘평생학습족’에 속함으로써 보이는 특징을 다룬다.

1. ‘평생학습족’의 형성 계기

연구 참여자가 한 평생교육 기관에 지속적으로 출석하고 고정적인 학습자가 되는 경우, 이들은 주변 학습자들과 “오며 가며 눈인사”²²⁾를 나누기도 하고 친목 집단을 만들기도 하면서 크고 작은 집단을 만들었다. 학습자들이 구성하는 학습자 집단은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기관에 지속적으로 등록하고 교육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족’의 하위 집단이 된다.

‘평생학습족’이 되는 학습자 집단은 일반적으로 정규 프로그램을 개강하는 평생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습자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일일/단기강좌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평생교육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참여하지만 참여기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참여가 규칙적이기 어렵기 때문에 공통점을 공유하는 집단을 구성하기 어렵다.

기관 담당자들은 기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학습자들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학습자 개개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이루고 있는 동질성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을 관리한다. 특정 집단에 속해있는 학습자들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는 그 집단에 속해 있는 학

22) 김동원 인터뷰 중

습자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기관 담당자가 학습자 개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 방식은 학습자 집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관 담당자 D는 기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들을 보면 “누구 무리, 누구 무리”로 다 구분이 간다고 말했다. 기관 담당자가 학습자들을 관리할 때에 학습자 개인보다는 ‘무리’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일/단기강좌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 학습자들이 아예 관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일/단기강좌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자치구, 특정 기관 등 특정한 본거지를 두고 그를 중심으로 일일/단기강좌에 참여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이 학습자들 또한 기관 담당자가 특강을 운영하기 위해 관리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이 경우, 학습자는 자생적인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담당자가 의도한 집단에 속하게 된다.

기관 담당자의 학습자 관리는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학습자 집단을 만드는 역할도 한다. 기관 담당자들은 학습자를 관리하여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기관에 등록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등록을 반복하면서 한 기관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장기등록 학습자들은 기관 자체의 이름으로 하나의 집단을 이룬다. 예를 들어 A구 평생학습관에서 B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습자는 B동아리 회원들과 직접적인 집단 상호작용을 하고 이 학습자를 B동아리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관 담당자의 B동아리 관리를 통해 A구 평생학습관에 반복 등록하게 되면서 ‘A구 평생학습관 학습자’가 된다. 이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A구 평생학습관 학습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학습자 집단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 학습자들이 ‘평생학습족’이 된다. 학습자들은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집단을 만들고, 다시 집단의 영향으로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생교육 영역의 고정적인 수요자가 되는 학습자들이 바로 ‘평생학습족’인 것이다.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평생교육 기관의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 발생하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을 집단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평생교육을 이해하는 것은 평생교육 기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중추를 이해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수업 외 활동: 식사와 차, 그리고 쇼핑

학습자 집단은 집단에 속하는 학습자들이 평생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 중 학습자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평생학습족’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습자 집단이 형성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계기는 같은 수업을 듣는 이들 간 상호작용이다. 수업을 함께 듣는 학습자들은 한 분기 동안 정기적으로 한 공간에 모인다. 인문학이나 어학 수업은 강사가 학습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지만, 노래, 댄스, 사진 등 예체능 계열 수업에서는 강사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훨씬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단화가 훨씬 잘 발생한다.

수업 내 상호작용만으로도 이들이 서로 가까워지지만, 함께 수강하는 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은 수업 외 활동을 함께 하면서 더 끈끈해지고 공고해진다. 식사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활동이었다. 많은 정규 프로그램들이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전후는 점심시간과 맞닿아있다. 오전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수업이 끝나면 식사를 해야 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수업 후에 함께 하는 식사는 정례화 된다. 함께 하는 식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단순히 모였다가 시간이 끝나면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로 모일 수 있게 한다.

학습자들이 식사를 함께 할 때 보통 강사도 함께 식사를 했다. 학습자들과 강사가 수업 외에도 식사라는 사적인 시간을 보내며 더욱 친밀감을 쌓게 되었다. 하늘구 평생학습관에서 장기간 사진 수업을 수강한 박혜선은 함께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의 “친목도모”를 말하며 같이 밥을 먹는 것을 예로 들었다.

연구자: 같이 수업 드는 분들이랑 친근하신가요?

박혜선: 그런 게 생기죠. 많이 생기죠. 사진 같은 거는 계속 연륜이 됐잖아. 거기서 그 때부터 계속 나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끝

나면 같이 무조건. 교수님하고 같이 무조건 회비 만 원씩 내서 같이 밥 먹어. 그리고 모아놨다가 차도, 과자도 준비해서 주고. 거기는 굉장히 친목도모가 잘 되어 있어요.

박혜선과 사진반을 오랫동안 함께 한 “연륜”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오전에 진행하는 사진 강좌가 끝나면 무조건 회비를 모아 강사와 식사를 했다. 회비가 남으면 다 과비로 사용했다.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들은 한 클래스가 수업 후에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²³⁾ 수업을 매개로 만난 학습자들이 ‘식사’라는 긴밀하고 사적인 시간을 함께하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그 계기로 하나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서로 “친해지고”, “친구가 되는” 계기이다. 박민서는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어떤 계기로 친구가 됐냐는 질문에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대답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 다닐 때 박민서는 수업이 끝난 후 수업 수강생들과 다 같이 식사를 함께 한 후 그 날 하루를 “그냥 그 사람들하고 노는 날”로 삼았다. “시간 되는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아예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까지가 문화센터 수강자들이 생각한 ‘문화센터에 가서 할 일’이었던 것이다. 박민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등록한 이후 동료 수강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따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자 먼저 함께 식사를 할 것을 제안했다. 그 이후 서양문학반 학습자들은 수업이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그 때 왜 그 말[함께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냐면 나는 백화점 문화센터랑 여기랑 두 군데를 다니고 있었는데 백화점 문화센터는 좀 오래 돼가지고, 이런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거기는 끝나면 너무 당연하게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놀아. 쇼핑도 같이 가고. 백화점

23) “그런 분들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 분들, 계속 보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문화센터 오고 이게 일상이 된 사람들이어서”(기관 담당자 G)

“성인 분들도 선생님이랑 수업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하시러 간다거나 제가 듣기로는 회원님들끼리 같이 여행도 가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기관 담당자 F)

이니까. 시간 되는 사람 밥 먹어,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그냥 끝나면 점심 먹으러 가는 거야. (아예 스케줄이 밥 먹는 거까지 구나.) 응. 거기는 아예 하루를 그냥 그 사람들하고 노는 날인 거야. 그 백화점.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하고 그 날 밥 먹고 헤어지면서[행사가 있었던 날 다 같이 밥을 먹고 헤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헤어지는 분위기였는데 내가 우리 시간 되는 사람들은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차 마시고 하자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다가 시간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안 할 이유는 없으니까. 처음 들어보는 제안이긴 한데 안 할 이유는 없으니까 뭐 그럼시다, 그러다가 오늘 점심 먹으러 갈 수 있냐,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박민서)

함께 식사를 하기 전에는 “옆에 누가 앉았는지도” 모르고, “거의 일 대 일 수업처럼”²⁴⁾ 하고 돌아왔지만, 식사를 함께 하면서 백화점 문화센터에 ‘일본어반 사람들’이라는 집단이 생겼다. 이렇듯 수업 외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동료 수강생과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다. 수업 외 활동은 학습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은 수업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끝나면 흩어지지 않고, 수업 활동이 없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하나의 집단을 만들 수 있다. 특히 함께 하는 식사는 서로 관계를 맺는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수단으로, 식사가 정례화 되면서 수업 뿐 아니라 식사까지도 연구 참여자들이 ‘평생교육 기관에서 할 일’이 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학습자 집단은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기관에 나오는 데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했다. 지속적으로 평생교육 기관에 등록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기관에 소속감을 느끼고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일을 자연스러운 할 일로 생각했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몸에 익으면서 ‘평생학습족’이 된 것이다.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보는 사람들”이 계속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같이 밥 먹고 문화센터 오고 이게 일상이 된 사람”들이 된다는 기관 담당자 G의 말은 학습자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평생학습족’이 되는 학습자들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4) 박민서 인터뷰 중

다만 수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습자 집단은 학습자들이 수업을 반복수강하고, ‘후배 학습자’에게 문화를 전파하는 이상 쉽게 해체되지 않지만 집단 규모가 큰 만큼 그 자체로는 다소 느슨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매주 만나 함께 수업을 듣고, 함께 식사를 하지만 그 외의 활동은 함께 하지 않는 학습자 집단도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학습자 집단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은 하지만 그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이 서로 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례화 된 식사 외의 부가적인 활동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도, P 교수님 거기도 끝나고 밥은 먹어요. 밥은 먹지만 우리처럼 엑스트라로 모이고 만나고 영화 보고 이런 건 없다고 알거든요, 내가 알기론. 거기도 끝나면 밥 거의 같이 먹어요, 교수님하고 같이. 그런데 이런 건 없어요. (박민서)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P 교수가 진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수강하는 학습자들은 수업이 끝나면 다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박민서가 속해 있는 사교 집단처럼 부가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P 교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이 그 자체로 하나의 학습자 집단을 형성하고 ‘평생학습족’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민서가 속한 학습자 집단만큼 결속력이 강한 집단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2) 성향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 찾기

정례화 된 식사 이외에 부가적 활동을 할 때에는 성향과 취향이 중심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향 또는 취향이라는 매우 주관적이고 긴밀한 준거로 집단을 형성했다. 우연히 같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잦은 상호작용을 하다가 만들어진 집단에 비해 비슷한 성향이나 취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습자 집단은 구성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뿐더러 규모가 훨씬 작고 더 끈끈하게 결속되어 있었다.

성향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은 결국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말이 통하기 위해서 대화를 통하게 하는 공통점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집단 대화의 중심이 되는 공통점이 자신에게 맞는지, 혹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유 시간을 허송세월로 낭비하지 않는 성향과 더불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그것을 좋아하는지 여부, 즉 취향이 비슷한지의 여부로 “동네 엄마들”²⁵⁾, “그냥 친구들”²⁶⁾과 수업에서 만난 동료 학습자들을 구분했다. 즉,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이미 평생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유 시간을 허송세월 하지 않고 배우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 비슷한 성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박민서와 심지민은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서양문학 강의를 수강하며 만난 학습자 집단과 자신이 속해있는 다른 집단과 비교했다. 서양문학반에서 만난 ‘멤버들’은 자녀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었던 학부모 모임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채워줬다. 이들은 자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영화나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통하는 친구들이다. 박민서와 심지민은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친해질수록 “동네 엄마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는데, 평생교육 기관에서 만난 친구들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점에서 더 자신과 비슷하고 “나랑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지민: 저도 애들 대학 같이 했던 엄마들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놀러 가고. 놀러는 가요, 나도. 여행 좋아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하나가 (있다). 그런데 그게 여기서는 채워지거든요. 조금 나은 거죠. 내가 부족한 걸 느끼면서도 그게 행복한 거지. 강의를 들으면서도 내가 저걸 몰랐었고 저걸 알았는데 단편적으로 알았었던 거. 그거가 좋은 거죠. 아마 그게 싫었으면 한 학기 하고 그만 뒀겠죠? 지금 동네 아이 키우던 엄마들은 이런 공부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내가 얘기해요. 수업 괜찮은데 갈래? 그럼 그거 뭐 하러 해, 머리 아프게. 다 (그렇게 말한다).

박민서: 진짜 관심 없어.

25) 박민서 인터뷰 중

26) 이동혁 인터뷰 중

심지민: 진짜 관심 없어요. 다라고 하면 또 이제 백 프로니까 그건 아니고. 내가 말한, 나랑 맞을 것 같아서 혹시 물어보고 이러면.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식사나 담소 등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을 구분했다. 이해민과 성예원은 도서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화하고 말하는 패턴”을 보고 “성향”을 알게 되고 자신과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을 알게 된다고 했다.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집단과는 달리 성향이 맞는 집단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한 번 걸러진 집단이다. 이들은 성향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기준을 매개로 “차 한 잔 마시고 과자 하나 주워 먹고” “다른 강좌를 들으러 가는데 아무래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며 “밖에서 자주 만나”는 집단을 만들게 됐다.

이해민: 배우다 보면 한 교실에서 열두 번 정도를 모이잖아요. 매주 한 번씩 보잖아. 심지어 같은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두 번 똑같이 듣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두 번씩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면 계속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 듣다 보면 서로를 말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대화하고 말하는 패턴 보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성향이 나오잖아. 성향이 보이니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렇게 하게 되고. 쉬는 시간에 얘기하고 끼리끼리 뭐 하게 돼도 나랑 맞는 사람 옆에 가서 앉게 되고 차 한 잔 마시고 과자 하나 주워 먹고 그렇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지내는 건 인사 정도만.

연구자: 그럼 거기서 친해지시면 도서관 밖에서도 자주 만나시고?

성예원: 다른 강좌를 들으러 가는데 아무래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이해민: 밖에서 자주 만나요.

성향이나 취향이 맞지 않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집단을 나가 다른 집단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박민서는 백화점 문화센터 일본어 수업을 수강하면서 만난 학습자들과

이 년 가까이 한 집단을 이루고 매주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결국 그 집단을 나오기 위해 백화점 문화센터 일본어 수강을 그만 두었다. 이후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일본어반 사람들처럼 “사는 동네”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또래”가 비슷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다른 집단을 구성했다.

박민서: 아니, 그런데 내가 그거를, 일본어를 끊은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분위기하고 거기 분위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울리는데 거기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거기가 또 ○ ○ 백화점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수준이 (높았다).

심지민: 또 포인트가 다르잖아, 관심사가.

박민서: 응, 관심사가. 앉아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책, 영화, 뭐 어찌고저찌고 강의 내용. 그런데 거기는 쇼핑, 명품, 뭐 어디 가면 뭐를 싸게 산다더라, 새로 명품 뭐가 들어 왔다더라, 그걸 사러 일본을 갔다. 뭐? 그걸 사러 일본에 갔다고? 나는 그런 걸 듣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왜냐면 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 맞아가지고.

박민서가 만난 일본어반 사람들이 쇼핑이나 명품을 좋아하는 취향을 중심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서양문화반 사람들은 책이나 영화,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집단을 구성하고 유지하게끔 하는 “포인트”와 “관심사”, 즉 취향에 따라 학습자들은 속해있던 집단에서 나오기도 하고 집단을 만들기도 했다.

취향에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입한다.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속해있을수록 비슷한 취향을 지닐 확률이 높아진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경험하는 바가 다르고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민서가 속해있었던 백화점 문화센터 일본어반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전면에 내세운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는 동네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일본어반 사람들은 명품과 쇼핑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르면 나눌 수 없는 대화 주제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이 집단을 구성하는 강력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심지민이 면담 당시 속해 있었던 가온대학교 평생교

육원 서양문학반에서 만난 집단도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공유했다. 사회경제적 배경은 특정한 취향을 구성하고, 서로 “대화”가 통하는 공통적인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집단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저희가 지금 50대인데 50대들이 그래도 그 당시에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대학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학을 다녔던, 그 당시에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은 그래도 상위 한 20% 이상은. (심지민)

일단 경제적으로 되는 사람들이예요, 첫째. 우리 같은 모임은. 다른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도 내가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게 좀 되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다 차를 좋은 거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중략) 그리고 다 학력이 높아요, 이 분들이, 공통점이. 다 학력이 높아요. 다 대학 졸업했고 다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이 괜찮은 거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만의. (이동혁)

성향과 취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집단은 함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이 됐다.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향/취향 집단인 만큼 이들 집단은 함께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행위를 즐긴다. 이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계속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이다. 이들은 함께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평생학습족’이 되었다. 동료 학습자들과의 끈끈한 관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평생교육을 도중에 그만두지 않게끔 하며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집단 단위로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했다.

3) 기관 담당자와 친밀한 관계 형성

기관 담당자의 관계는 연구 참여자가 ‘평생학습죽’이 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기관 담당자들은 학습자를 ‘기관의 학습자’로 만들기 위해 학습자를 관리하는데, 기관 담당자의 학습자 관리 자체가 이들이 반복해서 기관에 등록하고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도록 했다.

기관 담당자의 학습자 관리는 친밀한 관계를 근간으로 했다. 기관 담당자들은 평생 교육사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전반적인 기관 운영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학습자 개개인과 관계를 맺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기관 담당자 B는 학습자와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학습자 자녀 이름을 외우거나 휴가를 잘 다녀왔냐고 묻는 등 학습자가 말했던 정보를 기억하거나, 장기 등록한 학습자들에게 사은품을 더 챙겨주는 등 학습자들의 마음과 감정을 관리했다. “스스로를 나는 보험 아줌마다”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는 기관 담당자 B의 말은 기관 담당자가 기관 회원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학습자들의 감정을 관리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습자들이 그걸 되게 원해요. 기관에 어느 담당자가 자기를 기억해주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를 나는 보험아줌마다. (기관 담당자 B)

기존 분들한테 간담회 같은 것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제가 솔마트에 있었을 때는 잘 하는 선생님 반, 팬 층이 확보돼있는 반은 마지막 날 종강 파티 같은 형태로 제가 들어가서, 과자랑 음료수 같은 거 들고 가서 한 십 분, 십오 분 정도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 듣는다는 식으로 선생님 너무 잘 하시죠~ 이러면서, 선생님들이랑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서 준비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고, 기존 분들은 그런 식으로 챙기고. 또 오시면, 대형마트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분들이 등록 하면 드리는 사은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광고 면에. 기존회원의 경우 강의 두 개를 듣는 경우에 뭐 어떤, 좀 고퀄리티의 사은품, 하나만 들으면 뭐, 추천회원을 데려오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선물을 주는데 괜히 좀 챙기는 형태로. 보험 아줌마들이 왜 사은품 이거 있는데 하나 더 가져 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그런 형태가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아이 이름도 외워야 되고. 이쪽[대형마트 문화센터]은 엄마가 내

아이가 예쁘다고 칭찬받거나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발레 복 같은 걸 입고 오면 오늘은 왜 이렇게 공주님 같이 입히고 왔어요, 어머님, 이러면서 약간 친근하게 대하려고 하고, 마침 사은품이 들어왔는데 아직 뿌리기 전이에요,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챙기기도 하고. (기관 담당자 B)

기관 담당자들이 평생교육 기관에 등록한 모든 학습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에 장기간 등록하면서 ‘기관의 학습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회원들이 주로 기관 담당자와 가까워진다. 기관 담당자와 맺는 개인적 친분은 몇 연구 참여자들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지 않도록 영향을 미쳤다. 평생교육 기관들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기존의 기관을 반복 선택했다. 기관에 반복 등록하는 학습자들이 많아지고, 기관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서 학습자들은 특정 기관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동질성을 얻는다.

이해민은 친분을 이유로 기관 담당자에게 특권을 받은 경험이 있다. 요즘은 많은 기관이 프로그램 접수를 인터넷으로 하도록 방식을 바꾸었지만, 주로 방문 접수를 하던 시기에는 기관 담당자가 친분이 있는 학습자가 일찍 와서 인기 있고 경쟁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미리 연결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담당자와) 친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것들은 엄마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9시 딱 문 열면 그 시간에 대기해서 오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아리 사람들한테는, 친한 사람들이나, 동아리에 묶여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그 전날 미리 문자를 주세요, (동아리) 회장님한테. 그럼 모르고 있다가 그거를 알고 일찍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민)

프로그램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수입은 학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담당자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개강 여부나 수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담당자와 친분이 있거나 학습동아리에 소속된

학습자들에게 접수 시에 제공되는 일종의 ‘특별 서비스’는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를 다른 학습자들보다 기관에 더 가까운 학습자라고 느끼게 하면서 연구 참여자를 기관에 포섭했다. 또한 기관에 이미 ‘충분히’ 소속된 학습자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되면 기관 담당자는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 기관에서 집단을 이루는 학습자들은 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않은 학습자들에 비해 집단적으로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기관 담당자가 직접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새로 개설되는 강좌,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 특강, 또는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개설하는 강좌들은 정규 프로그램에 비해 학습자가 충분히 모집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관 담당자들은 평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학습자에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강하도록 권유했다. 이러한 학습자들은 프로그램 참여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수강을 권하는 마음의 부담도 적기 때문이다. 박혜선은 평생학습관 센터장이 권유하여 기관이 대학과 연계하여 개설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할 때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자 센터장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수강 인원을 모으기 위해 애썼고 친분이 있는 학습자, 센터에 자주 얼굴을 비치는 학습자들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 박혜선은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팸플릿 등으로 이미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었으나 참여를 결정하는 데에는 센터장 등 기관 담당자의 직접적인 권유와 친분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 상반기, 하반기 프로그램은 그렇고,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박혜선: 그런 거는 여기서 K 센터장이 굉장히 사람들이 뭔가 마을 활동가나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서 모은 것 같아요. 모으고 ○○대 프로그램은 아마도 구청 신문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 거기 뒀던 것 같아요. ○○대 프로그램이 뒀나? 떼서 홍보를 한 것 같아요.

연구자: 선생님은 뭐 보고 신청하셨어요?

박혜선: 나는 이 센터장님이 정보를 줬고 여기에 팸플릿이 있으니깐.

연구자: 팸플릿도 보시고 센터장님이 정보도 주시고. 센터장님이 이런 저런 강의가 있다는 걸 자주 말씀해주세요?

박혜선: 여기 와서 자주 만나니까. 매일 오니까. 여기 와서 매일 사니까 얼굴을 보잖아.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모으려고 애썼어요, 센터장이.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와서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각 동아리 회장단들한테도 홍보했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네. 며칠 만에 사람들이 삼사십 명씩 한 강좌 당 짹짹 들어왔으니까. 너무 센터장님도 놀랐다니까.

평생교육에 자주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는 기관 담당자들이 편하게 프로그램 수강을 권유할 수 있었다. 학습자가 특강 참여를 즐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딱히 수강인원이 모약아도 담당자가 참여를 먼저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관 담당자 A는 학습자들을 오랜 시간 만나면서 학습자가 좋아하는 교육 주제나 참여 방식 등을 알게 되었고, 그와 비슷한 강좌가 열릴 때마다 친분이 있는 학습자에게 참여를 권했다.

매번 보면은 선생님, 마을 기자 해요. 아니면 동화 구연 해요. 아니면 문해교사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요. 아니면 자기는 이걸 못 찾은 거지, 계속. 그래서 나도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서 뭐 한다고 하면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또 아는 거죠. (기관 담당자 A)

한 기관에 지속적으로 출입하는 학습자들은 ‘바로 이 곳’의 사람으로 관리되면서 그 기관에 속하게 된다. 기관 담당자들이 특정한 학습자들과 친분을 맺고 그들을 중심으로 학습자를 관리하면 평생교육 기관에는 담당자들이 관리하는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중추 집단이 생긴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생교육 기관의 중추 집단은 해당 평생교육 기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평생교육 기관에 지속적으로 등록하는 학습자들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특정 평생교육 기관이라는 집단의 일원이 되고 집단으로서 관리된다고 할 수 있다.

4) 학습동아리 활동

학습동아리는 경계와 형태가 아주 뚜렷한 학습자 집단이다. 많은 평생교육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학습동아리가 개설된다. 학습동아리에서 학습자들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심화학습하거나, 실습이 가능한 분야인 경우 함께 모여 실습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학습동아리는 자발적으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평생교육 기관이 학습동아리 결성을 주도하는 경우도 잦았다. 기관 주도로 만들어진 학습동아리는 기관 공간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거나 활동비를 지원받는 등 학습동아리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연구 참여자 중 이해민과 성예원이 다닌 도서관은 자격증대비반이 종강한 후에 학습동아리를 개설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독려했고, 김동원과 박혜선이 다닌 하늘구 평생교육관도 프로그램 종료 후 수강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할 경우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주었다. 이해민과 성예원이 다닌 도서관은 동아리 활동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처럼 특정 시간과 장소를 할당하여 기관 시간표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목을 도모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학습동아리 회원으로 계속 기관에 소속되었다. 즉, 학습동아리 활동은 학습자를 특정 기관의 학습자로 만든다. 이해민은 도서관에서 만들어 준 학습동아리에 참여했는데 학습동아리가 “관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고 했다.

도서관 자체 내에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줘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그 그룹에서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그 동아리가 형성됨과 동시에 계속 관계 유지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도서관에서 동아리 모임이 사적인 모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민)

박혜선은 매주 하늘구 평생학습관에서 사진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사진 동아리

를 결성한 초기에는 사람들이 얼마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학습동아리를 시작하고 나니 열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회원들끼리 함께 공부하면서 더욱 사진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다. 학습동아리 활동은 박혜선이 하날구 평생학습관에 출석하고 머무른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매주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고 사진을 공부하면서 서로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학습동아리 참여가 점점 재미있어졌기 때문이다.

박혜선은 특히 자치구의 ‘행복주간’에 동아리 축제를 하면서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하며 “동아리 의식”을 만든 것이 동아리 활동을 유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다. 같은 학습동아리에 소속되어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동아리 의식”이 생기게 되면서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기관에서 학습동아리를 만들고 학습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판을 짜주는 것은 학습자들이 친목을 통해, 그리고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더 이상 기관의 특별한 관리가 없이도 계속해서 기관에서 활동을 이어가도록 했다. 박혜선의 말대로 점차 “자생적으로” 변한 학습동아리는 기관의 특별한 관리나 개입이 없이도 학습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간다. 동시에 이들은 ‘기관에 소속된’ 학습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생교육 기관에 출석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이 또 일조를 한 게 이번에 행복주간하면서 동아리 축제했거든요. (그래요? 하날구에서?) 응. 그래서 여기서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루 그렇게 하고, 전시는 한 일주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아리 의식이 또 생긴 거야. 배운 데에서 끝나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래서 이제 자서전 쓰기 동아리도 시작해서 그 시간에 나와서 그 강의는 끝났지만 (계속 평생학습관에 나오고 있다). (중략) 그래가지고 이번 주도 우리 모여서. 그리고 동아리방은 무료대여도 돼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자기가 쓴 글들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나누고. 그러니까 좀 자생적으로 변해간달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박혜선)

앞서 논의하였던 수업 외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취향이 맞는 학습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사교를 나누는 것과는 달리, 학습동아리는 기관 담당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았다. 기관 담당자가 개입하여 만들어진 학습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학습자들 사이에서 친목과 소속감이 발생하고 학습자 집단이 형성되었다. 기관 담당자는 학습자들이 기관 안에 안팎의 경계가 다소 뚜렷한 학습자 집단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지원하여 이들을 기관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다. 학습동아리에 소속된 연구 참여자들은 기관에 반복적으로 출석하면서 학습동아리 회원인 동시에 해당 기관 학습자라는 정체성을 획득했다.

5) 기관 활동가 되기

학습동아리 활동은 친목도모 등 “동아리 의식”²⁷⁾을 형성하게 해서 학습자가 기관에서 하나의 집단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기관의 책임을 나누는 활동가가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집단인 만큼 학습동아리는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기관에는 기관 ‘일’을 함께 해줄 고정적인 일손이 필요하다. 학습동아리는 그 자체로 기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은 기꺼이 일에 손을 보탠다. 예컨대 평생교육 기관이 지자체 축제에 참여하는 경우 학습동아리에서 기관 이름으로 부스를 연다거나, 기관과 연계된 다른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시 말해 학습동아리를 만들게끔 유도하는 기관들은 학습동아리 회원들이 단순히 교육에 참여하고 함께 학습함을 넘어 기관의 ‘일’을 일부 함께하도록 만드는데, 이는 학습동아리 회원들을 단순한 학습자가 아닌 기관에 소속된 활동가로 탈바꿈했다. 이해민은 도서관에서 독서치료지도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도서관에서 만들어 준 학습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했다. 이해민은 도서관에서 학습동아리를 형성해주는 이유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본인들이 행사를 했을 때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학습동아리의 일원으로 장애아 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매년 시청에서 열리는 평생교육 축제에서 부스를 맡아 참여했다고 했다.

27) 박혜선 인터뷰 중

연구자: 자격증이 끝난 다음에 생긴 동아리가 있으면 보통 뭘 하세요?
그 동아리에서는.

이해민: 도서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봉사가 목적이예요. 도서관 자체에서는 봉사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독서치료 자체가 동아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로 봉사가 기본으로 깔리면서 장애아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독서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해년마다 시청에서 평생교육 축제하잖아요. 동아리 부스가 있잖아요. 도서관이 다 가는 거예요.

연구자: 그렇게 평생교육 축제에도 참여하고 그러나 봐요.

이해민: 의무예요. 왜냐하면 도서관 동아리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행사를 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도 축제하잖아요. 시에서도 축제를 하지만 도서관에서도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동아리들이 다 형성이 돼서 하나씩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도서관은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현장체험을 가는 거예요. 문학기행. 그 때 또 동아리 위주로 뭘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느낌으로 동아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학습동아리 회원 뿐 아니라 일일/단기강좌에 자주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기관의 활동가가 되었다. 김준기는 평생교육 기관에서 일일 특강에 자주 참여했는데 기관 담당자와 친분이 생긴 이후 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기관이 주관하는 연탄 나눔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 기본교육, 자살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평생교육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늘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김준기는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단순한 특강 참여 학습자가 아니라 기관의 ‘일꾼’이 됐다.

자원봉사 센터나 그런 데에서. 자원봉사 기본 교육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바다구 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담 가서. 주민 센터에서 상담가 뭐 해가지고, 거기 가서도. (김준기)

기관 활동가가 된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벗어나 기관에 책임을 가졌다. 기관에 대한 책임감은 연구 참여자들이 특정 기관의 학습자에 속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책임감을 한 학습자가 동시에 두 기관에서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관의 활동가가 되면서 기관에 소속된 ‘A기관의 학습자’로 변모하고, 이는 스스로를 평생교육 기관과 밀접한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하여 이들이 ‘평생학습족’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은 학습동아리라는 작은 집단과 기관이라는 보다 큰 집단에 학습자를 이중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 ‘평생학습족’의 평생교육 참여 특성

연구 참여자들이 ‘평생학습족’이 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학습자 집단을 이루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을 ‘평생학습족’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V장 1절에서 상술하였던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 듣는 수업이나 친목 집단, 학습 동아리와 같이 구체적인 경계가 있는 학습자 집단을 만들기도 했고, 기관의 활동가가 되거나 기관 담당자와 친분을 나누면서 특정 기관의 중추학습자로서 ‘기관의 학습자’라는 보다 포괄적인 학습자 집단을 이루기도 했다. ‘평생학습족’들이 이루는, 또는 ‘평생학습족’으로 학습자를 이끄는 이러한 학습자 집단들은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평생학습족’인 주 연구 참여자 열 명을 예로 들면 이들은 총 열한 개의 하위 족에 관여하고 있었다.²⁸⁾²⁹⁾ ‘평생학습족’ 아래 다양한 성격의 하위 족

28) 주 연구 참여자를 관여하고 있는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최현우, 김준기, 신건우, 2. 최현우, 3. 김준기, 신건우, 4. 박민서, 이동혁, 심지민, 5. 박민서, 심지민, 6. 이해민, 성예원, 7. 이해민, 8. 성예원, 9. 김동원, 박혜선, 10. 김동원, 11. 박혜선. 한 명의 학습자가 평생학습족의 단 하나의 하위 족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에 따라 여러 하위 족에 중첩되어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박민서, 이동혁, 심지민의 경우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양문학반을 중심으로 하는 하위 족에 속하지만, 동시에 박민서와 심지민은 취향을 중심으로 한 친목 집단에 속한다. 박혜선과 김동원 또

이 있음을 전제한다면, 실제로 조망하기 어려운 전체 ‘평생학습족’ 대신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위 족들의 활동을 통해 전체 ‘평생학습족’의 평생교육 참여 특성을 가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 연구에 참여한 주 연구 참여자들이 관여하고 있는 하위 족들의 특성을 통해 이해한 ‘평생학습족’의 평생교육 참여 특성을 다룬다.

1) ‘하위 족’의 집단 정체성 형성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에 속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한 하위 족 고유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했다. 성향이나 취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친목 집단에서 발전한 하위 족은 다른 학습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집단 정체성을 확인했다. 이들은 새로운 ‘멤버’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아주 까다로웠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집단에 들어오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스터디 모임을 같이 하는 정도의 느슨한 유대감은 형성할 수 있지만, 모두가 함께 한 집단이 될 수는 없었다. 기존에 형성된 하위 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들만의 규칙과 분위기를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니 그 새 멤버 얘기했는데 그 새 멤버가... 우리가 되게 마음이 잘 맞고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마음이 맞기 때문에 새 멤버가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조금 힘든. 쉽게 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몇 번 만나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떤 성향인지, 말한

한 하늘구 평생학습관의 주요 학습자로서 관리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하위 족에 속하기도 하지만, 서로 주로 참여하는 학습동아리가 다르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하위 족에 속할 수도 있다.

- 29) 연구자가 확인한 ‘하위 족’들의 샘플이 적으며, 하위 족 내 동질성과 하위 족 간 차별성을 드러낼 정도의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족’이라는 호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평생학습족’ 내 소집단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위 족’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대로 비슷한 관심사, 비슷한 성향 이런 걸 해서 되게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니까 선불리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오케이, 들어오는 걸 오케이했다가 이 사람이 튀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박민서)

기존에 형성된 하위 족들은 새로운 학습자를 받아들일 것인지 판단할 권력이 있다. 하위 족 학습자들은 이 권력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유지했다. 권력을 통해 다른 동료 학습자가 새로운 집단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하거나, 기존 하위 족에 속하고자 시도할 때 그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동혁은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친교 집단에 속하여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스터디 모임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등 가깝게 어울렸다. 하지만 이동혁이 속한 집단은 어디까지나 수업을 듣고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친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학습자들은 집단에서 배제했다. 이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두는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까워지기가 어려웠다.

수업보다는 친교를 위해서 나오면 되게 싫어해요, 이 분들은. 왜냐하면 이 분들은 너무 강하게 묶여져 가지고 친교가 되어 있어. 그런데 같이 (수업을) 했던 사람인데도, 여기 이 분들의 친교는 물론 꼭 공부의 열정... 보다 다른 걸 다 아울러서 친교가 되어있는데 한두 분은 그게 아니라 그 거량은 전혀 무관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는 (데에) 관심이 더 많다). 그런데 좀 세대 차이가 나고 사고가 다르니까, 이 분들은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몇 명, 많은 건 아닌데. 그래서 그분[친목을 위주로 참여하는 학습자]이 다른 데서는 쫓겨났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쫓겨났다고보다는 왜 다른 사람이 그걸 하는 걸[친목을 우선시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니까. (이동혁)

수업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형성된 하위 족이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신규 학습자가 등록할 경우 하위 족 학습자들과 신규 학습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이미 하위 족 나름의 규칙이 있다. 수업이 끝나면 으레 강사와 함께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한다거나, 다달이 회비를 걷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이미 암묵적인 규칙이나 분위기를 통해 하나의 집단 정체성이 형성된 프로그램에 신규 학습자가 등록할 경우, 신규 학습자가 이에 잘 적응하거나 기존 학습자가 신규 학습자를 잘 받아들이게 되면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은 새로운 일원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평생교육 기관이나 강사의 입장에서는 고정 학습자를 한 명 더 확보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반면 기존의 집단 정체성 유지 방식을 ‘텃세’로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신규 학습자들도 있었다. 이 경우 신규 학습자들은 다음 학기에 해당 수업에 재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심지어 중도에 수강을 취소하기도 했다.

연구자: 그렇게 하면 신규 고객 분들이 잘 어울리지 못 한다거나.

기관 담당자 E: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런 피드백도 되게 많아요. 그게 되게 오래 유지가 된 건데 새로 오면 조금 텃세 같은 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 많아요.

연구자: 신규 분들이 그런 식으로 클레임을 걸고 그런 게 있어요?

기관 담당자 E: 네. 취소하면서 그러시는 분들 있고. 취소하시면 왜 취소하시냐고 저희가 물어보면 왔는데 너무 자기들끼리 너무 그런 게 좀. 텃세 부리고 이런 게 너무 심해서 그만 둔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텃세는 이미 형성된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이 새로운 학습자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 자체로 하나의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신규 학습자가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기존 학습자와의 갈등은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와 강사들에게 문젯거리가 됐다. 신규 학습자가 기존 집단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업에 섞이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강좌는 고정된 “팬 층”, 이미 중추로서 기관에 불박인 ‘평생학습족’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단화 된 학습자들의 권력은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프로그램의 개·폐강처럼 프로그램 운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습자를 기관에 소속시키는 데에도 ‘평생학습족’의 영향력이 작동했다.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는 너무 팬 층이 확보가 돼서 새로운 사람이 유입됐을 때 약간 텃세 같은? 섞이기 힘든. (강사 입장에서?) 아니, 아니. 강사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사람을 챙겨야 되는데, 이 사람도 하나의 학습자인데, 이 분들의 이미 형성된 문화에 섞이기 힘든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게 잘 섞이면 이제 또 하나의 팬이 확보가 되는 거고. (기관 담당자 B)

보다 경계가 뚜렷하고 친밀도가 높은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들은 자신들만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위 족 내에서 만들어지는 집단 정체성을 유지하는 규칙이나 분위기는 새로운 학습자를 새로운 ‘평생학습족’이 되도록 이끌기도 하며, 도리어 배제하기도 했다. 또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하위 족이 더욱 공고해지고, ‘평생학습족’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즉, 학습자들은 함께 하위 족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평생학습족’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된다고 할 수 있다.

2) ‘하위 족’ 단위의 평생교육 참여

하위 족을 형성한 연구 참여자들 중 다수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하나의 족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 프로그램 수강에서부터 종료까지, 이들은 개인이 아니라 족의 일원으로 기관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함께’ 수업을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하위 족이 수업을 들을 때는 프로그램 수강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집단 차원에서 내려졌다.

하위 족들 가운데 한 수업을 장기간 수강하면서 장기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하위 족들은 함께 듣는 수업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친목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시 수업 주제에 대한 흥미를 강화했다. 최현우는 ○○구 문화원에서 개설하는 사진 강좌 고급반을 5년 이상 수강한 베테랑 학습자였다. “사진하는 사람들”, 즉 함께 사진 수업을

듣는 동료 학습자들은 최현우의 친교 관계 중 “제일 잘 되어있”³⁰⁾으며, 오랫동안 함께 사진을 배우고 찍으러 다닌 사람들이 “동아리”처럼 되어 쉽게 사진반을 떠날 수 없었다. 사진반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사진반 사람들이랑 친목을 쌓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사진을 주제로 이야기도 나누다보니 점점 더 사진반을 떠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 강사의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던 고정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구 문화원 사진반 족’은 수업을 계속 반복해서 수강하며 수업을 중심으로 유대감을 강화했다. 하위 족의 유대감과 친목은 하위 족에 속한 학습자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고급반에서도 오 년 동안, 처음부터 오직 고급반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같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같이 이루어지고 같이 출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동아리처럼 평생학습이.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를 떠날 수가 없죠. (최현우)

앞서 말했듯이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평생교육에 장기간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두드러진 학습 참여 양상 중 하나인데, ‘평생학습족’ 하위 족들 중에는 친교를 유지하는 동시에 배움이라는 즐거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여러 수업을 듣는 방법을 택하는 하위 족들도 있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기관 안에서 한꺼번에 이동하는 “무리”³¹⁾로 강좌를 여러 개 함께 들으면서 하위 족 문화를 강화한다. 기관 담당자 D는 이러한 하위 족에 속한 학습자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말하며 프로그램 참여 결정이 개인이 아닌 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사람들끼리” 함께 수강할 프로그램을 고른다고 했다.

기관 담당자 D: 몰려다니고. 또 그렇게 다니면서 강좌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게 진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해서 문화센터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끼리 이제

30) 최현우 인터뷰 중

31) 기관 담당자 D 인터뷰 중

얘기를 해서 이거 듣자, 이거 듣자, 이런 식으로.

연구자: 그럼 우리 이번엔 이거 들었으니까 다음에는 저거 듣자, 하는 식으로 한꺼번에 이동을 하시나 봐요.

기관 담당자 D: 그런 게 많죠. 대부분 다 그래요.

이러한 방식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하위 족은 서로 흥미로운 수업을 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수업에 함께 관심을 가지기도 하면서 평생교육 참여 범위를 넓혀간다. ‘평생학습족’은 배우는 행위 자체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이 자연스럽다.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의 관심사에 흥미를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함께 수강하도록 다른 학습자에게 권하기도 했다.

인문학을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대여섯 개씩 들으시는 분들 계시고. 미술, 음악, 오페라, 이런 것들. 비슷한 걸 들으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이거 좋던데 이거 들어라, 이렇게 서로 추천도 해주시기도 하고. (기관 담당자 G)

이동혁은 자신이 좋아하는 철학 강의가 수강 신청 인원이 부족해서 폐강될 위기에 처하자 동료 학습자들에게 철학 수업에 등록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수업이 폐강되는 것을 막은 경험이 있다. 기존에 이미 두 번 폐강된 적이 있는 Y 강사의 철학 강좌가 새 학기에도 폐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양문학반에서 만난 동료 학습자들에게 철학 강좌 수강을 권유한 것이다. 이동혁이 속한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양문학반 족’의 학습자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때 “같이 움직이니까”, 자신이 철학 수업에 등록하도록 권유하면 많은 동료 학습자들이 철학 수업에 등록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양문학반 족’에 속하는 학습자들은 인문학을 향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었고, 철학 또한 그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에 선뜻 이동혁의 권유에 따라 함께 철학 수업을 신청했다. 이동혁 뿐만 아니라 박민서도 자신이 듣고 싶었던 수업이 등록 인원이 모자라 폐강할 위기에 처하자 같은 하위 족을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 수업에 등록하도록 청했다.

연구자: 그 분들[친교를 나누는 사람들]께서는 서로의 존재가 여기 잘 나오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나요?

이동혁: 그럼요. 또 하나 (이유가 된다). 왜냐면 같이 움직이니깐. 누가 Y 강사 거 등록 안 했으면 야, 이거 등록해, 그래야지 오픈한대, 그러면 등록해주니까.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개강이) 안 됐지만.

연구자: 내가 뭐 듣고 싶으면 같이 듣자고 하고?

이동혁: 그래서 저번 거 Y 선생님 거, 내가 한번 그 사람들 있으니까 힘을 받아서 Y 선생님 안 한다고 하는 거, 두 번 깨졌으니까 이제 안 한다고 하는 걸 내가 해보자고. 여기 이 사람들 등록 얼마만큼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하니까 그 때는 (등록 인원)이 서른 명 됐을 거예요. 제일 많았어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폐강이 열네 명이 기준인데 네 명밖에 등록을 안 했다는 거야.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 처음에. 그렇게 연락이 와서 막 전화해서 등록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등록해서 이거 숫자를 늘려서 폐강이 안 되게 하려고 했으나 열네 명이라는 숫자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이어서 결국 폐강이 됐는데. (박민서)

한 평생교육 기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평생교육 기관을 돌아다니며 함께 수업을 듣는 하위 족도 있다. 박민서와 심지민은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멤버”들과 다른 기관에서 하는 클래식 음악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 그 전에도 이들 “멤버”들은 연극이나 음악, 미술 등에 관련된 다양한 일일/단기강좌를 함께 수강한 경험이 있었다. 박민서가 프로그램 정보를 얻은 후 권유하자 멤버 다섯 명이 함께 수업을 신청했다. 누군가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알아오면 특별히 수업을 듣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들은 함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정보는 개인이 수집하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하나의 족 단위로 참여하는 것이다.

박민서: 아 참. 우리 ○○센터에서, 거기서 클래식 같은 것도 듣는데, 수업. 클래식 강의, 일주일에 한 번 이 멤버가 가서 하는데.

심지민: 진짜 쇼핑족이야.

박민서: 진짜 쇼핑족이야, 오리지널 쇼핑족.³²⁾

연구자: 이걸 처음에 누가 같이 듣자고 하신 거예요?

박민서: 나.

함께 수업을 듣는 하위 족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수업을 중단할 때에도 집단적으로 행동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프로그램 수업을 중단해야 할 때는 사정이 생긴 개인만 수업을 중단하지만, 불만이 생겨서 프로그램 수업을 중단할 때는 하나의 족으로서 행동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은 하위 족 안에서 논의되면서 처음 불만을 제기한 한 사람의 불만이 아닌 집단의 불만으로 확대 되고, 누구 한 사람의 불만이 아닌 우리의 불만이 됐다. 강의에 한두 명이 불만을 표하면 불만이 집단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하위 족은 수업을 함께 신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수업을 취소했다.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들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단체로 수업을 취소하는 것은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기관 담당자 입장에서는 학습자들이 단체로 수업을 취소할 경우, 등록 인원이 개강을 위한 최소인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개강되었던 강의를 폐강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문화센터의 특징상 그렇게 단독으로 다니는 분들은 많지 않다 보니까 친구 있으니까 더 그렇게 의결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되게 민감하잖아요. 중도에 그냥 취소할게요, 이러면 사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단체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안 들을래요. 그렇게 하는 거지. (기관 담당자 D)

32)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쇼핑을 하듯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학습쇼핑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면담 전 연구자와 박민서, 심지민은 ‘쇼핑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면담 도중 이들은 자신들의 참여 양상이 ‘쇼핑족’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런 기관[대형마트 문화센터] 같은 데에는 팬, 그러니까 학습자가 열 명이 모아서 겨우 개강을 했죠? 그러면 기존 회원들이 새로운,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강사한테 시도했다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그 팬들이 확 나가요. (한꺼번에?) 네. 그런 상황이 되면 강사도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기관도 폐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가장 힘들었어요. 이 당시에는. 엄마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 때문에. (기관 담당자 B)

평생교육 기관 안에서 ‘평생학습족’은 하위 족 수준에서 수많은 선택을 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일련의 학습은 개인 몫이지만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결정하고,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 공유하고, 공유한 불만을 토대로 기관에 항의 또는 요구하거나 수강을 취소하는 일련의 결정 과정이 하위 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3) 기관에 대한 권력 행사

기관에 장기간 등록하여 ‘평생학습족’이 된 연구 참여자들은 한 기관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기관에 권리 의식을 가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개·폐강이나 강사 교체, 강의실 상태와 같이 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평생교육에 장기간 참여하고 기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평생학습족’이 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평생학습족’의 권력은 기관에서 보낸 시간에 근거했다. ‘평생학습족’이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리를 요구하거나 항의를 할 때에 가장 빈번히 언급하는 말은 “내가 여기를 몇 년을 다녔는데”이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문화센터 기관 담당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지점으로 일터를 옮기는 데에 비해 문화센터 회원들은 한 기관에서 오랜 시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기관 담당자들

보다 더 오랜 시간 기관에 다니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평생교육 기관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담당자보다 학습자들이 기관에 더 오랜 시간 다니고 기관을 더 잘 알고 있거나 기관에 더 애정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이 때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기관에 등록하고 프로그램을 수강한 기간은 권력이 됐다. 기관 담당자들은 ‘평생학습족’들이 해당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한 기간을 근거로 “보상”을 원하거나 “그만큼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난처함을 느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어딜 가나 똑같겠지만 오래 들으신 분들은 오래 들으신 보상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여길 이만큼 다녔는데 더 이렇게. 내가 여길 얼마나 다녔는데. 저희한테 섭섭함을 표시를 하셔도, 뭐 하나가 부족했다, 뭐 하나가 없었다, 이러면 내가 여기를 몇 년 다녔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죠. (기관 담당자 F)

연구자: 직장에서 가장 관리나 다루기가 힘들다고 생각되는 학습자 유형이 있으시다면.

기관 담당자 D: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듣고 너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깐깐하게 그거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들. 오래 되고 너무 많이 듣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만큼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학습자가 문화센터의 상급 기관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주요 고객일 경우, 학습자는 문화센터 담당자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인 점장 등에게 직접 항의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관에 다녔던 기간이라는 권력에 더해 상급 기관의 중요한 고객이라는 소비자 권력이 더해진 것이다.

뭐만 하면 점장이라든지 높은 사람이랑 얘기해서. 왜냐하면 고객관리 차원에서 (백화점) VIP 같은 경우는, VIP 회원들은 점장님이랑 2, 3개월에 한 번씩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 나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협박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기관 담당자

E)

프로그램 개·폐강은 기관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다. 강사에게 문제가 있거나, 개강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모집되지 않는 등 프로그램 폐강이 불가피한 경우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폐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프로그램에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평생학습족’들은 기관의 운영 방침에 개입하여 폐강을 막고자 했다.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수강하면서 만들어진 ‘평생학습족’ 하위 족은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의 하위 족과 같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것을 곧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들은 프로그램이 폐강되면서 “우리 선생님”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우리 집단’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럼 보통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언제부터 다녔는데,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희 기관은 오래 다녔지만 선생님과 자기 듣는 수강생들 간의 친목, 교우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부당한 걸 받는다거나 강의실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잘못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을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여기를 몇 년 다녔는데 왜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나, 니네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기관 담당자 E)

‘평생학습족’들은 하위 족 문화를 형성하고 움직이면서 이미 집단은 개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의 구체적인 집단을 이루고 있는 하위 족들은 “우리의 힘”을 보여주어 평생교육 기관이 자신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하기를 바랐다. 학습자 개인이 혼자서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항의하면 기관 담당자와 학습자가 일 대 일 관계에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학습자들이 단체로 항의를 하게 되면 기관 담당자가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하고, 문제가 개인 선에서 끝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에 비해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권력을 가진다.

그 분들이 항의를 할 때도 혼자 와서 항의를 하시면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넘어가는데 그런 분들 특성이 화가 나면 우르르 오세요. 본인들도 아시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힘을 보여주자. 우리가 이래선 안 된다. 이래서 컴플레인을 할 때도 이런 분들이 무서운 게 우르르 오셔가지고 여러 분이 확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런 거죠. (기관 담당자 E)

평생교육 기관에 등록한 초기에는 학습자들이 무언가를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는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습자가 개인에서 ‘평생학습족’으로 질적인 변화를 겪었음을 드러낸다. 기관에 권력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은 기관 출석과 프로그램 참여가 완전히 몸에 익은 후에만 가능하다. 특히, 권력과 권리 행사가 집단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 즉 ‘평생학습족’ 집단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 하위 족은 개인 학습자가 ‘평생학습족’으로 질적으로 변모하는 데에 영향을 주고, ‘평생학습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평생학습족’들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할 장소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반에는 기관 회원 중 누구도 개인 사물함이나 모임 장소를 제공받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이를 감수하는 것이 당연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자들은 기관에서 자신의 편의를 생각해주길 바라게 됐다. ‘평생학습족’으로서 의식이 싹트면서 자신이 평생교육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학습자라는 자각이 생기는 것이다. 솔마트 d지점에서는 미술 수업을 수강하는 하위 족은 “내가 여기에 몇 년을 다녔는데 이런 것도 못 놓고 다니게 하느냐”며 미술 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단체로 요구했다. 기관 담당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강의실 한 쪽에 무단으로 자신들의 작품이나 미술도구 등을 놓고 가기도 했다. 결국 ‘솔마트 d지점 미술반 족’과 평생교육 기관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지만, 학습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프로

그럼 강사가 기관과 학습자 사이를 조율해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서양문학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은 수업이 없는 방학마다 모여 스터디 모임을 가지곤 하는데 이 때 공간을 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이들이 스스로가 이 기관에 장기 등록하고 있는 주요 고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속적으로 기관에 등록하는 학습자들은 기관 담당자의 “재산”³³⁾이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는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 족’에 속하는 ‘서양문학반 족’이 요구하는 바를 최대한 들어주고자 했다. 2017년 상반기에 ‘가온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양문학반 족’은 오전에 서양문학 강의를 수강한 후 오후에 모여 스터디 모임을 가지고자 했는데, 장소를 쉽게 대여해주던 이전 담당자가 퇴사한 후 담당자가 바뀌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이전 담당자는 빌려줬었다”고 말하며 스터디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기도 했다³⁴⁾.

지속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한 기관에 장기간 등록한다는 특징으로 ‘충성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들의 ‘충성’은 사전적 의미처럼 평생교육 기관에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다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이 아닌 지금 이 기관에 장기간 등록한다는 표면적인 현상일 경우가 많다. 오히려 ‘충성 고객’인 학습자들은 기관의 운영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신하-소비자’가 되기보다는 기관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학습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들의 권력 행사는 수직적 위계의 한계 때문에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방식에 의견을 개진하는 데에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 학습자들과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는 상품이 맘에 들지 않으면 구매를 중단하거나 불매하고 다른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단순 소비자의 모습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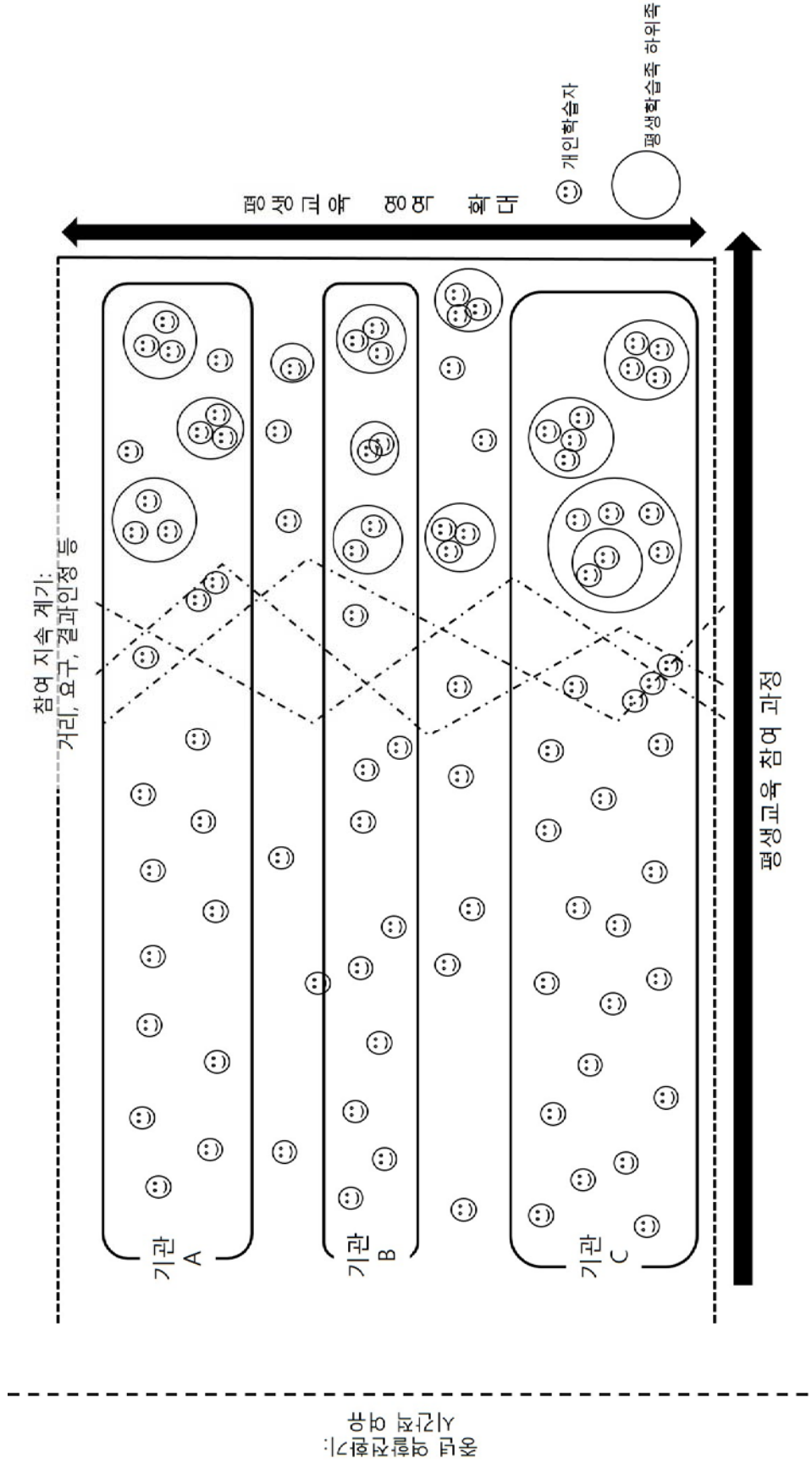
33) 기관 담당자 B 인터뷰

34) 이동혁 인터뷰 중

VI. 논의

1. ‘평생학습족’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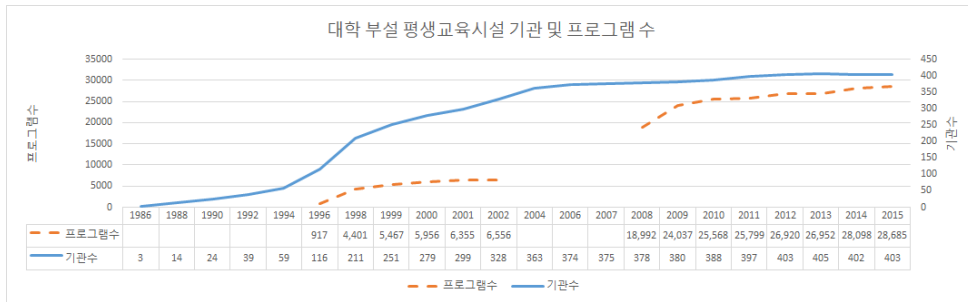
한국 평생교육의 확대와 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반복 참여하는 것이 학습자들이 주요한 교육 참여 방식임을 드러내고, 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 즉 ‘고정학습자’라고 불릴만한 학습자들이 교육 참여 과정에서 보이는 특성을 밝혔다. 이는 평생교육이 실제 학습자들에 의해 팽창하고 유지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평생교육의 확대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완한다. 이 연구는 이들 학습자를 ‘평생학습족’으로 명명하고, 평생교육의 주요 수요자를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평생학습족’이라는 새로운 호명은 평생학습 참여자들을 단순히 재현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현장과 실제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평생학습족’의 등장과 평생교육 참여 양식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평생교육의 구체적인 학습자들의 동향을 드러낸 것이다. ‘평생학습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VI-1]과 같다.



[그림 VI-1] '평생학습죽' 형성 과정

‘평생학습족’은 평생학습자 개인이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적으로 변화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은퇴나 가사 또는 육아 마무리 같은 역할 전환기에 발생한 시간적 여유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다. 직장생활이나 가사, 육아 등 자신의 주요한 역할과 할 일이었던 활동을 다른 일로 전환하는 시기에 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길 가운데 평생교육을 선택한 것이다. 평생교육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었다.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비용은 크게 달라지지만 이들은 적당한 기관을 찾는다면 일정한 비용을 교육 참여에 소비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선택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과거보다 학력수준이 높아진 중산층 서민은 교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데에 부담을 덜 느끼고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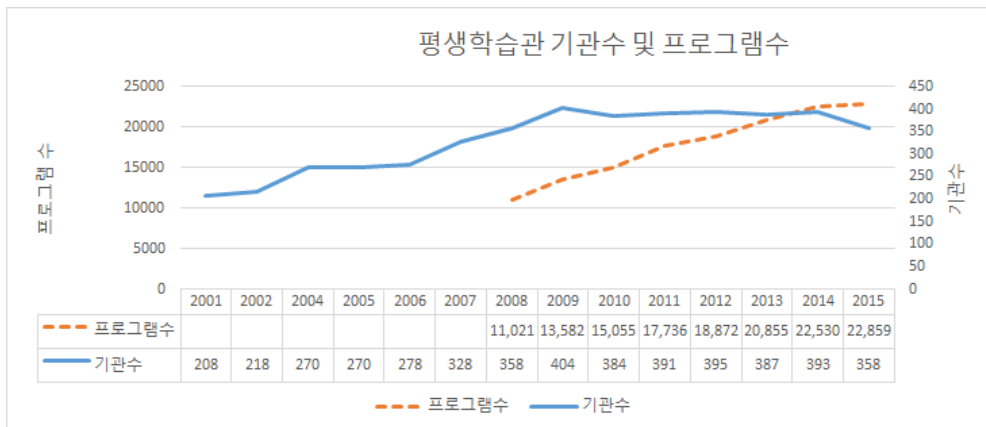
이러한 조건과 더불어 크게 확대된 평생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교육을 역할 전환기에 택할 수 있는 유력한 방식으로 떠오르게 한다. 삶의 전환기에서 평생교육 참여를 택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1990년대 후반 평생교육 공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역할 전환기를 맞는 사람들이 유력한 행위 양식으로 평생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백화점 문화센터나 언론사 부설 문화센터 등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관은 19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완성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팽창하고 포화된 시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이다. 1990년대 후반 급속도로 팽창하여 2000년대 후반 완성 수준에서 안정되는 평생교육 기관 수와 프로그램 수는 이 시기에 급증하는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공급이 사람들에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방증한다.



[그림 VI-2]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기관 및 프로그램 수

자료출처: 1997-2013 평생교육백서, 2008-2015 평생교육 통계자료집

1994년 59개에 불과했던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10년 후인 2004년 363개까지 급증하며 약 여섯 배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후 완만히 상승하여 2000년대 후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수도 기관수가 급증하면서 함께 크게 증가하였고, 2009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안정되고 있다.



[그림 VI-3] 평생학습관 기관 및 프로그램 수

자료출처: 1997-2013 평생교육백서, 2008-2015 평생교육 통계자료집

대표적인 지자체 평생교육 기관인 평생학습관은 1997년 15개로 시범 운행되기 시작

하여 1990년대 후반 집중적으로 성장했다. 평생학습관 수는 1990년대 이후 급증하다가 2009년 404개로 정점을 찍은 후 안정되었다. 기관 수는 안정되었지만 평생학습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그 후에도 크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2008년의 두 배에 달하는 프로그램이 공급되었다. 급증한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 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손쉽게 평생교육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평생학습족’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시 말해, 시간적 여유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 등은 역할 전환기를 맞은 중년 시기에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이 조건들은 평생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확대된 기회와 결합하여 평생교육은 삶과 여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두된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평생학습 기관까지의 거리나 평생학습 기관이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리고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학습 결과에 대한 인정 욕구에 따라 장기간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한다.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평생교육을 생활의 주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주요한 역할을 평생교육 참여로 전환한다. 이렇게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하면서 평생학습자 개인은 ‘평생학습족’이 된다.

평생교육 기관에 반복적으로 등록하고 학습을 지속하는 ‘평생학습족’은 다른 ‘평생학습족’과 집단을 이루면서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과 그 문화를 구성한다. 하위 족을 만들고 나름의 문화를 구성하는 데에는 동료학습자와 맺는 관계, 기관 담당자의 포섭, 평생학습 기관에서의 역할 등이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들과 집단을 형성하면서 기관에 고정적이고 주요한 학습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친목집단, 학습 동아리 등 구체적인 하위 족을 이룸으로써 ‘평생학습족’이 된다.

‘평생학습족’ 호명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질적인 변화를 겪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평생교육 참여 초기에는 개인으로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만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음으로써 ‘평생학습족’이라는 집단을 만든다. 평생학습자가 개인(者)으로부터 집단(族)으로 발전하게 하는 과정은 평생학습자들이 단순히 무리를 이루었음이 아니라

개인학습자가 평생교육 기관의 중추 집단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평생학습자가 평생교육 기관의 단순한 프로그램 소비자가 아닌, 권력을 행사하고 권리를 요구하며 기관 책임을 나누는 존재로 변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족’을 하나의 행위자 집단으로 드러낸 이 연구는 행위자들이 공통으로 보이는 행위 패턴을 통해 새로운 집단을 직접 명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운 집단을 직접 명명하는 연구는 사회적 배경의 변화에 따라 두드러지게 된 특정한 현상을 발견하고, 이 현상을 중심으로 행위자를 집단으로서 호명함으로써 행위자들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평생교육에 참여해 온 학습자들이 1990년대 이후 한국 평생교육의 확장이라는 배경에서 어떻게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 등을 유지해왔는지 밝힘으로써 한국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중추 학습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참여 과정에서 겪는 질적인 변화는 평생교육 기관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참여자’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동질 집단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구획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성이나 계급, 학력 등 다양한 하위 요인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를 구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하위 요인에 따른 구분과는 달리, ‘평생학습족’의 발견은 평생교육 참여 과정에서 겪는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학습자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평생학습족’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 연구 대상의 새로운 구획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평생교육 학습자 집단에 대한 시각

평생교육 참여 양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 학습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Houle(1961)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 연구를 위시하여 많은 연구들이 성인학습자 개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동기를 밝혀내고자 했다. 대다수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 연구들은 Houle(1961)이 밝힌 목적지향적(goal-oriented), 활동지향적(activity-oriented), 학습지향적

(learning-oriented) 동기를 통계적으로 실증하거나 세분화하는 데에 그친다(e.g. Sheffield, 1962, 1964; Burgess, 1971; Boshier, 1971, 1976; Morstain & Smart; 최운실, 1986; 이숙원, 2003). 평생교육 참여 결정이나 지속에 관한 연구들도 학습자 개인이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거나 교육 참여를 지속 또는 중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거나 개인 학습자의 참여 과정 모델을 구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e.g. Miller, 1967; Boshier, 1973; Rubenson, 1977; Cross, 1981; Darkenwald & Merriam, 1982; 권두승 · 이정아, 1999; 정지선, 1999; 최돈민 외, 2006; 손준중, 2004; 전해숙, 2009; 최돈민 외, 2004; 최운실, 2006; 한승희 외, 2007).

평생교육 참여자를 개인으로 두고 참여 동기나 조건 등을 밝히는 연구는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조건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평생교육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집단’의 효과를 드러내지 못한다. 이 연구는 ‘평생학습족’을 평생교육의 주요 참여자로 대두시키고 평생교육 참여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핵심이 되는 학습자들을 집단으로 이해함으로써 개인 학습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평생교육 참여 양상 연구를 보완한다.

평생교육 참여 과정에서 구성되는 동질 집단은 그 자체로 하위 족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평생학습족’이 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실상 학습자들이 등록하는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에 따라 동질적인 성격은 사전에 구분된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는 학력이 높은 중장년층 학습자가 많고, 수준이 높고 전문적인 수업들이 주로 개설된다. 수업비 또한 비싼 편이다. 백화점 문화센터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중장년층 여성 학습자가 많고, 취미교양 수업이 많이 개설된다. 더불어 백화점이 지닌 고급 쇼핑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문화센터 참여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반면 주거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마트 문화센터에는 영·유아와 젊은 부모가 많고, 성인학습자도 백화점 문화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편이다. 즉, 평생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성향이 비슷한 집단을 찾는 과정이다. 배수옥(2005)은 중산층 주부들의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에 관한 연구에서 중산층 주부들이 백화점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소비하고 그를 중심으로 중산층 문화를 형성하고 강화한다

는 사실을 밝혀냈다. 백화점 문화센터 뿐 아니라 많은 평생교육 기관은 학습자들이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하는 데에 일조한다. 학습자가 선택하는 프로그램도 학습자들의 동질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힌트이다. 어학이나 인문학을 택하는지, 또는 노래교실이나 댄스교실과 같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강좌를 택하는지에 따라 학습자들의 성향이 다를 것이다. 학습자들은 기관과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이미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학습자 집단에 속할 조건을 갖춘다.

이 때, ‘학습자 집단’은 시각에 따라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학습자 집단 내부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 담당자의 관점이다.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들은 보통 수업, 친목 집단, 학습동아리 등 경계가 분명한 집단을 학습자 집단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집단에 속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된다. 같은 수업을 듣거나 성향이나 취향이 비슷하다는 특정한 동질성을 중심으로 친목이 발생하고 집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집단적인 ‘우리’를 만들어 내는 학습자 집단은 많은 경우 자생적으로 발생한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참여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집단을 이루면서 학습자 집단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한다. 프로그램 선택과 신청, 중단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습자들은 집단 안에서 친목을 나누며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결과적으로 학습자 집단은 개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개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집단을 ‘평생 학습족’의 하위 족으로 명명하였다. 자생적이고 경계가 뚜렷한 편인 학습자 집단들은 집단에 속한 평생교육 참여자들이 ‘평생학습족’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며, ‘평생 학습족’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 집단을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으로 명명하는 것이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들을 특정한 이름으로 호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학습자 스스로의 관점에서 학습자 집단은 ‘친한 사람들’일 뿐이다. 학습자 집단 내부 입장에서 보면 학습자 집단은 자신들이 속한 특정한 수업, 친목 집단, 학습동아리 등 평생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일 뿐 평생교육 기관의 유지 및 발전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전술하였듯 자생적인 친목 집단들에 속한 학습자들은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으로, 평생교육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친한 사람들끼리 같은 수업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폐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강 신청 인원이 모자란 프로그램에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이 단체로 등록하여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단체로 수강을 취소해서 개강이 결정되었던 프로그램이 돌연 폐강되기도 한다. 신규 학습자와 학습자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학습자 집단, 즉 ‘평생학습족’ 하위 족이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이 새로운 학습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새로운 학습자가 기존 집단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신규학습자는 기관 학습자로 나아갈 기회를 잃게 된다. 즉, 신규 학습자가 ‘평생학습족’으로 변화하여 고정적인 평생학습 수요자로 발전할 기회를 한 번 놓치는 것이다. 학습자 집단에서 발생하는 학습자 간 갈등 문제는 기관 담당자가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관 차원의 문제가 된다.

기관 담당자의 관점에서 학습자 집단은 수업, 친목집단과 같은 소그룹에 그치지 않고 기관 전체 수준에서 ‘적극적인 학습자 전체’에 닿아있다. 평생교육 기관에 등록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많은 학습자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반복해서 등록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충성 고객’이나 ‘고정학습자’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러한 호칭은 이러한 학습자가 ‘기관의 학습자’로서 하나의 집단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정학습자’는 평생교육 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학습자라고 할 수 있는데, 기관의 핵심적인 학습자라는 동질성을 중심으로 기관 담당자에게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즉, 기관 담당자의 시각에서 학습자 집단은 ‘이 기관의 충성고객/고정학습자/중추학습자’으로 인식되고, 이는 이 연구에서 말하는 ‘평생학습족’과 유사하다.

기관 담당자는 자생적인 학습자 집단에 속하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을 넘어 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기관에서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한 집단에 속하여 하위 족 문화를 형성한 이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하위 족에 속한 학습자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관리된다. 또한 기관 담

당자는 기관의 고정학습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구체적인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습자들을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게 하거나 기관에서 ‘일’을 도맡는 활동가가 되게끔 하면서 구체적인 집단으로 소속시키거나 해당 기관의 학습자로 바로 편입시키기도 한다.

기관 담당자의 이러한 학습자 관리는 기관의 중추 학습자들을 기관의 이름을 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A기관의 학습자’라는 집단은 기관 담당자가 관리하는 ‘평생학습족’의 더 큰 하위 족이다. 기관 담당자들이 평생교육 기관에 ‘충성 고객’이나 ‘고정학습자’층이 있음을 알고 이러한 방식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을 나름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왔음을 상기한다면, 기관 담당자들은 이미 평생교육 현장에 ‘평생학습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는 그저 수동적으로 ‘관리 당하는’ 대상이 아니다. 기관 담당자와 학습자들과 관계를 맺고 관리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역학이 작용한다. 기관 담당자가 학습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관 담당자와 학습자 간 권력이 시시때때로 달라진다. 기관 담당자는 기관에 머무르는 ‘평생학습족’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들에게 다른 학습자들에게보다 더 많은 호의를 베푼다. 행사 사은품을 더 챙겨주거나, 심지어 프로그램 접수처럼 민감한 사안에서 특권을 주기도 한다. ‘평생학습족’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에 이들은 기관 담당자의 ‘부탁’을 잘 들어준다. ‘평생학습족’들은 기관 담당자의 권유를 따라 신설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평생교육 축제에서 공연을 하거나 부스를 열기도 한다.

기관 담당자와 학습자가 갈등하는 경우도 있다. 학습자들은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기관 담당자에게 항의한다. 기관에 다녔던 기간은 ‘평생학습족’들이 가진 막강한 힘이다. 이들은 “내가 여기에 몇 년을 다녔는데” 라는 말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한 기관에 다녔던 기간에 상응하는 대접을 요구하는 것이다. 더불어 하나의 ‘평생학습족’ 하위 족의 집단적인 항의는 개인의 항의보다 기관 담당자가 더 해결하기 어렵고, 여러 사람의 불만인 만큼 개인의 불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

다는 점에서 집단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준다.

기관 담당자와 학습자 사이에 다른 요소들이 개입하면서 권력 관계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부설 문화센터 학습자들은 문화센터 회원인 동시에 상위 기관인 사업장의 소비자이다. ‘평생학습족’인 학습자가 이에 더불어 사업장의 중요한 고객인 경우, 권력은 학습자 쪽으로 더 크게 쏠리게 된다. 문화센터에 불만을 품고 중요 고객이 떠나게 되면 사업장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자들이 문화센터에서 품게 된 불만을 문화센터 담당자보다 더 높은 직위의 점장 등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자 권력이 기관 담당자의 할 일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관 담당자를 난처하게 한다.

‘학습자 집단’은 학습자 집단 내부의 관점으로 볼 때와 기관 담당자 관점에서 볼 때 규모나 역할 등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된다. 학습자 스스로의 시각으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은 교육에 참여하면서 만난 친한 친구들,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이다. 스스로의 인식으로는 이들은 평생교육 기관을 유지하는 중추학습자가 아니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목 집단인 것이다. 즉, 학습자 스스로의 관점에서 ‘평생학습족’으로서의 정체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 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학습자 집단은 기관 운영의 핵심이다. 학습자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은 평생교육 기관에 장기간 등록하고 기관에 일손을 보태기도 하면서 보다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학습자 집단, ‘이 기관’의 학습자 집단으로 거듭난다. 기관 담당자는 특정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기관의 핵심적인 학습자들임을 인지하고, 이들을 하나의 구체적인 집단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동시에 더 큰 범주인 ‘특정 기관의 학습자’로 다시 집단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기관 담당자가 ‘평생학습족’인 학습자와 아닌 학습자를 구분 짓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단순히 관리되기보다는 기관 담당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역할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평생교육 현장에서 기관 담당자가 실제적인 학습자 집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다. 현재 평생학습 기관 담당자가 ‘평생학습족’ 하위 족을 관리하는 시각은 ‘평생학습족’들을 기관에 소속된 학습자로 보고 ‘동원할 수 있는 조력자’나 ‘기관 운영에 간섭하는 성가신 무리’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기관 담당자가 ‘평생학습족’을 대할 때에 기댈 수 있는 뚜렷한 관점이 있어야만 기관 담당자는 학습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평생학습족’과 학습자들의 자생적인 소집단, 그리고 기관 담당자가 관리하고자 하는 ‘A기관의 중추학습자’ 집단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기관 담당자들은 평생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있어 학습자를 어떻게 참여시켜야 할지 생각하고 학습자들에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방향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VII.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 가운데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국 평생교육의 중추를 이루는 학습자 집단을 ‘평생학습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명명하고, ‘평생학습족’이 형성되는 계기와 과정, 그리고 ‘평생학습족’으로서 보이는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학습자 및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면담자료를 분석하여 ‘평생학습족’의 형성 과정과 평생교육 참여 특성을 규명했다.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비슷한 조건을 공유했다. 대부분 중년 시기에 은퇴나 육아 마무리 등 역할 전환기를 겪으며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때 직장에서 은퇴한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생활을 대체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녀가 성장하여 육아를 마무리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들이 한 기관에서 평생교육을 지속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평생교육 기관의 접근성과 평생교육 기관과 요구의 일치 정도였다. 평생교육 기관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평생교육을 지속하기로 결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거지에서 먼 평생교육 기관에 다니더라도 귀가 시간에 압박을 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절대적인 거리가 멀더라도 연구 참여자들이 거리에 대해 부담을 훨씬 적게 느꼈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불어 해당 평생교육 기관이 자신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평생교육 기관이 지닌 명성이나 이미지,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유형 등 특성이 연구 참여자들이 사전에 가진 요구 정도와 일치할 때 해당 평생교육 기관에서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했다. 또한 평생교육

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 참여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평생교육 참여 결과를 활용하여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가 많았는데, 이들이 그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풋’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했다. 우선 하나의 평생교육 기관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등록하면서 평생교육 기관을 자신의 정규 출입처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한 기관에 여러 번 재등록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마치 출근이나 등교를 하듯 평생교육 기관에 다녔다. 이들은 한꺼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평생교육 기관 시간표를 중심으로 자신의 시간을 관리했다. 평생교육 기관에 나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활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개의 평생교육 기관에 적(籍)을 두기보다는 하나의 기관에 소속되고자 했다. 한 기관에 소속된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를 활용했다. 기관에 다닌 기간이 긴만큼 기관 담당자와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정보를 제공받기도 했다.

또한 한 강사의 수업을 반복해서 수강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한 강사의 팬이 되어 같은 강사의 수업을 여러 번 등록하며, 심지어 강사가 다른 평생교육 기관으로 옮기는 경우 이 강사를 따라서 등록하는 기관을 바꾸기도 했다. 강사의 팬인 학습자들이 많을 경우 이들이 항상 프로그램 수요를 일정 수준 이상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들은 프로그램이 장수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복적으로 수강하는 학습자가 많은 프로그램인 경우 강사는 강좌에서 다루는 콘텐츠를 바꾸어 이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팬 층이 두터운 프로그램인 경우 학습자들이 크게 항의하거나 심지어 평생교육 기관을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는 해당 프로그램 폐강을 결정하거나 담당 강사를 교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일일/단기강좌에 열렬히 참석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평생교육 기관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일일/단기강좌를 수강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지만, 일일/단기강좌를 주요한 평생교육 참여 방식으로 두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일일/단기강좌는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 부담도 적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일일/단기강좌를 주력으로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일일/단기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보다는 일일/단기강좌가 개설되는 것 자체에 영향을 받고,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와 무관하게 교육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 정보보다는 강좌 개설 정보에 노출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일/단기강좌에 참여하면서 일일/단기강좌를 개설하는 기관들을 알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면서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도 했다.

자격증 취득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평생교육을 지속하는 주된 방식이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지만, 다니고 있던 기관에서 자격증대비반을 운영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다종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했다. 하지만 전자가 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평생교육 기관을 옮기는 데에 비해, 후자는 지속적으로 같은 평생교육 기관에 등록한다는 차이가 있다. 자격증 취득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목적인 경우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평생교육 참여 자체를 그만두지는 않았다.

평생교육 참여를 지속하는 학습자들은 ‘평생학습족’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들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집단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단은 서로가 서로를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묶어주고, 더욱 안정적으로 평생교육 기관에 소속될 수 있게 한다. 학습자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은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의 관리대상이기도 한데, 기관 담당자가 ‘관리’하는 학습자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묶이게 된다. 즉, 학습자 집단은 학습자 간 친목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등으로 만들어지는 규모가 작고 경계가 뚜렷한 집단일 수도 있으나, 기관 관리자가 학습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범위가

큰 집단일 수도 있다. 기관 관리자가 관리해야 할 ‘고정 학습자’들로 보는 학습자 집단은 이 연구가 말하는 ‘평생학습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자생적이고 규모가 작은 집단들이 이 ‘고정학습자’ 집단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습자들은 수업 외에 식사를 함께 하거나 차를 함께 마시는 등 수업 외 활동을 함께 하며 친목을 쌓았다. 수업 외에도 여러 활동을 함께 하면서 학습자들은 하나의 집단이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집단의 인력으로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기관에 정을 붙이면서 스스로 평생교육 기관의 학습자라는 생각이 강해진다. 특히 수업 후에 함께 하는 식사는 정례화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함께 식사를 하는 것까지가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할 일이 되면서 학습자들이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향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 ‘평생학습족’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성향이나 취향은 주관적이고 까다로운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나 취향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학습자들은 단순히 수업으로 만난 학습자들에 비해 훨씬 견고한 집단을 형성했다. 심지어 성향이나 취향이 맞지 않는 경우 집단을 이탈하기 위해 한 평생교육 기관에서의 학습을 완전히 그만두기도 했다. 이들은 함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평생학습족’이 된다. 성향이나 취향이 비슷한 집단을 구성하면서 ‘평생학습족’이 된 집단구성원들은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람들이 경험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향 및 취향이 구축되는 데에 그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교를 나누는 방식으로 ‘평생학습족’이 되는 데에 더해, 기관 담당자가 학습자들이 집단을 이루고 ‘평생학습족’으로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관 담당자는 기관 학습자와 친근한 관계를 맺으며 학습자들이 기관에 익숙함과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친근한 관계가 된 학습자들은 기관 담당자가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 기관 담당자들은 이들에게 새로 개설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하거나, 기관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라고 부탁할 수 있다. 이들은 기관 담당자와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특정 기관에 소속되고 ‘평생학습족’이 되어 평생교육에 참여한다. 또한 기관 담당자들은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학습동아리를 만들도록 지원했다.

학습자들은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램 수강이 끝나더라도 학습동아리 회원으로 기관에 지속적으로 출석했다. 학습동아리 활동이 학습자들을 ‘평생학습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또한 학습동아리 회원들과 기관에 지속적으로 얼굴을 비치는 학습자들은 기관 담당자를 도와줄 수 있는 고정적인 일손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평생교육 기관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에 전시나 공연을 하거나, 기관의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손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기관에 소속감을 더 크게 느끼고 기관에 대해 책임감마저 가진다. 기관의 활동가로 변모하면서 ‘평생학습족’이 되는 것이다.

‘평생학습족’이 된 학습자들은 자신이 이루고 있는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 문화를 구성하고 유지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학습자와 마찰을 빚기도 하고, 신규 학습자를 집단에 받아들여 규모를 확장하고 새로운 ‘평생학습족’을 만들기도 한다. 평생학습 기관은 이들 하위 족이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데 하위 족에 신규 학습자가 유입되는 경우 새로운 고정 학습자를 얻는 반면, 신규 학습자가 배척되게 되면 새로운 학습자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평생학습족’의 하위 족들은 집단 단위로 평생교육에 참여한다. 수강했던 프로그램을 반복 수강하거나 참여할 프로그램을 고르거나 새로운 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이 집단 단위로 내려진다. 이들은 평생교육 참여를 집단으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평생교육 참여 중단도 집단으로 결정한다. 집단 내에서 불만을 공유하면서 ‘나’의 불만이 ‘우리’의 불만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프로그램 수강을 중단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 경우 평생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학습족’ 하위 족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평생학습족’ 하위 족이 한 수업의 팬일 경우 해당 수업은 ‘장수’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들이 한꺼번에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설을 위한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자칫하면 개설했던 프로그램을 폐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평생학습족’은 평생교육 기관에 권력을 행사한다. ‘평생학습족’이 기관 담당자의 관리대상이라고 해도 이들의 관계에는 다양한 역학이 작동한다. “내가 여기

를 몇 년을 다녔는데.”, 즉 평생교육에 참여해 온 기간이 ‘평생학습족’이 권리를 주장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근거이다. 더불어 평생교육 기관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사업장의 부설시설인 경우 ‘평생학습족’이 상급기관의 주요 회원일 가능성이 있다. 상급기관이 학습자와 기관 담당자 사이에 개입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평생학습족’ 하위 측은 개인이 아닌 집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관 담당자보다 권력이 더 크다. 이들은 항의를 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할 때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기관 담당자를 만난다. 이 경우 기관 담당자는 집단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2. 제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이 연구는 주 연구 참여자와 보조 연구 참여자를 합하여 17명과 실시한 면담 자료만을 활용했다. 통계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평생학습족’의 구체적인 규모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 연구 참여자인 학습자들 가운데 일일/단기강좌에 주로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가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보다 월등하게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단기강좌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평생교육 참여 양상이나 이들이 ‘평생학습족’으로 형성되는 과정 등이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 비해 미비하게 다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보조 연구 참여자로 참여한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 중 대다수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기관 담당자들의 시각을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기관의 주요한 학습자를 연구하는 데에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대형마트 문화센터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이들이 주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인데, 이 연구는 대상을 성인 학습자로 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주 수요자 층을 포괄적으로 개괄하는 데에 부족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를 볼 때 첫째, 평생교육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참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양적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평생교육 참여자들이 평생교육 참여 지속과정에서 새로운 집단을 구성한다는 점과 집단을 구성하면서 보이게 되는 특징을 밝혀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들의 보다 구체적인 특성을 드러낸다는 의의가 있다. 이에 더불어 양적 지표를 통해 이러한 학습자들의 규모가 평생교육 현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평생학습족’에 관한 연구가 크게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 지표는 평생교육 현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평생학습족’의 규모를 가늠하게 해줌으로써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 참여자를 이해하는 데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양적 지표를 활용한 연구와 더불어 1997년 이후 실시되었던 평생교육 정책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평생학습족’의 등장을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1997년 이후 평생교육 공급 영역이 크게 확장되었음을 그간의 양적 자료로 드러내고, 공급 영역이 팽창하는 만큼 확대되지 않은 평생교육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확장된 공급을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한 평생학습 수요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이에 평생교육 수요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 및 조건과 평생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 있다면 평생교육 참여자에 관한 보다 보완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일일/단기강좌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평생교육 참여 양상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평생교육 기관의 정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한다. 일일/단기강좌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만큼 기관에서 관리되지 않으며, 이들이 구체적인 경계가 없이 움직이는 학습자들인 만큼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일일/단기강좌에 참여하는 학습자들 중 일부는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만큼이나 고정적인 학습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 학습자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만큼 일일/단기강좌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참여 양상과 이들이 ‘평생학습족’으로 드러나는 과정 등을 연구하여 평생교육 참여자 연구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생교육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유아 학습자들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영·유아 학습자와 부모는 대형마트 문화센터의 주요한 수요자로, 특히 대형마트 문화센터 회원의 다수를 차지한다. 영·유아 학습자들 사이에서 소위 ‘문센’이라고 불리는 문화센터는 영·유아 학습자와 부모의 교육 참여와 사회활동에 거의 필수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유아 학습자와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으며, 문화센터 인터넷 접수일이 되면 대형마트 문화센터 홈페이지들이 대형 포털 상위 검색어에 노출될 정도이다.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에서 영·유아 학습자는 성인학습자와는 달리 성장 및 발달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때문에 성인학습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만, 영·유아 학습자들과 부모에게도 문화센터가 사교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집단적으로 평생교육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다. 이는 영·유아 학습자가 성인학습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평생학습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영·유아 학습자와 부모에 관한 연구를 후속하여 영·유아 학습자와 부모가 평생교육 기관의 ‘주요 고객’으로 부상하는 양상을 성인학습자가 ‘평생학습족’으로 대두되는 모습을 비교대조하여 평생교육 현장에 참여하는 주요 수요자의 구체적인 양상과 동향에 관한 연구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삼근 · 이숙원(2003). 평생교육 참여결정이론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34(3). 87-113.
- 곽영순(2009). **질적연구: 철학과 예술 그리고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 교육부(1997). **1997 평생교육백서**.
- 교육부(1998). **1998 평생교육백서**.
- 교육부(1999). **1999 평생교육백서**.
- 교육부(2000). **2000 평생교육백서**.
-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교육인적자원부(2002).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 교육인적자원부(2007).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2001). **2001 평생교육백서**.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2002). **2002 평생교육백서**.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2004). **2004 평생교육백서**.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2006). **2006 평생교육백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1 · 2012 평생교육백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a). **2013 평생교육백서**.
- 권두승 · 조아미(1999). **성인학습 및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 권인탁(2014).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광역수준 지역평생교육체제화의 분석과 발전과제. **교육종합연구**, 12(1). 129-157.
- 기영화(2007).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노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요인 정립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8(3). 89-109.
- 김인숙(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김한별(2007). 마케팅 개념에 의한 평생교육 참여현상의 이해. **Andragogy Today**, 10(3). 87-109.
- 류연미(2014).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태영 · 김선희 · 유진희 · 안현아(2012). 이혼위기에 있는 부부에 대한 가족치료 다중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1). 23-56.
- 배수옥(2005). 중산층 전업주부들의 학업공간으로서 백화점 문화센터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수옥(2006). **여성평생교육에 관한 교육인류학리포트**. 이담.
- 손준중(2004). 성인학습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결정요인 분석 -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0(2). 109-128.
- 송호근(2013). **시민의 탄생**. 서울: 민음사.
- 유기웅 · 정종원 · 김영석 · 김한별(201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육영수(2010). **책과 독서의 문화사**. 서울: 책세상.

- 윤창국(2013). 평생교육연구에 있어서의 질적연구방법 선택 기준 정립에 대한 소고. **평생교육학연구**, 19(4). 1-26.
- 이기환(2003).平生教育學習者의 參與動機와 滿足度 : 官公署의 平生教育을 中心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호 · 최은수(2009). 한국의 평생교육 정책과정 추이(推移) 분석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 HRD 연구**, 5(3). 221-246.
- 이숙원(2003).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성인학습자의 참여지속 결정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미(2009). 필립 아리에스의 아동가족사 연구에 대한 고찰 -로렌스 스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1(2). 120-149.
- 이정민(2012). 대학 수업에서의 토의법 질적 다중 사례 분석. **교육방법연구**, 24(2). 447-475.
- 이현서(2015). 제도적 환경변화에 대한 고등학교 조직의 반응과 전략: 혁신학교 및 마이스터고 사례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언 · 최동선 · 오은진(2005). 한국의 성인직업 기초능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미옥(2007). 성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유형에 관한 Q방법론적 연구. **Andragogy Today**, 10(1). 1-36.
- 전혜숙(2009). 경제활동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참여 요인 분석. **Andragogy Today**, 12(1). 57-77.
- 정지선 · 차갑부 · 진현중(1999). 성인교육 참여율과 성인교육 비용 분석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원.
- 주희정(2012).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한겨레교육문화센터의 변천과정과 특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돈민 · 신건호 · 유제민(2006). CRM을 통한 평생학습 참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종합연구**, 4(2). 131-161.
- 최돈민 · 이세정 · 김세화(2008).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4(4). 29-55.
- 최돈민 · 윤여각 · 이희수(1999). 평생교육요구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최선주(2015). 80대 엘리트 노인학습자의 학습생활 특징과 구조. **2015년 한국평생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집**. 357-378.
- 최운실(1986). 성인교육유형에 따른 교육참여 특성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운실 · 김현철 · 변종임(2005). 평생교육 참여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운실(2006). 한국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특성 및 관련 요인 분석. **평생학습사회**, 2(1). 1-35.
- 평생교육진흥원(2008). **2008 평생교육백서**.
- 평생교육진흥원(2009). **2009 평생교육백서**.
- 평생교육진흥원(2010). **2010 평생교육백서**.
- 한국교육개발원(2009). **2008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2010). **200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0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1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4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5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한승희 · 신태수 · 양은아(2007). 평생학습참여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학습자배
 경, 학습패턴 및 자기보고 핵심역량이 평생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
 학연구**, 13(2). 98-118.
 한승희 · 양은아 · 이재열(2011).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패턴 분석:
 2008-2010 평생교육통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7(4). 83-119.
 홍숙희(2010). 평생교육기반으로서의 지역사회교육 논의의 역사적 변천 과정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6(1). 25-62.

Ariès, P. (2003). **아동의 탄생**. 문지영 옮김. 서울: 새물결. (원서출판 1973).
 Benn, R.(1997). Participation in Adult Education: Breaking Boundaries or Deepening
 inequality?. Proceedings of the 27th Annual SCUTRA Conference.
 Boshier, R.(1971). Motivational Orientations of Adult Education articipants: A Factor
 Analytic Exploration of Houle's Typology. *Adult Education Journal*, 11(2). 3-26.
 Boshier, R.(1973). Educational Participation and Dropout: A Theoretical Model. *Adult
 Education*, 13(4). 255-282.
 Boshier, R. & Collins, J. B.(1985). The Houle Typology after Twenty-two Years: A
 Larger-scale Empirical Test. *Adult Education Quarterly*, 35(3). 113-130.
 Burgess, P.(1971). Reasons for Adult Participation in Group Educational Activities.
Adult Education, 12(1). 3-29.
 Creswell, J. W.(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 California: Sage.
 Cross, K. P.(1981). *Adults as Learners*. San Francisco: Jossey-Bass.
 Darkenwald, G. G. & Merriam, S. B.(1982). *Adult Education: Foundations of Practice*.
 New York: Harper & Row.
 Elmore, R. F., Abelman, C. H., & Furhman, S. H.(1997). The New Accountability in
 State Education Reform: From Process to Performance. In H. F. Ladd(Ed.), *Holding
 Schools Accountable*, 65-98. Washington, DC: Brooking Institution.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s*. London: Routledge.
 Foucault, M. (2003). **광기의 역사**. 이규현 옮김. 서울: 나남. (원서출판 1972).
 Foucault, M. (2006). **임상의학의 탄생**. 홍성민 옮김. 서울: 이매진. (원서출판
 1963).
 Glesne, C. (2010). **질적 연구자 되기**(제3판). 안혜준 옮김.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서출판 2005).

- Houle, C. O. (1961). *The Inquiring Min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Kindlon, D. J. (2007). **알파결**. 최정숙 옮김. 서울: 미래의 창. (원서출판 2006)
- MacKinnon-Slaney, F.(1994). The Adult Persistence in Learning Model: A Road Map to Counseling Services for Adult Learners, *Th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268-275.
- Merriam, S. B.(2005). **정성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 강윤수 외 옮김. 서울: 교우사. (원서출판 1998).
- Miller, H. L.(1967). *Participation of adults in Education: A Force Field Analysis*. Boston: Center for the Study of Liberal Education for Adults, Boston University.
- Morstein, B. R. & Smart, J. C.(1974). Reasons for Participation in Adult Education Courses: A Multivariate Analysis of Group Differences. *Adult Education*, 24(2), 83-98.
- Parker, M. (2011). *The Science of Qualitative Resear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ldaña, J. (2009).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Thousand Oaks. California : Sage.
- Seidman, I. (2015).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박혜준 · 이승연 옮김. 학지사.
- Thompson, D.(1992). Beyond Motivation: A Model of Registered Nurses' Participation and Persistence in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Adult Education Quarterly*, 42(2). 94-105.
- Yin, R. K.(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5th ed.)*. California: Sage.
- 永嶺重敏. (2010). **독서국민의 탄생**. 다지마 테쓰오 · 송태욱 옮김. 서울: 푸른역사. (원서출판 2004).
- 강대중(2010년 6월). 민과 관이 협력하여 배움이 꽃피는 마포, **시민교육** 2호, 8-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형래(2014년 12월 3일). 시니어 교육 쇼핑족, 환영합니다. 조선일보.(http://newsplu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3/2014120301474.html)
- 박재원(2013년 3월 11일). 당신도 혹시 ‘부모교육 쇼핑족’ 아닌가요?.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77450.html#csidx5b02362924b17f28e9c24544d9ee2b0>)
- 홍은진(2016년 6월 27일). 평생학습도시 10년의 구미, 이제는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이 아니라 시민에 의한 평생학습으로. 경북문화신문. (http://www.gminews.net/default/article_print.htm?part_idx=267&idx=31576)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s://www.cb.or.kr/creditbank/>)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Features of 'Lifelong Learning Tribe' in the Field of Korean Lifelong Education

Lee, Kyunglim

Major in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mid-1990s, because of the enactment of relevant laws and policies, lifelong education began gaining popularity. Many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the number of which stabilized after the late 2000s. The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rate increased from 29.8% in 2007 to 40.6% in 2015. This change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in Korea has been attributed to the implementation of related policies. However, inadequat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learners who are real participants and actors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For better understanding,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expansion of lifelong education by focusing on the lifelong education learn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hange and expansion of Korean lifelong

education after the mid-1990s by researching “lifelong learning tribes.” This study names the main participants of lifelo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 tribes.”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by which a lifelong learner as an individual becomes a member of a “lifelong learning tribe,” and examines how he/she participates and acts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thus leading to better comprehension of the main actors of Korean lifelong education. Most previous researches on the participation of lifelong learners dealt with the orientations of participation, and the factors influencing learners to participate in, continue, or drop out of lifelong education. These previous researches presuppose the learners as individuals, but this study understands the learners to be a group by grasping their common behavior patterns. This study explains the expansion of Korean lifelong education by examining groups of learners known as “lifelong learning tribes.”

The main questions of this study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lifelong education participants of “lifelong learning tribes” and the formation of “lifelong learning tribes.” The study utilized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conduct the research, and the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ing lifelong education participants and lifelong educator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The ways that “lifelong learning tribes”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were categorized into 4 types. First, some learners registered at a particular institution regularly and repeatedly. Second, some learners became big fans of certain instructors, and they took a his/her classes over and over again. Third, some learners participated in special lectures which were one-day classes or short-period programs. Fourth, some learners took diverse classes to receive different kinds of certificates. Participants of the first and second types are easily understood as a group because they take the institutions’ regular programs, but the third and fourth types are barely understood as a

group as they always move from one institution or program to another. However, the lifelong educators who were interviewed said that so many learners took all of the special lectures offered, and they did not stop attending even if one special lecture was over or they had received their certificate. Thus, the third and fourth types of participants can also be understood as groups of learners wh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consistently.

Lifelong learners become members of a “lifelong learning tribe” as they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continuously. They bond and develop a sense of belonging with other members of the same group as they share fellowship. Thus, participating in lifelong learning is an opportunity to form a particular group and become a member of a “lifelong learning tribe” in which one can meet others and have lunch or tea after class is over. Especially, having lunch together after class usually becomes a routine, and the learners viewed having lunch together as something they should do when they come to the institutions to take the programs. This belief helps the group to be stable. Also, being friends with those who share similar tastes is another way to form a group and belong to a “lifelong learning tribe.” One’s taste is so subjective and intricate that a group whose members gather because they share the same tastes becomes a relatively small and solid group. Moreover, those who do not have similar tastes may try to move to another institution to escape from that group. In the groups whose members meet together when they take the same class or because they share similar tastes, the learners became members of a “lifelong learning tribe” who are bonded to an institution or group.

Lifelong education participants also become members of “lifelong learning tribes” through the management of lifelong educators. Lifelong educators induce learners to form groups and become members of “lifelong learning tribes” so that learners are

likely to continue their learning at the same institutio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lifelong educators and learners is one of the reasons that the learners feel a sense of affinity with a particular institution. Lifelong educators encourage learners to form learning clubs after the program is over. A learning club is another factor that encourages learners to continue attending an institution even if the program has ended. In a learning club, learners go beyond being classmates and become friends; therefore the learning club becomes an intimate group whose members are able to form close connections with each other. Moreover, the learners may also take on a sort of staff role at the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when they help out at various events held by the institutions. By fulfilling this role, the learners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belonging. Their close relationship with lifelong educators, their membership in a learning club, and their contributions during events held by the institution all lead the learners to become “key members” of a particular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in addition to being a member of a ‘lifelong learning tribe.’ The learners make their own field where they can act as important members at their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The above-mentioned learner groups are subgroups of a “lifelong learning tribe.” Each subgroup tries to maintain its group identity with its own set of particular rules and atmosphere. In the process of devising and maintaining rules and setting the atmosphere of a group, the group members sometimes come into conflict with new participants who do not adapt, and this is an obstacle that hinders new learners to become members of a “lifelong learning tribe.” On the other hand, learner groups accept new participants who do not threaten their group identity, and this helps new learners to be a part of a “lifelong learning tribe.’

Members of subgroups of a “lifelong learning tribe” tend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as a group as they decide together what to learn, which program to register

for, and which institution to attend. They also collectively decide whether to quit the program or not as they share their complaints with the group. The decisions they make as a group affect the opening and closing of programs as well as the institutions' administrations.

Various dynamics exist between "lifelong learning tribes" and lifelong educators. "Lifelong learning tribes" are not only controlled and managed by educators, but they also exercise power as the important members of institutions. Their power is derived from the period of time they have attended a particular institution. In the case of institutions attached to department stores or marts, the learners of the institutions can also become VIP customers of the department stores or marts, which are upper-level organizations of the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This further contributes to influencing the dynamics between learners and lifelong educators. If the subgroup of a "lifelong learning tribe" acts collectively, the power of the group, rather than that of an individual also affects the power dynamics between the learners and the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learners in the field of Korean education, and shows that the learners go through qualitative change by participating in lifelong education steadily. In addition, the term "lifelong learning tribe" expands our understanding that lifelong education learners are not just a homogeneous group but can create a new domain of learners. Moreover, this study finds that learner groups are at the core of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the institutions for lifelong educators who manage the institutions; thus the learners go beyond being a social group whose members share fellowship. By showing that lifelong educators and lifelong learners understand the role of the learner groups differently, this study stimulates the discussion on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learners and learner groups. Thu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reveals the core groups in the field of Korean lifelong education, the "lifelong

learning tribes,” and sheds light on the actions of the learners that help expand and sustain lifelong education in Korea.

Keywords: Lifelong Learning Tribe, Lifelong Learner,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Research on actors

Student Number: 2015-21570